

건축사

한국예술종합학교 석관동 캠퍼스

목동 현대 하이페리온 II

마당 안숲

중앙하이츠

수영 클린 센터

천주교 이매동 성당

465
<http://www.kira.or.kr>
200801

칼럼 | Column



신호근/정회원, 넥스트 건축사사무소
by Shin, Ho-geun, KIRA

약력

- 동아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석사
- 전 안양시청 건축지문위원
- 현 대림대학 건축학과 겸임교수

우리가 새롭게 가야할 길

new way to go on

필자는 최근에 건축사사무소 초기 때를 생각해본 적이 있다. 그때 당시 건축사자격 시험에 합격하기가 무섭게 30평 남짓되는 사무실을 차려놓고 내가 해보고 싶은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기쁨과 열정만으로 지금까지 용감 무식하게 운영해 온 것에 대해서 쓴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다. 지금 생각해보면 경영이 뭔지도 모르고 회계에 기초적인 지식도 없이 회사를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해 왔길래 여러 가지로 부족한 나를 채워보려고 다양하게 시도는 해보지만 별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이유를 되새겨 보면 개인사무소이다 보니 아침부터 경리 체크, 도면 체크, 인허가 체크, 시공현장 체크를 하다가 해가 지기 시작하면 진행중인 건축주와의 약속, 미래의 건축주가 될 다양한 고객을 좋던 싫던 자리를 같이하고 나면 어느덧 지친 하루를 마무리하게 된다. 이렇게 바쁘게 하루를 시작하다보면 요즘은 감리현장은 무슨 일이 생겼다고 하면 겨우 갈 정도이다. 지친 하루지만 가끔씩 같이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생각날 때가 있다. 동변상련이랄까 밤늦게까지 일하는 건축사끼리 술자리를 종종 하게 되는데,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나뿐만 아니라 주변에 건축사들이 직접적으로 표현은 안 해도 일에 지쳐있고 배움에 목말라함을 느낄 수 있다.

대개가 사무실 운영에 대한 부분, 사무소 직원들의 재교육과 효율적인 평가와 관리부분, 자주 바뀌는 관계법령의 이해와 자문부분, 건축설계 및 감리 업무 중 발생하는 다양한 사건사고의 자문 받을 곳을 찾는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진정 나아가려고 하던 건축사로서의 길–창의적이고 독창적인 건축설계를 하여 일의 보람을 느끼고 지인들에게 예술가로서 존경받는 것–을 가지고 싶은데 현실적인 문제에 쫓기다 보니 창의적인 설계업무는 뒤로 한 채 하루하루를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

최근 몇 년사이에 설계수주 방식이 턴키설계니 BTL이니 하는 방식이다 보니 소규모 건축사사무소에서는 참여할 엄두도 못내고 있고, 최근까지도 불거지고 있고 ‘건설사의 설계겸업 문제’ 또한 우리 건축사에게는 위기(危機)로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위기 속에는 있는 ‘機’는 기회와 재치의 의미를 담고 있듯이 협회도 이 위기를 회원들의 단합과 재탄생의 기회로 삼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전국에 회원들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와 교육을 통해서 다양한 수익모델을 창출해야 한다. 우리는 지역건축사회에서 시·도건축사회, 대한건축사협회에 이르기까지 전국적으로 체계적이고 조직화된 외형적 규모를 갖추어져 있으니, 이젠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회원사에게 다양한 지원과 관리시스템, 교육사업을 통해서 수익모델을 창출해서 협회를 운영할 수 있는 정책과 수익모델을 수립해야 할 시점이 왔다. 국가도 BTL이니 BTO를 통해서 경쟁력을 갖추려고 하고 있듯이 우리 협회도 외부에 경쟁력있는 경영전문가를 영입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경영방식을 도입하여 보다 경쟁력있는 협회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가장 우선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는 타업종의 협회의 정보 수집과 선진국의 건축사협회 운영사례를 외국에서 활동하고 귀국

필자가 생각하고 있는 몇가지 수의사업을 협회에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는 건축문화부설연구소 설립의 필요성,

둘째는 건축사에 대한 대중적 홍보의 필요성,

셋째는 소규모사무소 관리시스템의 필요성,

넷째는 건축사와 건축사보의 온라인 교육사업,

다섯째는 지역 건축사간의 다양한 교류의 필요성이다.

한 건축사나 외국에서 활동중인 한국 건축사를 통해서 정보 수집을 하여 좋은 사례를 정리하여 회원들에게 의견 수렴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

필자가 생각하고 있는 몇가지 수의사업을 협회에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는 건축문화부설연구소 설립의 필요성이다.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건축기본법'이 5개월이후부터 시행될 것을 대비하여 보다 구체적인 대안 수립이 요구되며, 건축기본법과 관련하여 단계적인 정보제공과 회원들에게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사업방향을 제안하기 위해서 빠른 시일내에 TFT팀이나 부설연구소 설립해 회원들에게 단계적이고 지속적인 온라인교육과 정보제공을 통해서 회원과 비회원의 사업방향의 차별화와 협회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는 건축사에 대한 대중적 홍보의 필요성이다. 일반적으로 TV의 드라마나 다른프로그램에서 '건축사'라는 명칭을 '건축설계사'라고 오칭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 또한 건축주들도 건축의 흐름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건설사나 부동산중개소를 통해서 설계자문이나 의뢰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중 매체를 통해 건축사의 역할과 건축설계가 단순히 건축도면을 그려주는 곳이 아니라 수차례의 스케치와 모형작업을 통해서 건축디자인이 탄생된다는 것을 보여 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문화예술축제의 참여와 사회봉사활동을 통해서 대한건축사협회의 대중적 홍보를, 건축사의 위상을 높이도록 하였으면 한다.

셋째는 소규모사무소 관리시스템의 필요성이다. 건축사 1인이 운영하는 사무소 건축사는 팔방미인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낮에는 거의 외근을 하기 때문에 직원과의 교류관계가 원만하지 않기 때문에 온라인 관리시스템이 요구된다. 일반기업은 이런 시스템이 도입된지 한참 되었기 때문에 적용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는 건축사와 건축사보의 온라인 교육사업이다. 대기업들도 과거에 직원교육을 연수원과정에서 온라인교육으로 전환한지가 한참되었고 시스템도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다. 그래서 협회는 온라인 교육사업자와 제휴를 맺어 그 회사의 시스템과 협회에서는 전국에 대학에 출강하는 강사인력풀을 활용하여 다양한 건축교육사업을 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된다.

다섯째는 지역 건축사간의 다양한 교류의 필요성이다. 지역협회를 중심으로 전국건축문화탐방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역간의 정보교류와 문화교류를 통해서 회원간의 친목도 도모할 수 있고 협회의 발전을 위해서 인재도 발굴할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서 협회가 주체가 되어서 국제건축여행프로그램을 여행사와 공동 개발하여 전국에 있는 회원들과 건축관련학과 학생, 그리고 일반인들에게 건축문화를 제대로 알릴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협회 수의사업화도 가능하다고 본다.

이상과 같은 제안을 토론할 수 있는 장(場)이 바로 '건축문화신문'에 열려 있다. 필자처럼 글을 조리있게 못 적어도 공감하는 건축사가 많을 것으로 믿고 용감무식하게 적어 보았다. 회원의 한사람으로서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협회에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보내 주기를 바란다. 새해에는 회원분들의 회사와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시길….

시론 | Focus



성기혁/경북대학 산업디자인과 교수
by Seong, Gi-hyeok

약력

- 흥익대학교 시각디자인과, 동대학 산업미술대학원
- 저서 : 색즉시색, 색채기행
- 경북대학 디자인연구소 소장

아날로그 편지

analog letter

하루하루가 매양 퍽퍽하던 차에 때마침 친구들이 속초로 바람쐬러 가자는 전갈이 왔습니다. 월급이 아내 통장으로 들어가니 손을 디밀기 뒷해서 술값을 어찌나 싶었는데, 지난 여름방학에 어느 회사의 로고를 디자인해주고 받은 돈 생각이 펴뜩 났지요. 그 알토란같은 비상금을 소설책 갈피에 끼워둔 게 분명한데 아무리 찾아도 없더군요. 이 책 저 책 뒤지다보니 곰팡내 풍기는 「노자」에서 물결 20여년이 훌쩍 지난 편지 한 통이 나 보란 듯이 머리를 디밀더군요. 대학시절 겨울밤을 꼬박 지새워가며 성냥개비를 깎아 먹물을 먹여 잘다잘게 써내려간 그 연애편지는 어찌된 판국인지 당사자 손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렇게 잠자고 있습니다. 얇은 종이 일곱 장에 사랑이란 단어 하나 없이 구구절절 뇌까린 편지는 민망하면서도 먹먹합니다. 그게 남세스러운 건 그녀가 딴 녀석에게 시집간 탓일까요?

드라마 대장금에 이런 대사가 나오지요. 드시는 분의 입가에 미소가 도는 걸 생각하면서 이 음식을 만들었노라고. 요리가 이러할진대 그림이나 글이야 오죽하겠습니까? 보는 사람을 감동시키는 일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모든 표현은 형식과 내용을 갖기 마련인지라, 아름답고 풍클해야 감동이 마중 나옵니다. 물론 능숙한 표현은 도구를 잘 다루는 게 기본일 테지요. 인간이 짐승과 다른 점은 뭐니 뭐니 해도 손이 자유롭다는 점입니다. 손으로 도구를 만들고 그 도구가 문화를 만들어 온 셈이지요. 허나, 어인 일인지 첨단을 달리는 이 시대에 도구를 다루는 손은 퇴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붓은 키보드로 바뀌고 자잘한 가전제품이 고장 나면 고칠 엄두가 안날만치 뭔가 복잡하기 짝이 없습니다. 빨래는 세탁기가 해주고 이미 칼질을 마친 생선으로 요리하고 전화 한 통화면 바로 먹을 수 있게 배달까지 해줍니다. 사전을 뒤지는 것도 귀찮아 전자사전을 씁니다. 기계한테 지시를 내리는데 익숙한 손은 백수(白手)를 닮아갑니다.

요즘 학생들은 글씨가 괴발개발인 경우가 허다하지요. 어떤 녀석이 우겨대길 천재는 악필이라고 뇌까리고, 재주 많은 인간이 가난하다고 편하하는 죽도 더러 있습니다. 시험지를 채점하다보면 자꾸 입이 마르곤 합니다. 온라인 시대에 웬 글씨 타령이냐고 타박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편리함과 무한복제와 즉시성으로 무장한 디지털은 우리를 코너로 몰아갑니다. 어쩌면 더 이상 빠져나올 방도가 없을 듯도 합니다. 어느 학자가 그러더군요. 현대문명은 브레이크 터진 자동차 같나요. 속도가 미덕인 이 때, 편지지 꺼내놓고 연애편지를 쓰는 열간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탁월한 이메일이 있으니까요. 게다가 핸드폰 문자질만으로도 연인의 마음을 흔들어주기에 충분할는지도 모릅니다. 진도가 빠른 연애는 끝장도 빠르기 마련입니다. 자빠르

글씨는 인격이라고 부르짖는 나더러 내 제자들이 콧방귀 뀌는 걸 모르지 않습니다.
갖가지 컴퓨터용 서체는 인간미가 가신 기성품입니다.
상품이기도 하지요. 시중에 범람하는 이 나라 디자인은
하나같이 컴퓨터 서체로 대량생산 되고
그걸 만드는 디자이너들도 손으로 그려내고
글씨를 만드는 일을 잊은 지 오릅니다. 서늘합니다.
그 오랜 연애편지가 죽치고 있던 「노자」에는 이런 대목이 담겨 있더군요.
'말이 많으면 자주 궁해진다. 그 속에 지키느니만 같지 못하다'
그러니, 노자 말씀을 믿고 이쯤에서 말을 줄이는 것도 좋겠지요.

게 여러 이성을 섭렵하는 작업이 짧은 인생에 훌륭한 축적일는지 모르겠으나, 그 방면에 워낙 재주가 메주인 나는 느린 연애가 좋다고 우겨봅니다. 남녀지간의 커뮤니케이션과 종족번식 본능이 엄연하니 18세기의 연정이나 21세기 연애는 매한가지일 겁니다. 시쳇말로 본능에 충실하라고 강변하더라도 인간이 짐승이 아닌 이상 낭만과 감동이 없는 인생이 멋질 리 없겠지요. 비단 연애뿐일까요.

디지털은 참 훌륭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나는 아둔한 탓에 그놈의 디지털에 자꾸 숨통이 막힙니다. 인터넷은 가상이고 망상의 세계입니다. 현실로 착각하는 허상 속에서 우리는 망연히 꿈꾸고 착각하며 익명의 숲 속을 방황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궁상을 떠는 내가 고리타분한 구시대의 유물인 탓일 게지요.

석기시대 동굴에 그림을 남기던 사내의 후손들은 더욱 솜씨를 연마해 그릇을 빚고 종이도 만들었지요. 글씨를 써서 마음을 전하고 작은 매화 그림 하나 곁들여 정인이나 친구에게 마음을 보내곤 했다지요. 손으로 만들어내는 것들은 아름답습니다. 만든 사람의 마음씨가 담겨있기 때문이지요. 또한 정성들여 글씨를 꾸려가는 동안 손은 뇌를 움직이고 뇌는 손끝으로 스며서 저절로 풋내가 건너오지요. 살아 있음의 증거입니다.

내가 하는 디자인 작업은 어지간하면 손 글씨와 붓으로 그려낸 이미지로 느낌을 끌어낼 요량으로 수작을 부리곤 합니다. 그걸 스캔하고 텍스트를 가미하느라 컴퓨터를 불들고 일하다보면 뒷골이 쑤실 적이 많습니다. 그럴 적엔 붓을 꺼내들고 화선지에 그림도 그리고 낙서처럼 글을 써보기도 합니다. 물론 그림과 글씨를 곱게 접어 우표를 붙이고 우체통에 넣어 감동을 전할 곳이 이젠 없습니다. 향기 가신 아내에게 연애편지를 보낼 만치 몽롱하지도 않지요.

글씨는 인격이라고 부르짖는 나더러 내 제자들이 콧방귀 뀌는 걸 모르지 않습니다. 갖가지 컴퓨터용 서체는 인간미가 가신 기성품입니다. 상품이기도 하지요. 시중에 범람하는 이 나라 디자인은 하나같이 컴퓨터 서체로 대량생산 되고 그걸 만드는 디자이너들도 손으로 그려내고 글씨를 만드는 일을 잊은 지 오릅니다. 서늘합니다. 그 오랜 연애편지가 죽치고 있던 「노자」에는 이런 대목이 담겨 있더군요. '말이 많으면 자주 궁해진다. 그 속에 지키느니만 같지 못하다' 그러니, 노자 말씀을 믿고 이쯤에서 말을 줄이는 것도 좋겠지요. ┌

한국예술종합학교 석관동 캠퍼스

Korean National University of Arts



김관중 / 정회원, (주)삼우 종합건축사사무소
by Kim, Kwan-joong, KIRA

작곡

-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 현 (주)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설계1본부장
- 작품 : 서울특별시청사, 수원월드컵경기장 외 다수

● 배치도



● 건축개요

| | |
|-------|--|
| 대지위치 | 서울시 성북구 석관2동 산1-5 |
| 지역지구 | 일반주거지역, 문화재보호구역, 도시근린공원 |
| 주요용도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 대지면적 | 433,520m ² |
| 건축면적 | 14,517.63m ² |
| 연 면 적 | 56,204.03m ² |
| 건 폐 율 | 3.35% |
| 용 적 률 | 8.29% |
| 규 모 | 지하 2층, 지상 5층 |
|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조 |
| 내부마감 | 노출콘크리트, 나왕각재, 점토벽돌, 시멘트블록, 콘크리트 바닥강화제 |
| 외부마감 | 노출콘크리트, T24복층유리, 불소수지 골강판, 스팔릿 페이스트 블록 |
| 설계담당 | 김관중, 이형일, 김환, 박봉규, 최성원, 이선희, 박상돈 |
| 구조설계 | 경재구조 |
| 설비설계 | 선진 설비연구소 |
| 전기설계 | 나라 기술단 |
| 시공사 | 생옹건설(주) |
| 건축주 | 한국예술종합학교 |



Location 1-5, Seokgwan2-dong, Seongbuk-gu, Seoul, Korea

Site area 433,520m²

Bldg. area 14,517.63m²

Gross floor area 56,204.03m²

Bldg. coverage ratio 3.35%

Gross floor ratio 8.29%

Structure R.C + S.C

Bldg. Scale B2, F5



1. 남쪽 캠퍼스 전경



2. 강의동 야경

한국예술종합학교는 실험적인 교육방식이 두드러지는 예술전문인 교육기관이다. 석관동의 제2교사는 이러한 특성에 초점을 두어 전체 시설의 외벽과 내벽을 구성하는 노출콘크리트가 학생들의 창작 활동을 위한 배경으로 작용하도록 연출했다. 단순해 보이는 회색 매스 사이로 다양한 레벨의 데크가 형성하는 완만한 경사 지형, 선큰, 필로티 등의 오픈 스페이스는 캠퍼스에 다채로운 외부 공간과 휴식 장소를 제공한다.

신축 교사의 영역은 진입도로 및 순환도로에 의해 자연스럽게 강의동, 극장동, 복합문화센터로 3등분 되도록 계획했다. 극장동과 복합문화센터 사이로 형성된 보행자 전용도로는 캠퍼스의 중심광장이 되며, 여기에서 각 영역으로 동선이 분기된다.

극장동의 대지는 사적지인 '의릉' 문화재 보호구역에 포함되기 때문에, 극장을 지하로 배치하여 주변 능선과 산림 혼순을 최소화하였다. 복합문화센터는 대학본부, 도서관, 학생회관 등 다양한 기능군으로 구성된 복합 건물로서, 경사지를 이용해 'ㄷ' 자로 배치된 건물들이 자연스럽게 중정을 형성한다. 강의동은 4개동을 연결하는 스파인(spine) 공간과 각동의 코어를 통해 수직수평 이동이 가능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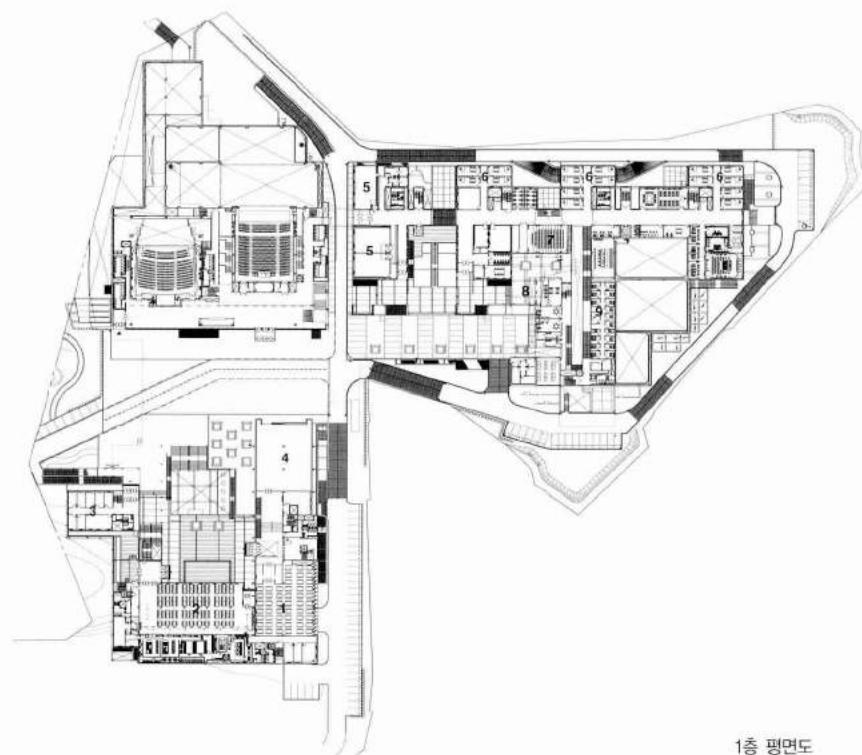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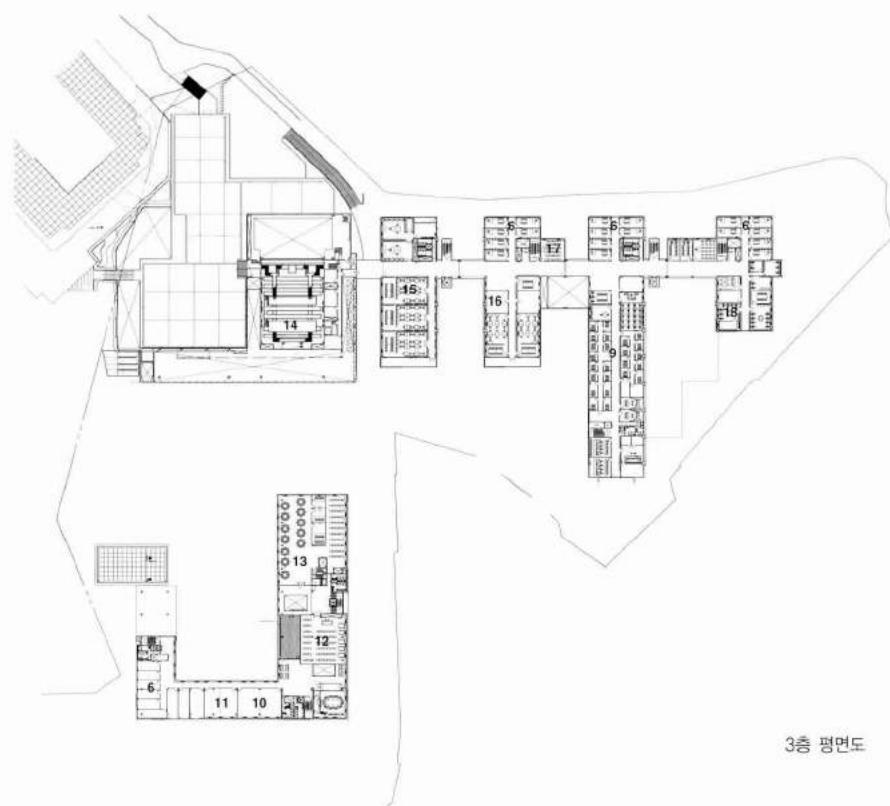
록 했다.

이러한 시설들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도심에 비해 문화 시설이 부족한 지역 주민들에게도 공개함으로써 한국예술종합학교는 서울의 새로운 예술 인프라로서 그 역할을 지향하고 있다. ■





- 01_ 자유열람실
- 02_ 식당
- 03_ 동아리실
- 04_ 전시실/수장고
- 05_ 연습실
- 06_ 교수실
- 07_ 시사실
- 08_ 학생회실
- 09_ 면접실
- 10_ 교무과
- 11_ 학생과
- 12_ 자료실
- 13_ AV열람실
- 14_ 투광실
- 15_ 디자인실기실
- 16_ 연구실
- 17_ 강의실
- 18_ 실습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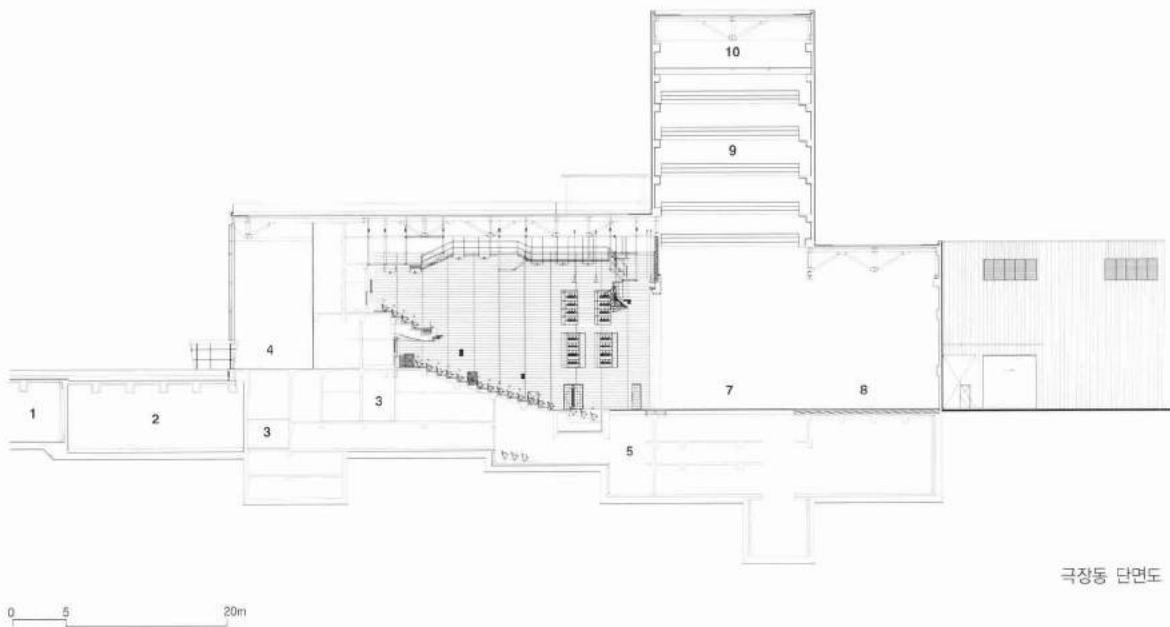


0 5 20m

| | |
|---|--|
| 1 | |
| 2 | |

1_ 강의동 주경
2_ 복원문화센터에서 바라본 전경

- 01. 전기실
- 02. 대연습장
- 03. 달의실
- 04. 로비
- 05. 오케스트라 PIT
- 06. 무대 PIT
- 07. 주무대
- 08. 후무대
- 09. 플라이타워
- 10. 그린드아이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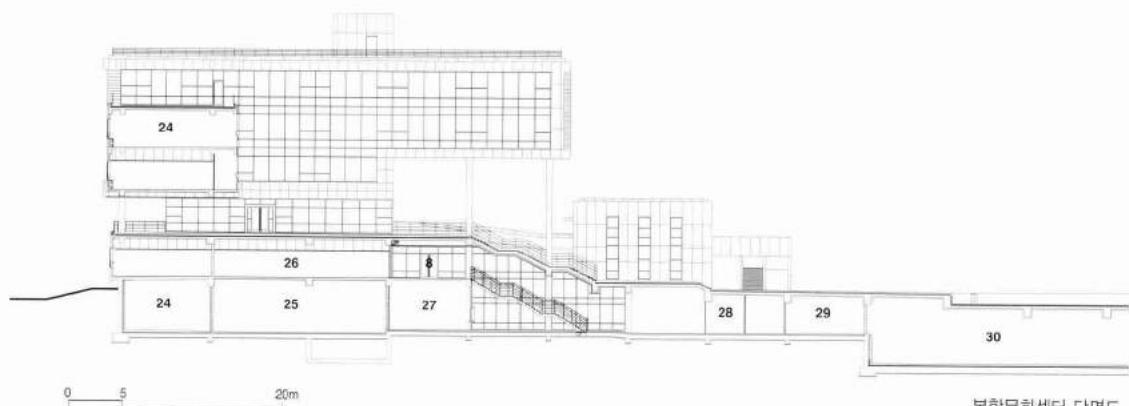
1. 극장동 전경
2. 복합문화센터에서 바라본 전경
3. 극장내부전경
4. 강의동 필로티 하부전경
5. 로비에서 찾을 수 있는 연결되는
6. 극장동 로비 남측전경



- 01_ 실험스튜디오
 02_ 연습실
 03_ 디자인설기실
 04_ 연구실
 05_ 계단강의실
 06_ 아외무대
 07_ 공연제작스튜디오
 08_ 출입
 09_ 원정실
 10_ 디자인설기실
 11_ 청적실
 12_ 디자인영상스튜디오
 13_ TV ST 부조정실
 14_ 시사실
 15_ 멤버강의실
 16_ 심기실
 17_ 창화설기실
 18_ TV스튜디오
 19_ 기자재실
 20_ 음향믹스실
 21_ 영상자료실
 22_ 기획설습실
 23_ 제작촬영실
 24_ 휴게실
 25_ 주차장
 26_ 식당
 27_ 매점
 28_ 취업정보실
 29_ 신문서
 30_ 전기실



강의동 단면도



복합문화센터 단면도



목동 현대 하이페리온 II hyundai hyperion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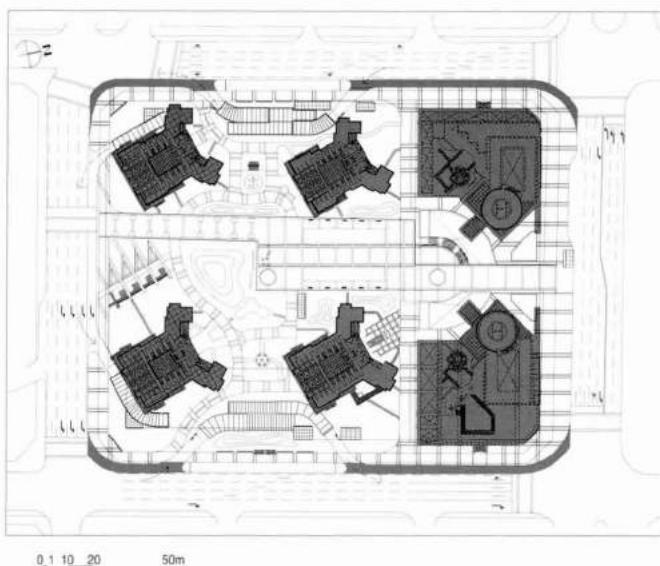


박형근 / 정회원, (주)네오플랜 건축사사무소
by Park, Hyung-keun, KIRA

작력

- 건국대학교 공과대학 건축공학과
- 현 (주)네오플랜 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 배치도



● 건축개요

대지위치 서울시 양천구 목동 961, 961-1
지역지구 일반상업지역, 중심지미관지구
주요용도 공동주택, 업무시설, 판매및영업시설, 균린생활시설
대지면적 23,889.60m²
건축면적 7,503.11m²
연면적 230,344.18m²
건폐율 31.41%
용적률 631.71%
규모 지하4층, 지상 31, 33, 37, 40, 41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내부마감 석재마감, 세라믹타일, 다채무늬도료, 수성페인트
외부마감 화강석마감, 칼라강판, 알미늄시트
설계담당 공윤제, 이경옥, 이강원
구조설계 동양구조안전기술
설비설계 청우E&G
전기설계 일신E&C
시공사 현대건설(주)
건축주 (주)코리아원



Location 961, Mok-dong, Yangcheon-gu, Seoul, Korea
Site area 23,889.60m²
Bldg. area 7,503.11m²
Gross floor area 230,344.18m²
Bldg. coverage ratio 31.41%
Gross floor ratio 631.71%
Structure R.C
Bldg. Scale B4, F31, 33, 37, 40, 41

1 모형사진 2 주거동 전경

머리말

현대하이페리온2는 강서, 양천지역의 교육과 주거문화 중심으로 떠오른 목동지역 중심축개발계획을 완성하는 막바지 프로젝트 중 하나로, 지역사회 기여와 거주자의 편의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욕심많은 프로젝트였다. 대다수의 고층건축과 마찬가지로 어려운 과정을 감내하여 완성을 보게 되었다.

외부계획

대지 남측에 인접한 삼성 쉐르빌 아파트와 북측에 건축예정인 삼성트라팰리스의 스카이라인에 자연스럽게 적응하여,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여섯개의 매스를 갖추었고, 중후하고 현대적인 입면을 더한 하이페리온2는 오목로를 지나는 통행자에게 양천구의 발전된 주거 양식을 대변해주는 기호가 되고 있다. 인접지의 일조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의 산물로 각 동의 높이가 조정되었지만, 결과적으로 같은 형태의 매스가 쌍을 이루며, 시점에 따라 악보의 음표처럼 율동짓고 변화하는 인상깊은 표정을 주게 되었다.

부지를 동쪽에서 바라보면, 낮은 단과 높은 단 두 층으로 나뉘어보이고, 서쪽에서 바라보면 같은 높이의 두 단이 쌍을 이루는 형태로 보이는데 사면으로 배치된 각 동은 보는 시점에 따라 시지각적인 착시를 불러 실제보다 과장된 거리감을 보여주어 단조로운 주거건축의 매스에 시각적인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으며, 시간대에 따른 태양일주에 따라 입면의 색상은 때로는 화사하고 따뜻하게, 때로는 단단하고 강인하게 변화되어 보인다.

거주동의 기단부는 대지로부터 솟아오른 상부구조물을 굳건하게 지탱하는 지지기반으로서 강한 인상을 주도록 하였으며, 높고 두터운 주동의 매스에는 마치 두터운 고목에 돋아난 새순과 같이 작고 안락한 개실들을 안은 얇은 매스가 남쪽으로 벌려지면서 돌출되어 있다.

주거동 최상부 각 동의 머리모양은 얇은 프레임들이 중복해서 잡아주는 여인의 쪽진 머리모양을 닮아 있으며, 상승하는 육중한 매스를 간결하게 마무리지어 주고 있으며, 업무동 상부엔 엇갈려 올려진 헬리포트에 의해 매스에 변화를 주고 있다.

남측의 업무동은 보행자통로에서 진입할때 거대한 문처럼 보여지



는데, 마주보는 안쪽면을 푸른유리커튼월로 감싸 마치 하늘로 향하는 문으로 보이도록 했으며, 자연스럽게 보행자동선의 흐름을 부지 안쪽으로 끌어들인다.

실내계획

고층주거의 가장 중요한 잇점인 조망, 채광에 대해 가장 우선순위를 둔 실내계획방향에 따라 큰 매스를 나누고 펼침으로서 실내의 주요공간에서는 독립된 가옥에서 누릴 수 있는 조망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었다.

각 개실은 사방에서 아름다운 조망을 실내로 안고 들어가는데, 오밀조밀하게 계획된 단지내 조경, 대지 사면을 돌아가는 도로들, 그리

고 동의 사선배치에 의해 사선으로 빚겨가는 수많은 빛의 라인으로 구성되는 야경을 안으로 들여온다.

실내공간의 구조는 융통성있게 나뉘어 사용할 수 있는 넓은 거실을 중심으로 간단한 동선에 의해 각 실로 연결되고 있으며 각 공간들은 매스의 형태를 따라 가상의 매스중심부로부터 외부와 내부가 평면적으로 상호 민입되어 있어 위계상 독립된 각 방은 서로 큰 매스에서 분리되어 간섭없이 사방으로 열린 풍경속으로 빨려나가고 있다.

보행자동로

지역사회 기여라는 측면에서 새로 들어선 랜드마크적 경관에 의한 지역주민들의 시각만족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전체

- 1. 단지 내 보행자 전용도로
- 2. 지하주차장 캐노피
- 3. 단지마당
- 4. 선관 내 벽천



지면을 공원화하여 부지의 마당을 제한없이 제공한다.

주민과 이웃이 어울려 이용하는 오피스동 하부의 균생시설은 선큰을 중심으로 양 측면에 배치되어 선큰을 형태, 기능적으로 감싸안고 있으며, 선큰을 돌아가며 배치된 운동시설과 판매시설 등 커뮤니티 시설은 통과보도로의 역할에 더해져 지역주민이 함께 시설을 적극적으로 공유하는 장을 마련해준다.

선큰은 반원형태로 남쪽을 향해 열려있으며, 벽전과 다수의 수직 동선의 형태들에 의해 시각적인 즐거움을 주고 있고 지하층의 각종 시설에서 하늘과 주동을 향해 시선을 두며 느낄 수 있는 풍부한 조형적 요소들을 배치해 보행자통로와 복층을 이루어 하나의 아름다운 거리풍경을 만들어주도록 하였다.

부지내에 잘 정비된 도심공원, 각종 커뮤니티 시설을 밀집하여 설치한 중앙선큰, 이 모두를 안고 인근단지를 관통하여 길게 뻗어가는 보행자거리는 입주민과 인근주민이 자유롭게 사방으로 퍼지고 모이며 만드는 역동적인 동선을 형성하도록 이끌고 있다.

꼬리말

육중하게 하늘을 받치며 서있는 여섯개의 매스와 그 사이로 열린 보행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의 동적인 움직임은 입주민의 주거생활을 지지하는 가치있는 안락한 보금자리이며 동시에 지역사회의 주민에게 실생활노드로서의 장이될 하이페리온2는 기획당시 도달하고자했던 계획의 추구점이 어울린 건축물이라 할 수 있다. ■



업무동 기준층 평면도



주거동 기준층 평면도

- 01_ 거실
- 02_ 주방
- 03_ 안방
- 04_ 드레스룸
- 05_ 침실1
- 06_ 침실2
- 07_ 가족실
- 08_ 현관
- 09_ 창고
- 10_ 다용도실
- 11_ 보행자 전용도로
- 12_ 궁공보행도로
- 13_ 공개공지
- 14_ 선쁜
- 15_ 주거동
- 16_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1층 전체평면도



업무동 정면도, 좌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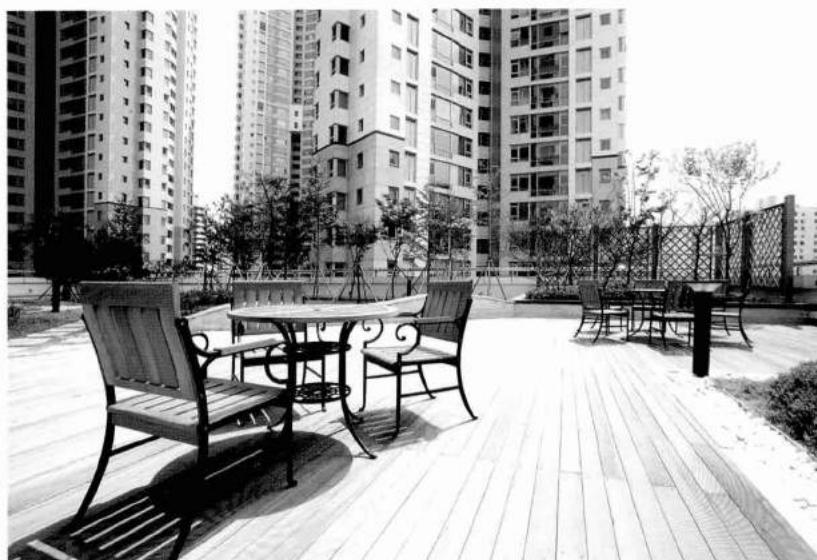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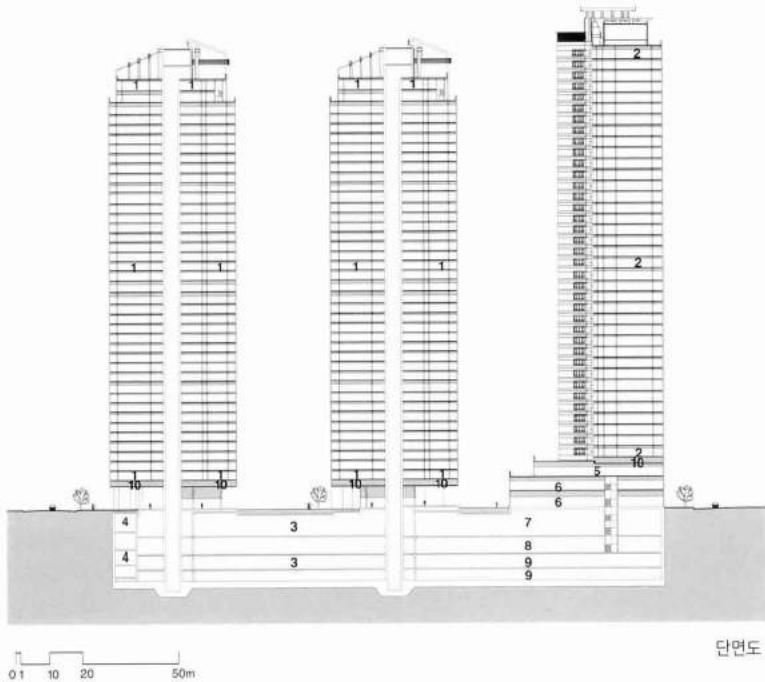


주거동 정면도, 좌측면도

- | | |
|-------------|------------|
| 1. 옥탑 경관 조명 | 3. 선관 내 면모 |
| 2. 단지 내 산책로 | 4. 아늘 창원 |
| | 5. 선관 내 백화 |
| | 6. 주거동 로비 |



- 01. 아파트
- 02. 오피스텔
- 03. 주거 지하주차장
- 04. RAMP
- 05. 근린 생활시설
- 06. 판매시설 및 명업시설
- 07. 운동시설
- 08. 판매/운동/근생 지하주차장
- 09. 업무 지하주차장
- 10. PIT



마당 안 숲 Forest Garden

건축사지 2007년 7월호 게재



정승권 / (주)건축사사무소 아르키움
by Jung, Seung-kwon

작자

- 흥의대학교 건축학과 졸업
- 현 (주)건축사사무소 아르키움 소장

● 배치도



● 건축개요

| | |
|-------|----------------------------------|
| 대지위치 |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1652-386 |
| 지역지구 | 관리지역 |
| 주요용도 | 주택 |
| 대지면적 | 646.40m ² |
| 건축면적 | 208.39m ² |
| 연면적 | 326.72m ² |
| 건폐율 | 32.24% |
| 용적률 | 40.23% |
| 규모 | 지상 3층 |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
| 내부마감 | 바닥-온돌마루, 타일 벽-도배마감 천장-도배마감 |
| 외부마감 | 노출콘크리트 |
| 설계담당 | 강난형 |
| 구조설계 | 이영호(노마디자인) |
| 설비·전기 | ENG에너지연구소 |
| 설계기간 | 2005. 11 ~ 2006. 05 |
| 공사기간 | 2006. 05 ~ 2007. 04 |
| 사진 | 건축사사무소 제공(촬영 박영채) |



Location 1652-386, Beobheung-ri, Tanhyeon-myeon,
Paju-si, Gyeonggi-do, Korea

Site area 646.40m²

Bldg area 208.39m²

Gross floor area 326.72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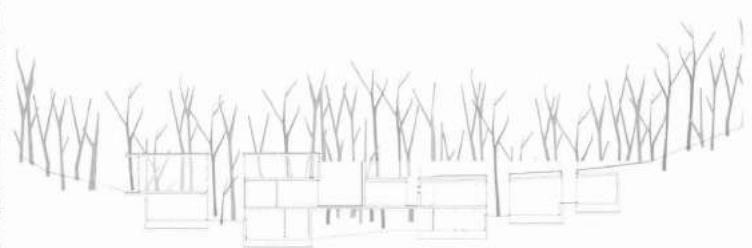
Bldg coverage ratio 32.24%

Gross floor ratio 40.23%

Structure R.C

Bldg. Scale F3

1. 마당 안 숲 정면
2. 마당 안 숲 내경
3. 마당 안 숲 단면도
4. 마당 안 숲 외경
5. 마당 안 숲 외경
6. 마당 안 숲 이경



중앙하이츠 JoongAng heigh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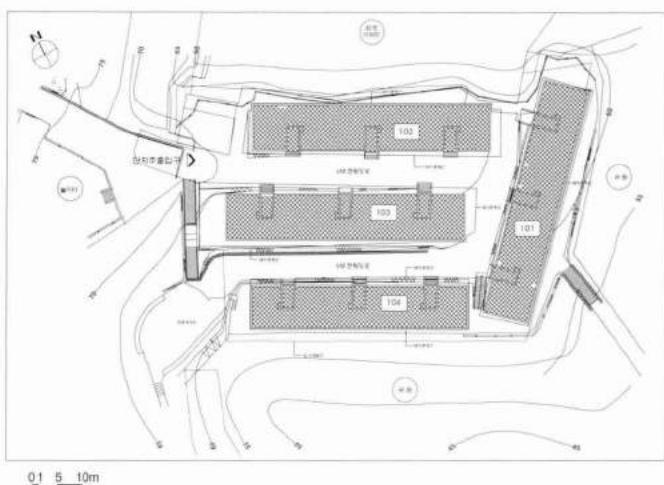


이장현 / 정회원, 엠그룹 종합건축사사무소
by Lee, Jang-hun, KIRA

학력

- 경기대 졸업, 건국대 대학원 석사
- 주요경력 : 교남동 문화센터, 월드뷰 주상복합, 제일웨딩홀, 부라다 복합빌딩

● 배치도



● 건축개요

| | |
|------|------------------------|
| 대지위치 | 서울시 마포구 청전동 42-7외 |
| 지역지구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 주요용도 | 공동주택(아파트) |
| 대지면적 | 2,243.0m ² |
| 건축면적 | 1,555.74m ² |
| 연면적 | 7,420.50m ² |
| 건폐율 | 69.36% |
| 용적률 | 330.83% |
| 규모 | 4개동 120세대, 지상 5층 |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
| 내부마감 | 수성페인트, 무늬쉬트, 벽지 |
| 외부마감 | 수성페인트, 적벽돌, 석재墀질 |
| 구조설계 | 우리구조 |
| 설비설계 | 유영엠이씨 |
| 전기설계 | 한신콘설란트 |
| 시공사 | (주)중앙건설 |
| 건축주 | 서강시범아파트 리모델링주택조합 |



Location 42-7, Changjeon-dong, Mapo-gu, Seoul, Korea

Site area 2,243.0m²

Bldg. area 1,555.74m²

Gross floor area 7,420.50m²

Bldg. coverage ratio 69.36%

Gross floor ratio 330.83%

Structure R.C + S.C

Bldg. Scale F5

재건축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리모델링이 한 주류를 형성해 가고 있는 추세이다.

본 프로젝트는 1971년 서민의 주거안정 차원에서 국유지에 건립한 후 건축물바닥면적만 사유지로 분양한 아파트로서 대지주변은 공원으로 형성이 되어있고, 한강의 조망도 가능한 자연적인 주거환경을 가지고 있으나 고지대의 경사지에 건축되어있고 주차장이 없는 단점과 대지여건상 재건축이 사실상 불가능 하여 리모델링을 추진하게 되었다. 서울시에서 리모델링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여 SH공사를 시행으로 하여 업무지원 하에 추진하였다. 본 아파트는 무분별하게 보수와 수선으로 단위세대는 거의 같은 평면이 없을 정도로 내부수리가 진행된 상태로서 구조의 안전성위협, 전기, 설비 마감재의 노후화로 수선의 한계에 도달하여 대책이 요구 되고 있었다.

또한, 도시적 차원의 다양한 기능에 대응하고, 건물의 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며, 에너지절약 및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며, 이러한 주민들의 욕구를 리모델링을 통하여 해결 하였다.

단지계획은 기존의 전체배치를 기준으로 외적요소, 즉 외부계단 및 난간, 우수, 오수, 도로와의 연결 관계 등 기존 생활의 불편요소들을 목적을 두었다. 단위세대계획은 기존의 평면에서 전, 후면의 증축 부분을 활용하여 수차의 변경을 통하여, 제한된 여건에서 최대한 주민의 편의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리모델링은 계획당시의 면밀한 현장조사가 필수이지만, 불가피하

게 조사를 하지 못한 부분 (지하 기초 및 단위세대 내부 등)은 시공과정에서 철거의 범위와 방법, 기존부분과 증축부분의 상호 구조적 유기적 연관관계, 보수 보강, 중성화 등 계획단계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의 시공반영을 설계자 및 시공자, 감리자, 건축주의 상호협의와 연구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초기에는 열악한 여건, 즉 리모델링의 이해 부족, 리모델링의 범위, 방법, 시공비용 등 여러 어려움이 많았으나, 모든 관계자들이 성공적으로 리모델링을 하여야 한다는 전제하에 기나긴 기간동안 서로 협력하고 노력한 결과물이 중앙하이츠가 아닐까 생각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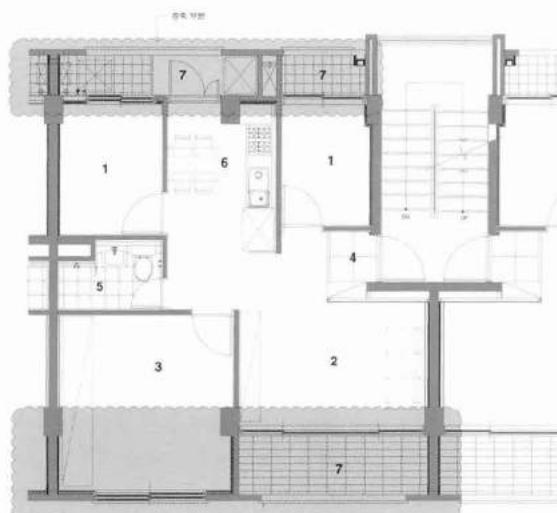


- 01_침실
- 02_거실
- 03_안방
- 04_현관
- 05_욕실
- 06_주방 및 식당
- 07_발코니



53형 단위세대 평면도

0 0.5 1 2 3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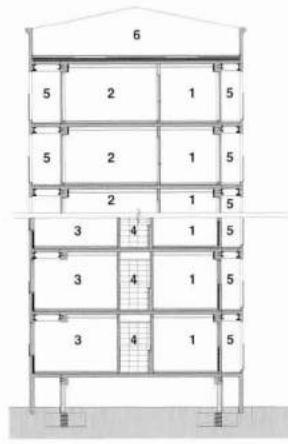
64형 단위세대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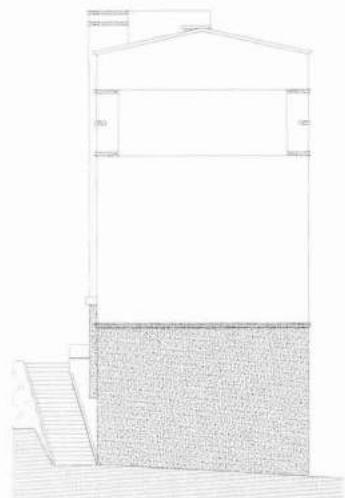
101동 정면도

- 01. 침실
- 02. 거실
- 03. 안방
- 04. 욕실
- 05. 밀코니
- 06. 옥상



0 05 1 2 3m

주단면도



101동 좌측면도



회원작품 | Work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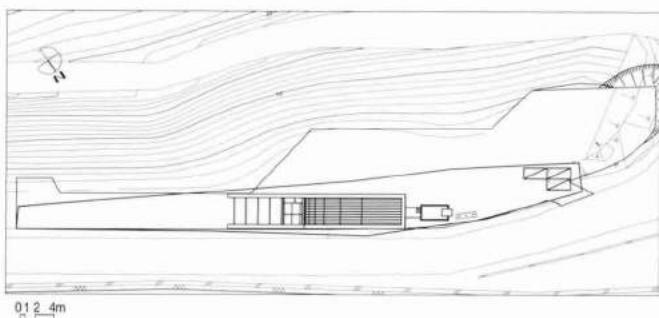
황영명 / 정회원, (주)우목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by Hwang, Young-myung, KIRA

학력

- 동서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 부산대학교 대학원 졸업
- 중원건축 · 일신설계 근무

수영 클린 센터 SUYEONG Clean Center

● 배치도



● 건축개요

| | |
|-------|---------------------------|
| 대지 위치 |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 336-77번지 일원 |
| 지역 지구 | 자연녹지지역 |
| 주요 용도 | 분뇨, 쓰레기처리시설(폐기물재활용시설) |
| 대지 면적 | 1,032,00m ² |
| 건축 면적 | 206.38m ² |
| 연면적 | 566.44m ² |
| 건폐율 | 19.99% |
| 용적률 | 54.88% |
| 규모 | 지상 4층 |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
| 내부마감 | 수성페인트, 디렉스 타일 |
| 외부마감 | 화강석 베녀구이, 반사밀러유리, 적삼목 |
| 구조설계 | (주)우목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
| 설비설계 | 청우 T&C |
| 전기설계 | (주)DH기술단 |
| 시공사 | 유안종합건설 |
| 설계담당 | 최상도 |



Location 336-77, Millak-dong, Suyeong-gu, Busan, Korea

Site area 1,032,00m²

Bldg area 206.38m²

Gross floor area 566.44m²

Bldg coverage ratio 19.99%

Gross floor ratio 54.88%

Structure R.C

Bldg. Scale F4





부산 수영구 민락동 수영강변에 위치한 재활용품 선별장 '수영클린센터' 와 관련해 건립추진 단계부터 인근 아파트 주민 등이 강하게 반발, 해당 법원에 공사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냈다. 이유는 재활용품 선별장이 들어서면 해안산책로와 휴식공간의 경관을 망치게 된다는 이유에서였다. 이후 친환경적인 디자인과 수영강변에 조화있게 설계한다는 조건으로 민원을 해결했다.

건물 용도적 한계점과 인근아파트 주민의 편견과 선입견을 없애고 주민정서를 반영함은 물론이요 정면에 수영강과 수영1호교가 있고 뒤에는 백산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어 친환경적으로 표현이 되도록 하였고 수영강변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수영강을 중심으로 한 연한정비사업, 수영강변친수공원화사업과 연계 추진되어 더욱 살기 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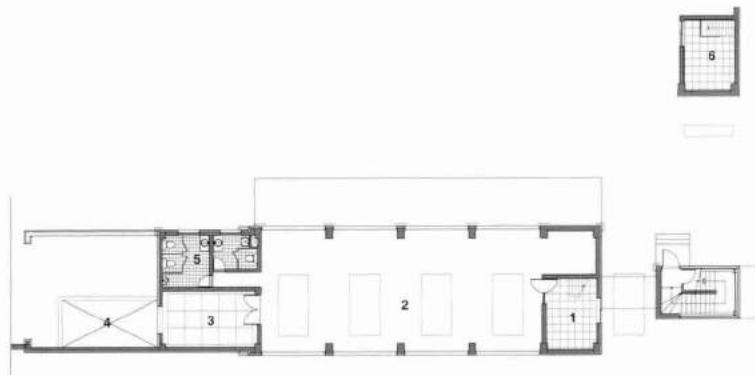
은 환경 친화적인 수영구의 상징적인 시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 안점을 두고 강에 배가 떠있는 이미지가 되도록했다.

건물은 배를 표현하여 백산의 곡선과 어우러지게 하였고 담장은 적삼목과 화강석을 사용하여 파도를 형상화했다. 건물 외부인접 고층 대단지 아파트와 주거시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으로 건물 외벽을 화강석과 반사 밀리유리를 사용하여 수영강이 유리면에 비치도록하여 주변과 조화되도록 했고 전체적인 건물형태가 비교적 간결하면서도 친밀감 있는 입면매스로 형성하여 친환경적 디자인과 미래 지향적인 이미지가 되도록했다.

수영 클린 센터는 2007년도 제23회 부산건축대전 Best 완공건축물부문과 제2회 전국지역자원 경영대회 금상을 수상했다. ■



- | | |
|---------|---------------|
| 01_ 사무실 | 06_ 속�작실 |
| 02_ 선별장 | 07_ 흙개실 |
| 03_ 창고 | 08_ 남자탈의실/샤워실 |
| 04_ 투입구 | 09_ 여자탈의실/샤워실 |
| 05_ 화장실 | 10_ 다용도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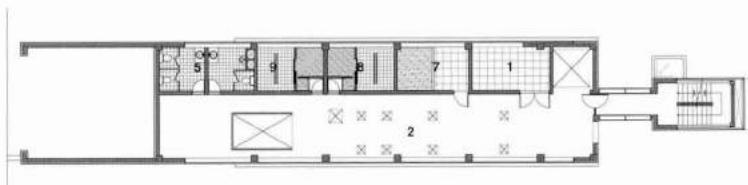


1층 평면도

- | | | |
|---|---|----------------------|
| 1 | 3 | 1. 동측 입구 아경 |
| 2 | 4 | 2. 남서측 입구 아경 |
| | | 3. 동측 천장 |
| | | 4. 서쪽에서 바라본 1층 주 침입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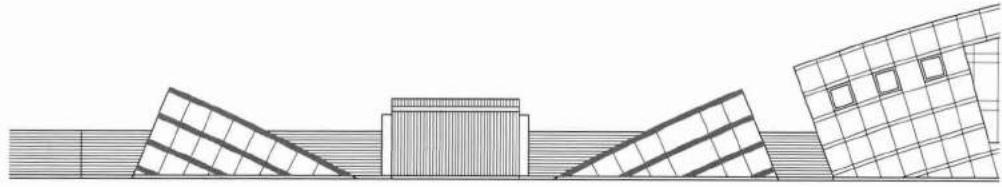


4층 평면도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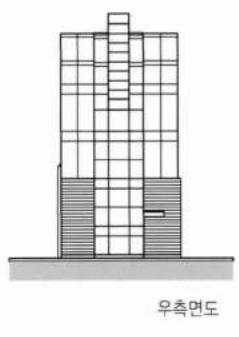


당장상세도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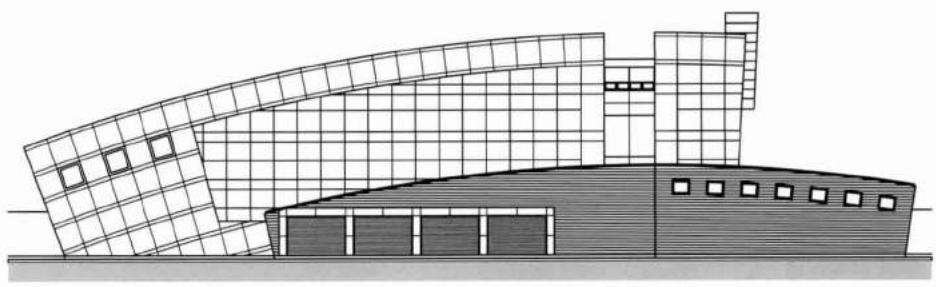


1. 동측 담장 외부 마감
2. 남서측 담장 외부 마감
3. 서측 계단등
4. 선별장 입구
5. 서측 계단실에서 바라본 외부 전경
6. 다용도실 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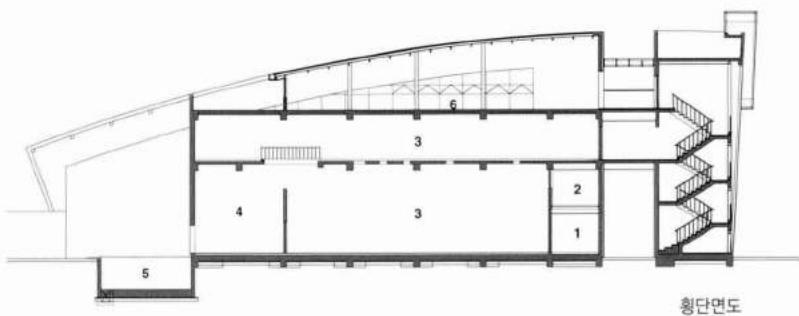
우측면도



정면도



종단면도



횡단면도

01_ 사무실
 02_ 숙직실
 03_ 선별장
 04_ 창고
 05_ 부입구
 06_ 다용도실

0 1 2 4m



회원작품 | Works



도대수 / 정회원, 그룹포럼 종합건축사사무소
by Do, Dae-soo, KIR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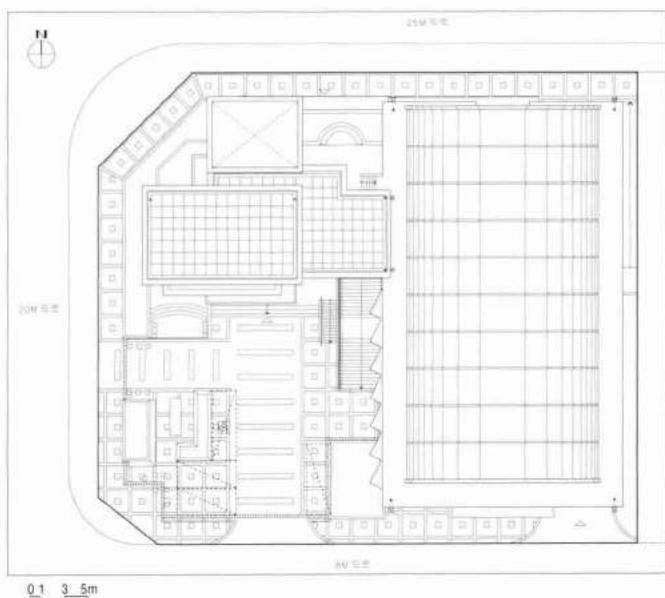
학력

- 대림대 건축과 졸업
- 한양대 산업대학원 석사
- (주)창조종합건축사사무소 근무

천주교 이매동 성당

Catholic Imae-dong Church

● 배치도



● 건축개요

대지 위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106-1

지역 지구 균린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주요 용도 종교시설(성당)

대지 면적 1,794.70m²

건축 면적 1,008.82m²

연면적 5,719.85m²

건폐율 56.21%

용적률 163.41%

규모 지하 2층, 지상 5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조(지붕)

내부 마감 화강석, 흡음재 뿐칠, 비닐페인트, 폴리싱타일

외부 마감 점토벽돌, 화강석, THK24복층유리, 지붕:동판잇기

구조설계 (주)유일구조기술사사무소

설비설계 (주)한은기술사사무소

전기설계 (주)청효하이텍

시공사 타임건설(주)

건축주 (재)천주교 수원교구 유지재단

설계담당 박영삼, 이경철, 송은희

사진 건축사사무소 제공(촬영_이영남)



Location 106-1, Imae-dong, Bundang-gu, Seongnam-si,
Gyeonggi-do, Korea

Site area 1,794.70m²

Bldg area 1,008.82m²

Gross floor area 5,719.85m²

Bldg coverage ratio 56.21%

Gross floor ratio 163.41%

Structure R.C + S.C

Bldg. Scale B2, F5

1. 북서쪽 전경 2. 남서쪽 전경

계획의 전제

성당은 하느님이 거(居)하는 집이요, 하느님을 만나는 장소이며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으로 신자들의 영성생활 지원과 함께 선교활동, 친교 및 문화적 커뮤니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배치계획

도시 죽,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 접근로와 경관을 고려하여 도시적 문맥의 흐름에 순응하면서 종교적 정체성을 부각시켰다.

주 매스는 동측 건물과 평행하게 대지의 한편으로 배치시키고 부매스는 좁고 긴 직육면체로 북측 도로와 평행하게 배치하고 종탑 매스를 사거리 모서리에 배치하여 인지성과 상징성을 주었으며, 자연스럽게 남측 외부에 열린 공간을 확보하여 다목적 행사와 활동을 할 수 있는 마당을 계획했다.

주 진입로는 열린 성당으로서 남측 마당 공간으로의 진입을 유도하였고, 북측 도로에서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동선의 원활성과 기능별 동선의 분리를 반영했다.

공간계획

성당은 주 기능인 전례공간을 중심으로 친교, 교육, 사무관리, 주거(사제관)등 복합적인 기능이 내재되어 있으며, 그 기능이 상호 연계되면서 공간적 성격이 고려된 독립된 영역성이 확보돼야 한다.

대성당은 접근과 공간의 영역성을 확보하고, 주 매스로서의 위계와 전례행위의 기능에 부합된 공간감을 충족시켰으며, 접근성은 다수 인원의 동선 흐름을 적극 검토하여 외부 공간과의 직접적인 연계와 내부 공간들 간의 상호 연계성을 고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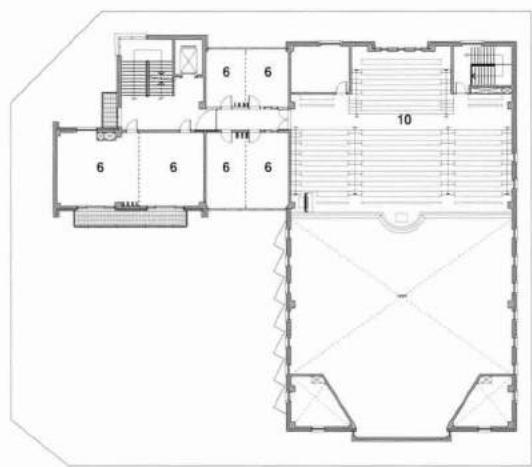
부 매스에 각종 교육실과 사무 공간, 사제관 등을 수직적으로 분리하여 각 영역별 독립성을 최대한 확보했다.

입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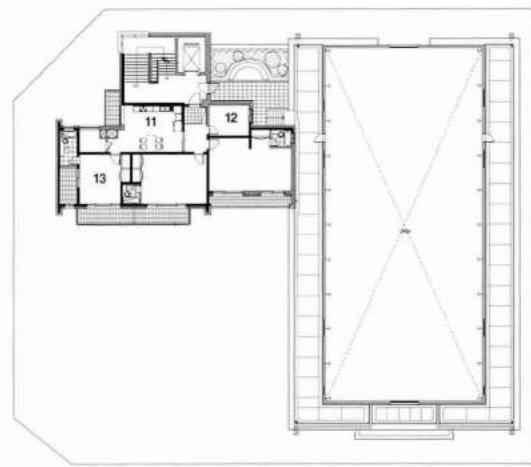
주위 환경에 순응하면서 전통적 소재인 벽돌을 주재료로 하여 교회의 상징적 전통성을 표현했고, 이는 인접 건물과의 자연스러운 연결감을 준다. 그렇지만 변화된 지붕 매스와 사거리 쪽 모서리의 수직 매스를 통하여 종교 건물로서의 상징성과 인지성을 표현했고, 재료의 대비와 매스의 분절, 상호 관입과 연결로 각 기능별 매스의 독립된 개념을 연결하여 하나의 조합된 유기체를 창조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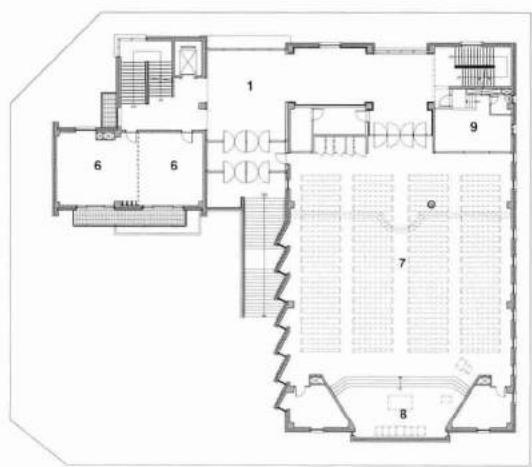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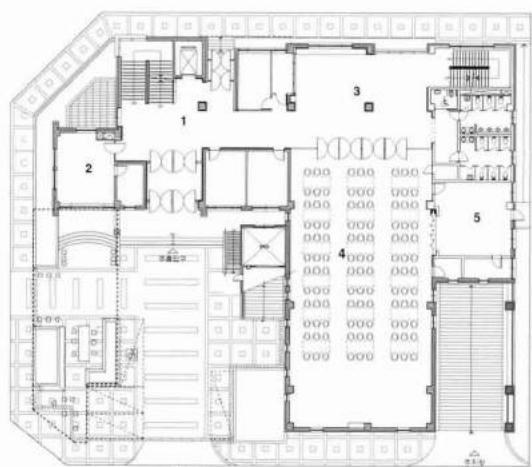
4층 평면도



5층 평면도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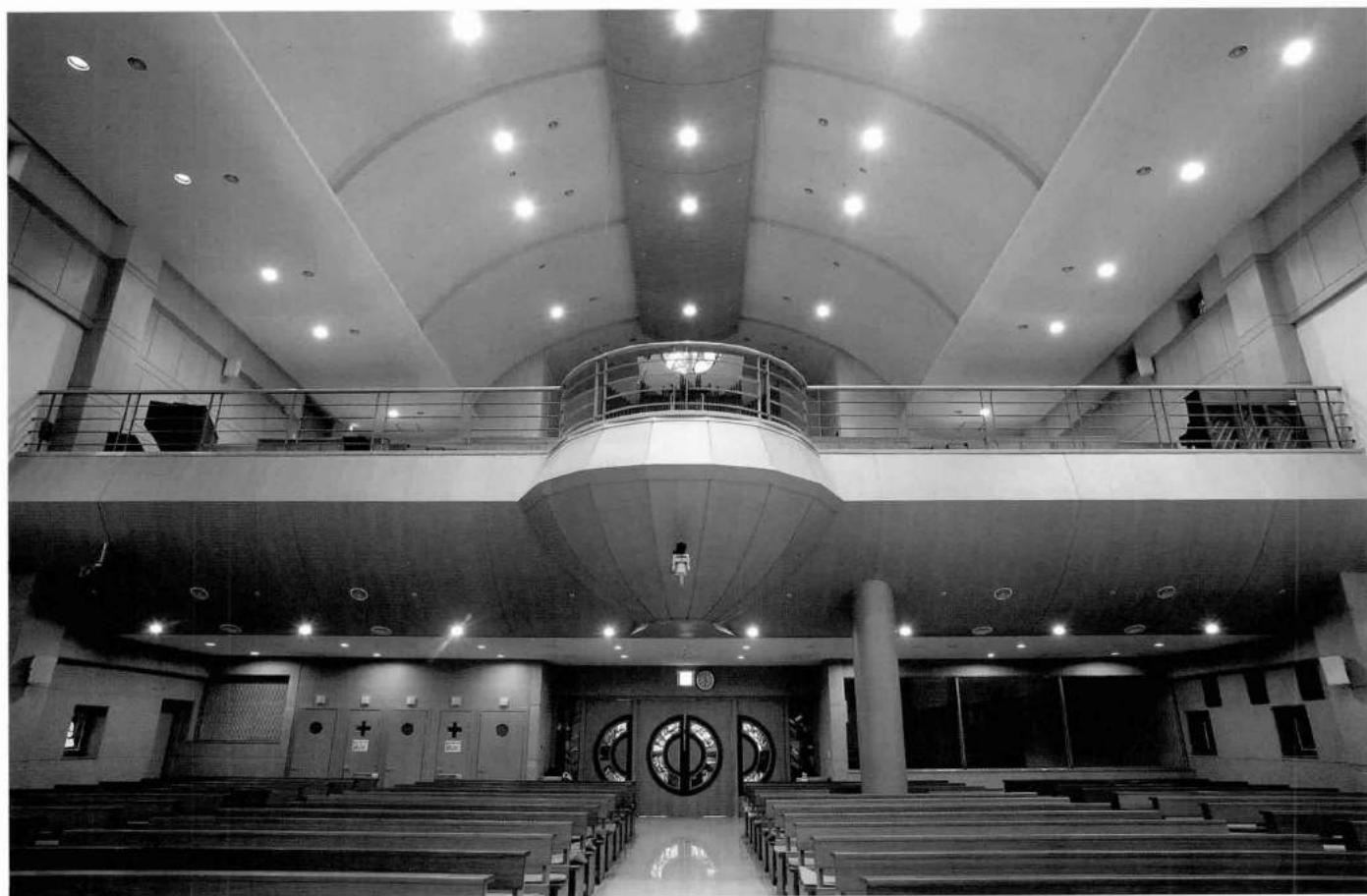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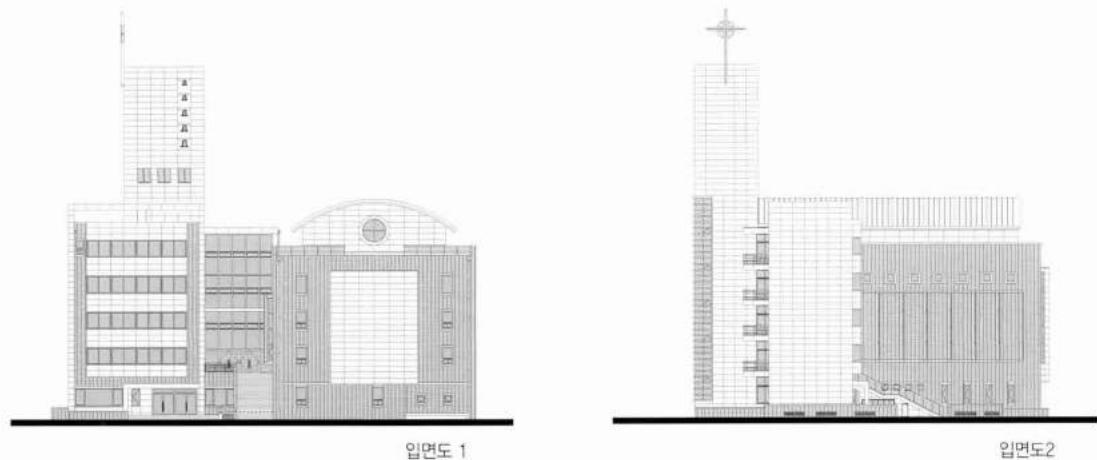
1층 평면도

| | |
|-----------|-----------|
| 01_ 층 | 08_ 제대 |
| 02_ 사무실 | 09_ 유아실 |
| 03_ 만남의 방 | 10_ 회중석 |
| 04_ 다목적실 | 11_ 주방/식당 |
| 05_ 주방 | 12_ 다목적실 |
| 06_ 교리실 | 13_ 침실 |
| 07_ 대성당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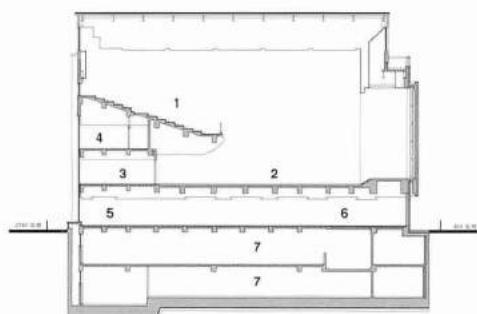
1. 정면 이경
2. 종단 외관
3. 정면 외관
4. 북서측 원경
5. 정면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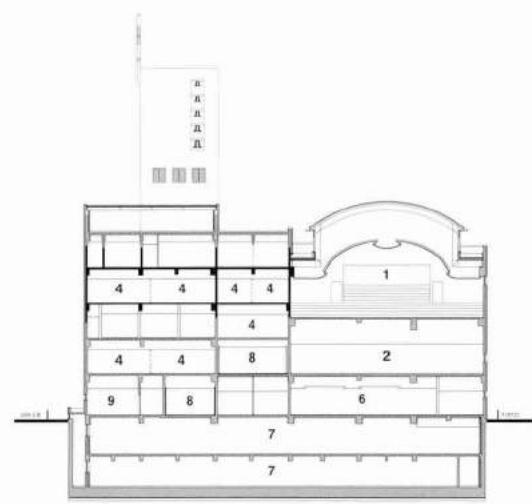




- 01_ 성가대석
02_ 대성당
03_ 韓
04_ 교리실
05_ 만남의 방
06_ 다목적실
07_ 주차장
08_ 방풍길
09_ 사무실



단면도1



단면도2

0.1 3.5m

1. 대성당 내부
2. 대성당 내부
3. 다목적실 내부



몽골의 건축과 도시개발의 현황

Architecture & Urban Planning in Mongolia

몽골과의 2007년도 후반기 건축교류는 양양의 대명 솔비치에서 몽골 측의 회장인 Batjav과 7명의 건축계의 대표단이 참석하여 이루어졌다. 회의의 목표는, 우리 측 입장에서는 전반기 울란바토로에서의 회의에서 본협회의 한명수 회장이 제안한대로 몽골의 개발에 대한 현황을 이해함으로써 우리 건축계가 앞으로 몽골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며, 몽골 측에서는 이제 설립하기 위해 준비하는 정부 산하의 법정 건축 단체로서의 협회설립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우리 협회의 법적 지위, 정관 및 기타 운영 제반사항에 대해 자료를 얻고,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것이라 볼 수 있었다. 이런 취지에서 한몽 건축교류에서 처음으로 우리 협회 측의 요구로『몽골의 도시개발의 현황 및 정책』에 대해 몽골 도시계획연구원의 국장인 Dr. Batbold가 발표를 하게 되었다.

지금도 우리 건축사 회원들이 개인적으로 몽골에 프로젝트를 수행하거나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협회 차원에서 이런 회원들이 더 안정적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며, 더 많은 건축사들이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후반기 회의에서 발표된 자료를 정리하여 모든 건축사 회원들과 공유하고자 건축사지에 게재키로 했다.
발표된 자료를 기사로 만들어준 몽골의 Dr. Batbold와 번역에 도움을 준 국제위원 김성민 건축사님께 감사드린다.(대한건축사협회 국제위원회 위원장 신춘규)



|필자_B. Batbold

1963년 출생, 몽골대학에서 건축학과를 전공했고, 일본 훗카이도대학에서 엔지니어링 석사와 박사를 마쳤다. 몽골 건축사사무소를 시작으로 일본 훗카이도 니켄 세케이(Nikken Sekkei) 유한회사에서 근무했으며 '프로젝트 X'사를 창립, 회장을 역임했다. 몽골 수도 울라바토르시 정부 산하 도시계획 설계협회의 부회장을 맡았으며 몽골 건설부에서 도시개발 정책부서의 총책임자였다. 또한 몽골도시개발협회(MUDI : Mongolian Urban Development Institute)의 창립멤버이자 회장을 맡고 있으며 몽골건축사협회(UMA : The Union of Mongolian Architects)의 이사직을 수행하고 있다.



|역자_김성민 정회원

1960년 출생, 성균관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전공했고, 미국 오클라호마 건축대학원을 졸업했다.
(주)장 종합건축사사무소 근무를 시작으로 지금은 (주)한섬 건축사사무소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또한, 대한건축사협회 국제위원회 위원으로서 대한민국 건축문화발전과 국제화에 앞장서고 있다.

'장소와 의미'라는 개념은 건축학의 주요 논제 중 하나이다. 필자가 일본의 홋가이도대학에서 공부할 때 이 개념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며, 박사학위 논문의 주제를 정하면서 고민 끝에 이 주제를 몽골의 건축 및 도시계획과 연계시켜서 고찰하였다.

분명한 점은 이 연구가 몽골에 한정되어서는 안되며 지역적 차원에서 다른 국가의 모든 요소와 외부환경을 비교하여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연구는 지도교수님의 노력에 많은 영향을 받았고 협력작업을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여기서 말하는 장소와 의미라는 개념은 일본 북부 지역의 최대 도시인 삿포로시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겠다.

홋가이도 같은 일본 북부의 건축과 도시계획은 기후와 지리적 위치가 완전히 다른 남부지역의 것을 그대로 수입하여 적용하였으나 국제적인 지역 차원에서 생각할 때 장소에 맞는 건축적 개념이 창출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북유럽의 건축과 도시계획에 관한 연구가 박사학위 논문 주제였고 그래서 필자와 지도교수는 북유럽의 국가들을 조사하였다.

연구의 목적은 장소란 무엇이고 장소와 그 '의미'의 차이에 관한 것이었다.

일반적으로 세계를 추운 지역인 '북부'와 따뜻한 지역인 '남부'로 대략 나눌 수 있다.

노르웨이의 건축 비평가인 Norberg Schulz의 저서 「Night lands」에서 북부지역의 자연과 기후 그리고 고유한 주거양식의 형태가 명쾌하게 묘사되어 있다. 여기서 관심을 끄는 것은 이 저서에서 말하는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기후, 자연, 분위기 등 많은 부분을 몽골에서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는 점이다.

북유럽(노르딕) 국가의 건축에서 볼 수 있는 '북부 지역의 빛'은 주요 논점의 하나이다.

우리는 특히 Alvar Aalto의 건축에서 그가 얼마나 독특하게 빛을 디자인하고 다루었는지 알고 있다. 이들 국가는 매우 춥지만 비교적 습하고 다른 유라시아대륙의 추운 지역보다는 따뜻한데 그것은 유라시아대륙의 훨씬 적은 일조량과 멕시코만류의 강한 영향 때문이다.

반면에 몽골이 속한 대륙에서는 연간 일조일이 250일에 불과하다. 이것은 이 지역의 북부 지역의 빛에 또 다른 특성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모든 북부 국가는 빛에 관해 많은 유사성이 존재하며 특히 겨울에 정취 있는 빛을 가진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Martin Heidegger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해와 달을 향해 여정을 떠나고, 별을 향해 잔虐한 계절의 행로를 떠난다. 밤을 낮으로 바꿀 수 없듯이 낮을 괴로운 불안으로 바꿀 수도 없다".

Place & Meaning : Is Mongolia Northern region country?

One of the main topics in Architectural science we can call it the concept of "Place and Meaning". For me, I understood this crucial concept when I was studying in Hokkaido University in Japan.

However, I faced some difficulties in choosing the topic of my doctoral dissertation, I felt an importance of linking it to my study with Mongolian architecture and urban planning.

It was obvious to do my research regarding to Mongolia is not good enough only studying on it, but I realized that it is necessary to do a comparative study as well as with its external environment and also with all the factors of other countries in the regional level.

I had strong influence for that and it was the efforts of my Professors of my University and they were my coworkers in this study. They explained it as I said the concept of Place and Meaning, taking an example of Sapporo city which is the biggest city in the north region of Japan. In the north of Japan such as Hokkaido and its architecture and planning were used directly from architecture of

Southern region (imported architecture), which is completely different in its climate and geographical location. They said that we should create an architectural concept that should be sound in its place and thought at international regional level.

Study on Nordic architecture and urban planning was certainly the topic of my PhD work and I my survey with my teacher in Nordic countries. Main purpose of my research was to study what is the Place, and differences between them and their "meaning".

Northern Nature : Northern light, Northern mood

In general we can divide roughly our world into two regions such as cold region "the Northern" and warm region "the Southern". Specific features of dwelling styles and their nature and climate of the northern regions are described clearly in the book named 「Night lands」 of Norwegian architectural critic Norberg Schulz. I am noticing here, we can find many similar things to Mongolia as well as climate, nature and its mood in this book, which tells about Scandinavian countries.

둘째로, ‘북부의 분위기’는 중요한 의미 중의 하나이다. 남부지역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거대한 인구와 높은 인구밀도에 비하면 북부의 인구밀도는 낮으며 광활한 대지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자아낸다. 스톡홀름에서 조사할 때 시청 직원은 “그래서 많은 남쪽 나라의 사람들이 편히 쉬고 즐기기 위해서 북유럽에 오며, 북유럽이 주는 색 다른 분위기의 느낌을 받는다.”고 말했다. 북유럽의 자연을 말하자면



〈그림 1〉 춥고 거친 기후로 북유럽에서는 항상 따뜻한 계절에 집을 짓는다.
(17세기, 스웨덴)

이 지역의 여러 나라가 유사한 식물군을 가지고 있다. 거칠고 가혹한 기후에서 생존하는 강인한 식물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한 번 물리적 으로 훼손되면 복구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연약한 자연이라고 볼 수도 있다. 북부지역의 사계절은 매우 현격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여름과 겨울의 생활양식도 매우 다르다. 대부분의

북부지역에서 사람들은 추운 계절에는 실내에서 지내고, 따뜻한 계절에는 실외에서 특히 자연에서 시간을 보낸다. 북유럽의 창조성과 건설기술의 근원을 따뜻한 남쪽 지역과 비교해 보면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북부 국가에서는 보통 춥고 거친 기후 때문에 사람들이 따뜻한 계절에만 매우 서둘러서 건물을 짓는다. 따라서 남부지역에 비해 북부 건물의 장식물이나 꾸밈이 훨씬 거칠고 간소하다. (그림1 참조)

도시 그리드와 그 기원 | Tun, 북부의 생활양식

거칠고 가혹한 기후에서 사는 사람의 거주 유형의 기원은 Tun이라는 단어의 개념에 있다. 노르웨이어로 ‘tun’은 영어의 ‘town’, 독일어의 ‘Zaun’과 어원을 같이 하며 그리드는 개간지를 만들 때 주변의 자연에서 한계를 짓는 장소를 의미한다. ‘tun’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구성된다고 조사되었으며 노르웨이에서는 보통 3가지가 발견 되었다 : 클러스터, 열(row) 그리고 약간 닫힌 사각형이다. 이것은 북유럽 국가에서 명확하게 볼 수 있다. 여기서 기후가 추울수록 사람들은 좀 더 보호된 미기후를 위해서 더 ‘닫힌’ 공간을 만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노르웨이 비평가인 Jerry Holan에 의하면 (모든 노르웨이 농장의 중심은 tun이며, 이 옥외의 ‘방’ 주위에 가장 중요한 농장 건물이 배치된다. Tun은 만남의 장소로서 인생의 가장 경사스러운 결혼, 생일, 장례와 특별한 날의 행사가 이 곳에서 거행된다.) 이런 형태(gestalt)의 프로토타입은 가장 중요한 형태의 기원으로 도시 그리드에 큰 영

“Northern light” is the one of the main issue that is used in Nordic countries architecture. We know about it specially Alvar Aalto’s architecture and how he was designed and dealt with its very unique of light.

These countries must be very cold but somehow comparatively humid and warmer than other cold regions such as Eurasian continent because of big influence of “Gulf stream” and also solar duration is much shorter. Contrary Mongolia with its continental climate has 250 sunny days a year. It means northern light in this region has another quality. But many similarities in the light are in all these northern countries has the same atmospheric light especially in winter time. Martin Heidegger once said about it, “They leave to the sun and the moon their journey, to the stars their courses to the seasons their inclemency; they do not turn night into day nor day into a harassed unrest”.

Secondly, “Northern mood” is one of the important meanings. In particular in the North where population density is low and with a huge land creates comparatively calm and peaceful mood in comparison with Southern Region countries which has generally a big population and

high density. When I did a hearing survey from a staff of City hall of Stockholm, she told me, …therefore many people from the southern countries come to relax and enjoy in northern Europe and get a different feeling of mood that created by Nordic.

Regarding the Nordic nature, floral structures in this region are very similar to each other. It can be called as tolerant plant with capability to live in harsh and severe climate in one side, from the other side it is fragile nature that requires very long time to be restored if once it had gets a physical damage.

Northern region has four seasons with big contrast, which creates very different of summer and winter lifestyles. Most places in Northern Region the people to spend most of their time “indoor” during cold season, and in the warm season more “outdoor” life or to spend their time mostly in the nature.

If we compare the origin of Nordic creativity and building technology with the Southern warm climates country has a basic difference. Usually in Northern countries the people build a building with a very hurry only in warm season because of cold and harsh climate. Thus the

향을 주었다. 도시 형태(도시 그리드)로서 이 tun은 많은 변화와 경향을 역사적 단계별로 보여주고 있으며 아래에 그에 관한 설명이 있다.



그림 2

몽골은 북유럽 국가와는 확연히 다른 사회와 문화를 갖고 있지만 최초의 도시를 계획함에 있어서 도시 그리드의 근원인 'tun'을 고찰하고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다. 또한 바우하우스의 영향을 많이 받은 옛 소련의 도시계획이 몽골의 거주 유형과 도시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도시의 경향

북유럽(노르딕) 국가(러시아와 중국 북부를 포함하여)는 산업혁명 이래로 도시의 역사에서 다양한 경향을 경험하였다. 몽골은 그 배경에 있어서 매우 다른 사회제도를 가지고 있지만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와 비슷한 경향을 일부 경험하였다. 필자의 북유럽 국가 연구의 주요 부분의 하나는 이들 국가의 경향을 분류하여 3개의 주요 단계로 나누고 도시계획의 원칙(표3 참조)에 따라 이들을 세분하는 것이다. 주요 3단계는 다음과 같다.

1. Classicism/Nordic Classicism (고전주의/북유럽 고전주의)
2. Functionalism/Modernism (기능주의/모더니즘)
3. Renaissance of Urbanism (도시화의 르네상스)

(표3)에서는 연대의 구분 없이 모든 경향을 분석하였다. 왜냐하면 북부 국가에서는 각기 다른 시기에 이런 경향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표에서 보여주는 이런 경향은 장기간에 걸쳐서 막대한 영향을 주었으며 몽골의 도시 역사에 대규모의 도시 시설 뿐 만 아니라 기능주의를 보여주고 있다. 몽골의 기능주의적 개발 시기에 평등주의와 기능적 지역제(zoning)라는 강력한 개념이 존재하여 50년대에서 70년대 사

ornament and decoration of building in the North comparing to the south is much roughly and poor (see Image 1). Also we can say these qualities of creation have some similarities to Mongolian nomadic lifestyle and their creativity.

Urban grid and its origin : Tun, Northern lifestyle

The origin of settlement type of the people, who live in the harsh and severe climate comes from the concept of the word of Tun. This Norwegian term "tun" demonstrates this: it is cognate with english "town" and the German "Zaun." Hence the grid is a delimited place in the natural surroundings, in its way a clearing. I should say in other survey a "tun" may be organized in several manners, three of which are commonly found in Norway: the cluster, the row, and the more or less closed rectangle. This is exactly what occurs in Nordic countries.

Here we can understand as the climate gets much colder, the people use more "closed" space with a more protected microclimate (see Image 2)

By Jerry Holan a Norwegian critic (The center of eve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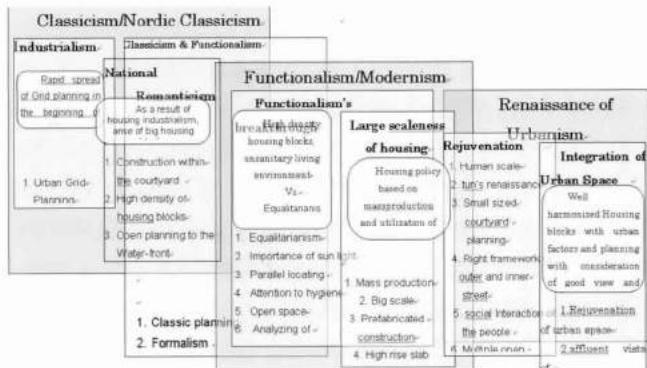
Norwegian farm was the tun, the outdoor "room" around which the most important farm buildings were arranged. The tun was a meeting place for life's most auspicious events: marriages, births, deaths, and special days were all celebrated here.)

This prototype of gestalt (form) is most important form of origin which has a big influence to the urban grid. This tun like urban forms (urban grid) had many changes and tendencies during every historical stage. I would explain regarding to this below.

However even developing the first city with its planning in Mongolia which has fairly different from Nordic countries by its society and culture, but there were some considerations and influences of "Tun" based urban grid. Also, former Soviet Union's urban planning which has a big influence of Bauhaus has played much important role in settlement typology and urbanization in Mongolia.

Urban tendencies

Nordic countries (also including Russia and Northern China) had been experienced various tendencies of urban



마지막 단계인 'Renaissance of Urbanism'이 적절하게 발전하지 못해서 생기는 것이다.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계획 및 관련 분야 전문가의 부족
2. 사회주의에서 시장경제로의 전환에 따른 경제 위기
3. 사회주의 기반에서 시장경제 기반으로 도시개발이 전환되는데 따른 물질적 정신적 장애

제3항에 대해서는 좀 더 상세한 설명을 할 것이며 이것 또한 도시 그리드에 대한 연구의 일부이다. (표3)에서 여러 도시의 중심지를 비교해 보면 이 도시들의 그리드 스케일이 얼마나 다른지 분석해 볼 수 있다. 비교를 위하여 설정된 이 도시들은 비슷한 규모의 인구를 가지고



(그림 4)

이에 주거단지는 일조와 통풍의 중요성에 따라 주로 평행 배치로 건설되었다. 반면에 북유럽에서 이런 방식의 개발(기능주의)은 1930년대에서 1950년대 사이에 이루어졌다.

1980년대부터 몽골에서는 주거시설의 부족으로 옛 소련과 동유럽에서 소개된 주거의 대량생산 개념이 도입되었다. 이 시기에 조립식 건설과 고층 슬라브 건물이 널리 전파되었다. 이런 슬라브 건물 주변의 넓은 오픈 스페이스는 비인간적 스케일의 단지를 만들어냈다. 불행히도 최근 몽골 도시개발의 큰 문제는 상기한 경향의 3번째 단계(또는

history since industrial revolution. Even in Mongolia some tendencies are similar to them after the World War II however the country has very different social systems background.

One of main parts of my research of Nordic countries is to divide the tendencies developing in these countries into three main stages and subdivided them in details by urban planning principles (see Chart 3). These three main stages are:

1. Classicism/Nordic Classicism
2. Functionalism/Modernism
3. Renaissance of Urbanism

In the chart 3, I had analyzed all tendencies without any time lines. Because these tendencies had occurred in different time in each country of Northern.

〈Chart 3〉

Within these tendencies shown in a chart above is most strong influence with long span in Mongolian urban history had the functionalism as well as large scaleness of urban facilities (see Image 4).

During functionalistic development in Mongolia there was a strong concept of equalitarianism and functional zoning. Around 50's to 70's housing blocks prefer much importance of sun light and air, generally buildings were parallel located. Simultaneously in the Nordic this type of development (Functionalism) was around 1930's to 50's. In Mongolia from 1980's the concept of mass production of housing introduced by former Soviet Union and Eastern Europe because of housing shortage. In this period had the expansion of prefabricated construction and high rise slab buildings. With these slab buildings arose big open spaces surrounding with those buildings so called non human scaled blocks.

Nowadays, unfortunately one big problem in urban development in Mongolia is the third or the last stage of the above tendencies "Renaissance of Urbanism" has not developing properly. Some of the main reasons are: (instability)

1. Shortage of urban planning and other related professionals
2. Economic crisis in result of transferring from socialist to the market socie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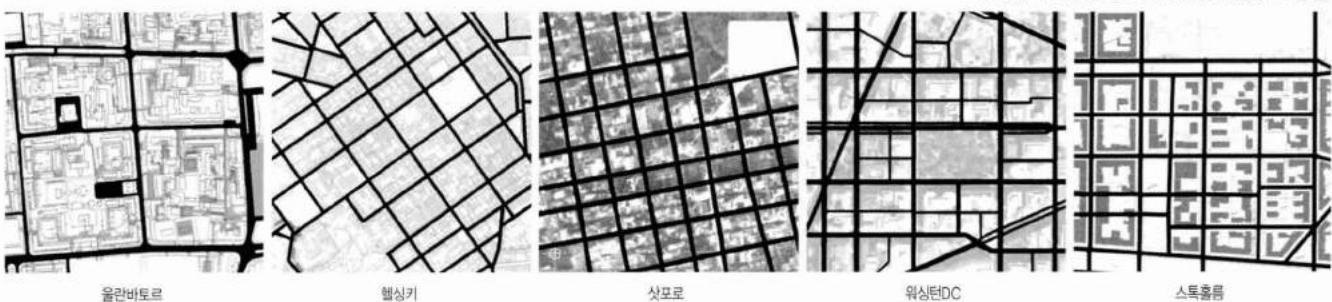
있으며 필자가 조사한 북부지역의 국가에 속해 있다.

위의 그림에서 보듯이 울란바토르의 도시 그리드는 매우 커서(수퍼 그리드) 사회주의 시절에 계획된 도시라고 말 할 수 있다. 울란바토르의 첫 번째 마스터플랜이 1952년에 선포된 이후에 도시 중심부의 건설로 인하여 밀도가 증가하여 매우 낮았던 도시교통과 도로 시스템이 개선되었으나 오늘날에는 불충분한 교통체계와 너무 큰 도시 그리드로 인하여 매일 교통 체증을 겪고 있다. 이와는 상반되게 시장경제의 도시들은 도시 그리드가 비교적 작고 도로율이 높다. (표5 참조) 몇몇 프로젝트에서 울란바토르 내부의 그리드와 블럭을 다시 나누어 인간적 스케일에 맞게 재계획 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이런 딜레마가 몽골의 큰 도시에서 나타나고 있다.

지역 계획

몽골에 적합한 도시 개발을 위하여 국가경제개발계획과 지역개발시스템 같은 중요 요소를 과학적으로 접근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최근의 지역개발 구상을 보면 기본적인 최근 조사의 부족으로 몽골의 지역을 지리적인 위치에만 의존하여 수직적으로 5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였다. 이것은 지나치게 기하학적인 분석에 의한 것으로 시장과 연계된 개발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몽골의 환경을 북유럽 국가의 지역개발이나 인프라와 비교해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북유럽 국가의 북부는 주요 시장의 중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며 가혹한 기후 때문에 인구밀도와 인프라와 도시 정착이 낮은 상태이다. 따라서 이런 국가의 지역계획의 주요 개념은 외국 경제개발과 시장 중심지에 집중하는 것이다.

육지로 둘러싸인 국가인 몽골은 단 2개 국가와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3. Difficulties in transferring of urban development (both physical and mental) from socialist-based to market economy based

I would like to explain little bit more in detail on third factor of above mentioned. This is part of my research on urban grid. In the Chart 3, shown as a comparison of several cities urban center and analyzed how these cities urban grids scale is differs. These cities chosen for the compare are almost the same scale population and as well as Northern region countries which I had surveyed.

〈Image 5〉 Every image is shows exact in the same scale and area is 800m by 800m.

As shown in chart above Ulaanbaatar (UB) cities urban grid is very big (super grid) and one can say this planning had made during socialist period. Since first master-plan of UB city had declared in 1952 city very few urban transportation and road systems upgrade while building constructions did its much higher density in the city centers. Today we are facing with big traffic congestions

everyday because of inefficient commuting network and urban grid with too big scale. Contrary in market based cities urban grids are comparatively small and urban corridors area is relatively high (see Chart 5).

In some urban projects are proposing that the inner city of UB must be regrid (reblocking) those urban blocks and should be replanned on human scale. This kind of dilemma also faces in big towns of Mongolia.

Regional plann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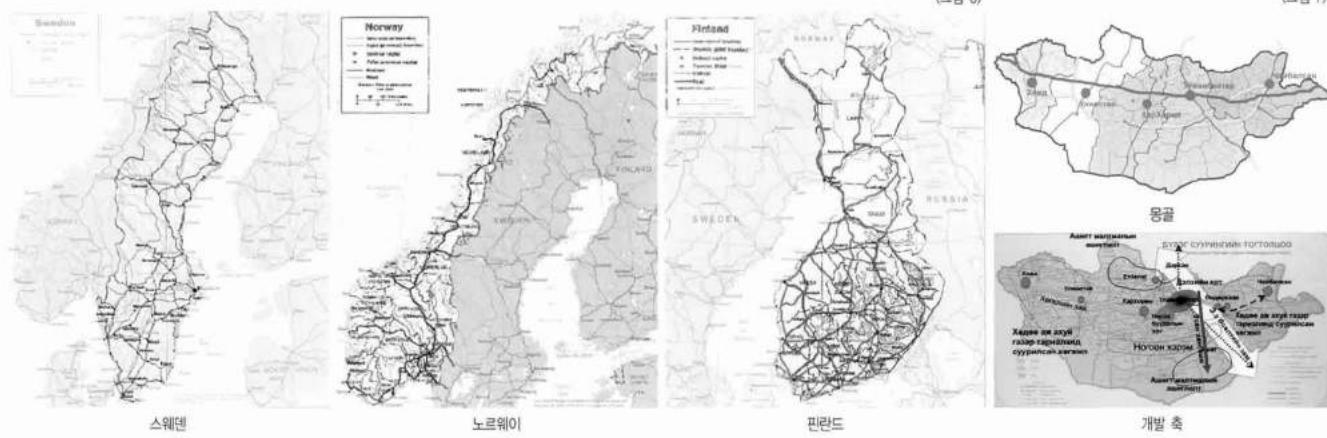
Main factor to develop urbanization in Mongolia properly, we should plan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and appropriate regional development system with scientific approaches.

According to the up-to-date regional development concept, there are lack of the latest basic surveys are conducted and territory of Mongolia has been divided into 5 regions vertically by its geographical location. Therefore it is not appropriate for development circumstance of market relations because of too much

바다에 접해 있지 않아서 지역계획에 다소간 어려움이 있다. 2002년에 선포된 최근의 계획은 전 국토를 5개 지역과 8개 지역중심으로(각 지역에 2개 지역중심) 나누어 동등하게 개발 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몽골의 지역계획 개념의 주된 쟁점은 시장경제 국가처럼 시장 중심의 접근성과 인프라의 집중을 통해 과정중화를 야기한다는 것 또는 모든 지역을 평등하게 개발한다는 것 등이다. 이 계획은 분석 자료가 부실하고(최근의 많은 주제와 정보가 변경되었거나 국가지역경제개

발을 위하여 간신 중이다) 새로운 계획 방법이나 기법이 부족하다고 비판하는 전문가도 있다.

따라서 이런 국가개발의 주요 쟁점을 해소하려면 새로운 연구와 개발 개념이 필요하고 또한 최신 계획 방법이 개발되어 기존의 도시 및 지역계획 정책과 적절하게 연계되어야 한다. 몽골 도시개발학회는 이런 어려운 쟁점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추어 활동의 목표를 설정하였다.



geometrical analyze (see Image 7).

We are comparing regional development or infrastructural location of Nordic countries with the circumstances of Mongolia. In general Northern part (some countries have lap lands) of the country of most Nordic countries are located far from main market locations, many of them has low density of population, infrastructure and urban settlement because of harsh climate. Therefore these countries regional plans main concept is concentration to the main market place and foreign economic development.

〈Image 6〉

As landlocked country Mongolia is bordering with only two countries no access to the sea facing with some difficulties for Regional planning. Current planning which had declared in 2002 has a concept for developing whole country in equally by 5 regions and its 8 pillar centers (each region has 2 pillar centers).

Main issues of Mongolian regional development concept

are the issues to create agglomeration counted (concentration of the infrastructure and accessible to the market) on the market like the other market countries or to develop total territory impartially.

Some experts criticizing on this planning because of this plan missing some data for analyzing (recently many topics and information's are changing rapidly and updating for national regional and economic development) and lack of new planning methodology and techniques.

〈Image 7〉

Therefore to solve this main issue of national development needs to be a new research and concept of development, also new planning method should be developed and linked with traditional urban and regional planning policy properly. Our MUDI (Mongolian Urban Development Institute) set up the goal to work by focusing on and giving much importance to this crucial issue.

2007한국건축문화대상 계획건축물부문 일본건축탐방을 다녀와서

2007 KAA Unbuilt Works Prizewinners Report on Japan Architecture



조원용 / 정회원, 다이아몬드건축사사무소(주)
by Cho, Won-yong, KIRA

약력

- 다이아몬드건축사사무소(주)
- 대한건축사협회 프레스센터 편집국장
- 안산1대학 겸임교수

돌아보면 2007년은 참 여러 가지 뜻 깊은 일들이 많았다. 그 중 한국건축문화대상은 소중한 기억을 간직하게 해줄 것이다. 한국건축문화대상 계획부문 심사는 총 3차에 걸쳐 진행되었다. 오랜 시간 준비해온 학생들의 멋진 결과물들을 프리젠테이션과 인터뷰를 통해 깊이 이해하려는 맘으로 보다 보니 필자의 학창 시절이 생각나 어린 후배들이 대견하고 기특하기까지 했다. 어쩔 수 없이 순위가 정해지기는 했지만 참여한 모든 학생들의 수고와 노력에 다시 한 번 진심어린 격려의 말씀을 전하는 바이다.

12명의 수상자들과 함께하는 2박 3일간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모든 것이 알차게 준비된 것임은 일정표를 통해 알 수 있었다. 게다가 특이하게도 부산에서 후쿠오카로 비행기가 아닌 코비라는 고속정을 타고 가는 경험도 하게 되었는데, 부산인근에 사시는 분들께는 좋은 교통편이 되겠구나 싶었지만 두 번 다시 그 경험은 안하고 싶은 맘이 들 정도니 속 울렁거림이 글을 읽는 독자에게까지 전해질지 모르겠다. 여행에 대한 세세한 기록은



개별시티앞에서 단체사진

참여한 학생의 기행문을 통해 알 수 있을 것으로 느껴져 일정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줄이되 학생들과 ‘함께’ 여행을 하며 느낀 소감 위주로 서술할 참이다.



1. 고쿠라성 2. 알도로시의 일팔라포호텔 스케치
3. 아크로스 후쿠오카 내부침장 4. 하카타 소학교 교장선생님의 학교안내 5. 하카타 소학교 내부교실 및 홈베이스

원래는 한국건축문화대상 심사위원장이신 부산건축사회 정태복 회장께서 인솔자가 되셔야 했는데, 사정상 못가시게 되어 차례를 따라 다른 위원에게 양보가 되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모든 심사위원들이 참여하시기 어려운 입장이 된지라 가장 막내격인 필자가 인솔자가 되어 학생들과 동행하게 된 것이다. 물론 필자도 업무상 여러 사정이 있었지만, 앞으로 우리의 후배가 될 예비건축사인 그 학생들과 함께 자리를 하고 싶은 맘이 들었기에 제안이 왔을 때 기꺼이 참여의사를 전했다.

단 2박 3일의 짧은 일정 속에서 무엇을 얼마나 봤겠는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의외로 상당한 일정을 소화했었고, 또 그 사이에 보너스로 ‘관계’를 얻을 수 있었다. 필자가 학교에서도 학생들에게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인데, 이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배양하는 방법으로 강력 추천하는 것이 바로 ‘여행’이다. 여행을 통해 ‘사람’과 ‘삶’을 이해하는 것이 삶을 담는 그릇인 ‘건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람’과

‘삶’을 이해하려면 ‘커뮤니케이션’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행’은 ‘건축’을 이해하는데 있어 아주 중요한 방법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번 여행에 참여한 우리 학생들도 처음엔 좀 서먹했지만, 하루 여행과 한 밤중까지 함께 지새며 대화의 시간을 가진 후엔 서로가 서로를 경쟁자가 아닌 우리나라 건축의 미래를 함께 짚어지고 나아가야 할 ‘동역자’ 임을 인식하였다. 따라서 서로를 존중하고 커뮤니케이션하는데 상당한 노력을 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는 바이다. 심지어 몇몇은 현지의 일본인들과 영어로 의사소통하기가 거의 불가능하였기에 그들과 바디랭기지(Body Language)를 해가며 소통을 하느라 수고를 하기도 하였다. 하루 종일 파김치가 되도록 걸으며 대가들의 작품과 교감하려는 젊은 에너지들은 그들이 알게 모르게 지식과 경험을 넓혀가고 있었고, 서로 대화하고 부대끼며 조금씩 건축가로써 자라고 있었다. 준비해온 자료를 꼼꼼히 살피거나 평소 책에서 보았던 대가들의 건축작품을 온몸으로 체험하며 감격을 느끼는 그들을 보며 현실적인 조언도 아끼지 않았지만, 꿈을 가지고 자라는 그들이 오히려



1. 아크로스후쿠오카의 외부 계단형 조경
2. 고쿠라성의 해자에 빙치는 건물이 리버워크의 전경
3. 리버워크 측면에서 경사면을 통해 바라보는 고쿠라성. 산구의 조화를 강조했다.

필자에겐 한 줄기 시원한 희망이 되었다.

가끔씩 가족을 데리고 면 여행을 할라치면 아내는 함께 가기 싫어 하는 내색이 역력했다. 건축사들과 함께하는 여행은 재미없기 일쑤고, 왜 그렇게 피곤하게 많이 걸어 다니느냐는 것이 그 이유다. 사실 인정할 수밖에 없다. 건축사 또는 건축인들의 여행은 일반인들의 그 것과는 목적부터 다르지 않는가? 이번 여행을 하며 가족에게 들었던 반응이 우리 학생들에게선 전혀 나타나지 않음을 볼 때 아하, 이들도 영락없는 '건축쟁이'들이구나 함을 느끼며 슬며시 미소가 지어졌다.

삼일 낮 이를 밤을 함께 하는 동안 우리 학생들과 많은 대화를 나눴

다. 아니 그들이 필자로 하여금 참 많은 이야기를 하게끔 묻고 또 궁금해 했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것이다. 앞으로 15년 또는 20년 후면 이 '될성부른' 후배들이 우리 건축계의 기둥이 되어 있을 것이다. 이들과 같은 하늘 아래 함께 '건축'을 하는 선배임이 자랑스럽게 생각되어질 날이 반드시 올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번 여행을 기획하고 준비해준 대한건축사협회에 감사드리고, 또한 온갖 궂은 일을 도맡아 하며 만반의 준비에 최선을 다해준 대한건축사협회 김보선 팀장과 김기석 대리에게도 이 지면을 통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는 바이다. ■

2007한국건축문화대상 계획건축물부문 일본건축탐방을 다녀와서

2007 KAA Unbuilt Works Prizewinners Report on Japan Architecture



정희석 / 아주대학교 건축학과
by Jeong, Hui-seok

약력

- 제12회 경기도건축문화상 특별상
- 제1회 대학(원)생 도시설계대전 은상
- 2007 한국건축문화대상 계획건축물부문 우수상 수상

2007년 12월 5일… 겨울햇살은 우리들의 여행을 반기기라도 하듯 따스하게 부산국제여객터미널을 내비주고 있었다. 한국건축문화대상이라는 뜻 깊은 기회에 생각지도 못한 수상에 더불어 이렇게 내 마음을 설레게 하는 일본 건축기행까지 함께할 수 있어서 참 복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사랑스러운 후배들을 데리고 학기의 막바지에 학교를 벗어나 잠시나마 여정의 길에 오른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들떠 있었고 낯선 이국으로의 여행에 대한 자기들만의 봉상에 젖어있었다.

새벽기차의 피로감도 잊고 시작된 여행의 시작은 어색한 첫 만남으로 시작되었다. 언제나 처음은 다 그렇듯 서먹함과 긴장감이 주위를 감쌌지만 공통된 관심사로 인한 2007한국건축문화대상 계획건축부문 수상자 팀들은 어느새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처럼 자연스럽게 이번여행의 시작과 함께 동화되어갔다. 약 세 시간의 바다여행은 나에게 좀 색다른 인상을 심어주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지만 스치며 지나가는 수평선들은 내 눈을



캐널시티 하카타_ 우리의 첫 목적지인 캐널시티 하카타 초입에서 지원이와 함께 여행의 시작을 기념하며…

맑게 해주었고 오랜만에 어린아이 같은 동심의 세계를 가지게 해주었다…

그리고 도착한 하카타 항…



1



2

1. 캐널시티와 자연의 조화 우연히 뒤풀어 본 시야에 잡힌 캐널시티와 그 사이를 따고 흘러들어오는 맑은 겨울하늘

2. 아크로스 후쿠오카 옥상에서 옥상에서 내려다본 후쿠오카의 전경은 매우 아름다웠다. 특히 넓은 도심 속 건물들이 고도체한에 의해 높이가 일정한 후쿠오카의 스카이라인이 인상적이었다.

하선을 하고 수속을 받고 입국을 한 후 비로소 이곳이 내가 3일 동안 나의 흔적을 남겨야하는 일본이라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다. 항을 나온 우리는 짧은 시간이나마 후쿠오카의 맑고 높은 겨울하늘과 상쾌한 바람 한 모금을 마시고 오랜 시간 기다린 듯 앞으로 우리를 힘겹게 안내해 줄 버스를 타고 본격적인 후쿠오카건축기행의 첫 발을 내디뎠다. 하지만 금강산도 식후경이란 말이 있는 역사나 우리 친절한 가이드님은 맛있는 고기 한 점의 맛을 느끼게 해주셨다. 일본인이 소식(小食)을 한다고 하지만 그만큼 맛은 일품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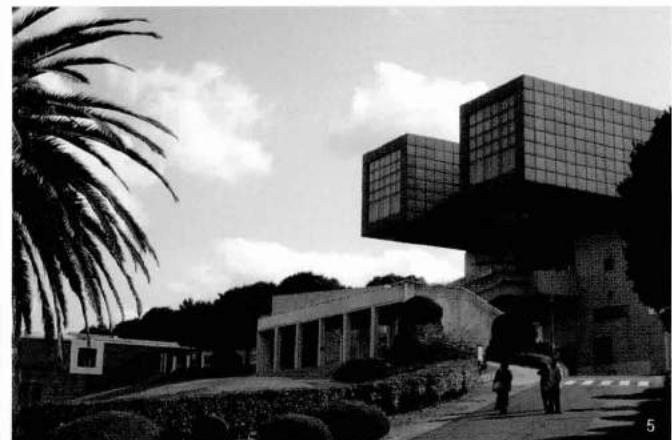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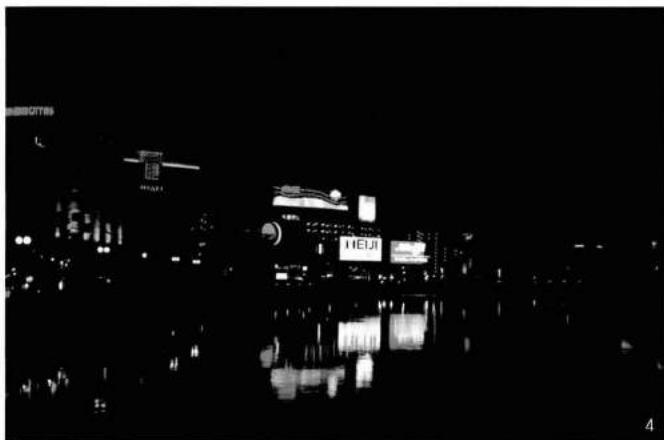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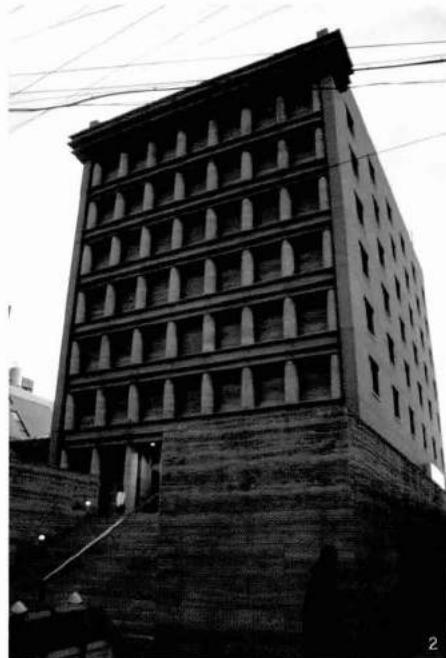
두둑이 배를 채우고 난 후 향한 곳은 책에서만 열심히 보고 말로만 듣던 캐널시티였다. 솔직히 처음 입구에 들어설 때는 약간의 실망감을 가졌다. 사진으로 봐왔던 그런 공간들의 느낌보다 강렬함이 떨어졌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잠시 몇 발자국을 옮긴 후 나의 이런 공간적 갈증은 단숨에 해소되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충격이

랄까? 캐널시티 중심에서 있는 내가 바로 이곳의 중심 같다는 느낌이 잠시 들 정도였다. 좀 더 이곳을 누비고 다니고 싶었지만 시간관계상 살짝 맛만 보고 다음 장소로 이동을 하기로 했다. 어차피 이곳은 3일간 묵을 우리 호텔과 같은 건물이니까 … 밤새 한번 돌아다녀보기로 하고 다음 일정인 아크로스로 향했다.

아크로스 후쿠오카, 친환경 건축물인 동시에 건물 그 자체적으로 도심공간의 녹지공간으로 그 위용을 드러내고 있었다. 친절한 현지 가이드의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실제로 건물의 모습을 하나하나 뜯어보니 정말 일본의 건축문화가 새삼 대단하다고 느껴졌다. 과연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모습을 한 건물이 존재할 수 있을까. 물론 학교에서 가까운 수원 영통 빌리지 역시 비슷한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 그 규모면에서는 따라 올수가 없었다. 특히 내부 공간 아트리움에서 느껴지는 그 햇살은 정말 인상적이었다. 또한 옥상부에서 내려다보이는 후쿠오카시의 풍경은 아직도 생생하게 뇌리에 남아있다. 외부계단을 통해 좀 더 디테일한 모습을 확인하고 전면 광장에 도착한 우리는 아크로스를 배경으로 단체사진을 찍고 이리저리 서로의 모습들을 사진에 담으며 시간을 보냈다.

어느덧 해는 뉘엿뉘엿 오늘의 일정을 마감하라고 알려주며 우리는 버스에 몸을 실고 마지막 일정인 일 팔라조 호텔로 향했다. 일 팔라조 호텔을 처음 마주했을 때 참 따스한 건물이라고 느껴졌다. 알도로시의 작품으로 고전적 입면의 형상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형상을 보여주고 있었다. 특히나 로비에 들어섰을 때 건물외관에서의 느낌을 로비에서도 그대로 느낄 수 있었는데 정적이면서도 아늑한 그리고 포근함마저 느껴지는 로비공간은 소파에 앉은 나에게 더할 수 없는 평온함을 가져다주었다. 건물주변의 사잇공간과 이어지는 브리지는 유럽에서 느낄 수 있는 이국적인 향기를 물씬 풍기게 해주었고 역시나 우리들은 어두운 골목길에서 흔들리는 초점을 힘겹게 맞춰가며 카메라와의 씨름을 하고 있었다. 건축사는 사람의 마음을 읽어야 한다는 말이 맞듯 어느 누구도 말하지 않았는데 결국 한곳에 다 모여서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니 이것이 진정한 공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일 팔라조 호텔의 기단부와 오더, 그리고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철골 보의 조화를 뒤로하고 우리는 숙소로 향했다.

그랜드 하얏트 호텔, 캐널시티와 함께 있는 호텔에 들어서자 처음 들었던 생각은 대한건축사협회에 감사하다는 것이었다. 학생의 신분으로 언제 이런데서 체크인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지만 우리는 우선 감사의 마음을 잠시 뒤로한 채 여장을 풀고 우리들만의 시간을 갖기 위한 준비를 했다. 서울, 수원, 공주 그리고 부산. 각 기 다른 지역에서 모인 우리들은 조원용 건축사님과 김보선, 김기석 선생님들과 함께 건축학도로서 진지한 토론과 좋은 말씀을 들으며 앞으로의 진로와 삶의 길에 대한 철학적인 말씀을 들으며 시간가는 줄 모르게 심취하며 누가 건축학도 아니랄까 다들 열정을 갖은 눈빛으로 한마디씩 귀담아 들으며 하루의 일정을 마감하려 했으나 3일간의 짧은 일정에 눈을 감을 수가 없었다. 우리들은 캐널시티를 마치 놀이터인 마냥 신나게 돌아다녔고(내부는 마감시간에 의해 외부만 둘러보았다) 후쿠오카에서 꼭 먹어야 한다는 라면을 먹기 위해 낮에 가이드 형님이 언급하신 노란간판이 달린 라면집을 찾아 눈도 즐겁고 입도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다.



1. 캐널시티 야경. 속으로 향하는 길에 이름 모를 다리위에서 아름다운 야경에 도취되어…
2. 일 팔리조 호텔 외부전경. 고전적 입면을 보는 듯한 호텔의 입면은 미국적인 향기를 물씬 풍기고 있었지만 폐쇄적인 입면 속에 숨겨져 있는 내부공간의 아늑함은 절 달랬다.
3. 고쿠라 성. 아사카 신사의 입구에서 웅장하게 자태를 뽐내는 고쿠라성을 담아봤다.
4. 캐널시티 크리스마스와 연말 분위기를 물씬 풍기는 조형물들과 조명이 환상적인 조화에 우리들은 밤이 늦은 줄 모르고 캐널시티의 모든 것에 취해버렸다.
5. 기타큐슈 시립 미술관 전경. 외부만금이나 내부도 인상적인 시립미술관의 전경.

12월 6일. 다음날 아침 새벽녘까지 이어진 우리의 일정이 조금 무리가 있었는지 다들 피곤한 모습으로 아침식사를 마치고 다시 버스에 올랐다. 오늘은 이동시간이 조금 있었기에 가이드께서 좀 더 열성적으로 우리들에게 많은 얘기를 들려 주셨고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말씀도 해주셨다. 역시 외국에 나오면 다 애국자가 된다는 말이 맞듯 독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후쿠오카 시내 한복판에서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큰소리를 지르고 나니 속이 다 시원했다. 버스 안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어느새 오늘의 첫 일정지인 리버워크에 도착해 있었다.

버스에서 내려 조금 걸어 내려가니 눈에 처음 띠는 건 고쿠라 성이었다. 일본의 고성이 그렇듯 웅장함과 그 세련미는 참 인상적이다. 화려하면서도 수려한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한번 들려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우선 우리의 목표는 리버워크였다. (가는 길에 야사카 신사도 스쳐지나갔지만….) 리버워크. 저드는 참 복 받은 사람인 것 같

았다. 그리고 대단한 건축사인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건물의 첫 인상은 거대한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아기자기하게 블록처럼 잘 짜 맞춰 놨다는 생각이 들었다. 입면도 그렇고 색감역시 활기차지 않을 수 없게끔 설계를 맷깔스럽게 해놨다는 미천한 한 건축학도의 느낌이었다. 캐널시티와 비슷한 공간구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차이점은 내·외부공간의 경계를 허물어뜨리는 공간적 연결성에 그 차이점을 두고 싶었다. 현지 가이드의 설명대로 자연과 하나가 되기 위한 건물 컨셉으로 건너편 다리에서 바라본 리버워크의 모습은 나름대로의 의미가 모두 부여되어있었다. 특히 고쿠라성의 시각적 차단을 피하기 위한 파사드의 사면처리는 저드의 세심한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온 옥상정원에서 리버워크의 배려를 한껏 느끼고, 고쿠라성의 위용을 다시 한 번 바라보며 주위 풍경을 카메라에 담고 내려왔다. 그런데 다들 어디로 갔는지… 새삼 느끼는 거지만 건축



1. 넥서스 월드. 넥서스 월드에 도착하자마자 처음으로 마주 친 마크 맥의 건물.

2. 스티븐 훌 건물 복도에서. 건물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고 우리들의 질문에 친절하게 답변해주신 아주머니와 함께... 감사합니다.

3. 스티븐 훌의 건물 3층 입면 일부. 운 좋게 건물 내부에 들어간 설레임을 아직도 잊을 수 없었다. 건물사이의 수공간이 인상적이었지만 그보다도 입면에서 보이는 내부공간의 난해함을 속제로 넘기고 돌아와야 했다.

학도들은 건물에 발을 들여놓으면 순식간에 어디로든 사라지니 가끔 혼자만의 생각으로 웃음을 짓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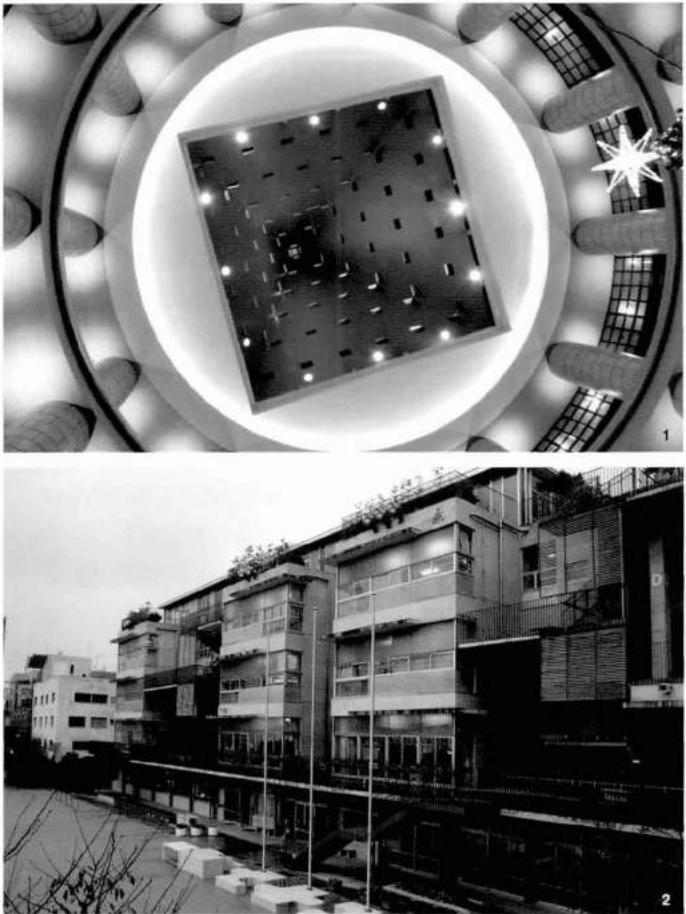
리버워크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다음으로 간곳은 기타큐슈 시립미술관이었다. 이소자키 아라타가 설계한 이 미술관은 미술관이라기보다는 기타큐슈의 전망대이자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접해온 많은 미술관들과 차이가 많았다. 특히 본관도 인상적이었지만 별관으로 이어지는 길과 별관초입에 있는 로마의 양식을 본뜬 듯 한 수공간은 천창채광을 통해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하지만 오더들로 둘러싸인 수공간도 좋았지만 역시 이 미술관의 백미는 간간히 나있는 창을 통해 내다본 기타큐슈와 시립미술관의 조망이 아닌가 싶다. 어떻게 보면 이소자키 아라타는 사람들의 눈을 통해 바라본 모든 모습이 예술작품이라고 생각한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곳 시립미술관에서의 나의 시야는 상쾌했다.

뷰 파인더를 열심히 들여다보니 어느새 이곳을 뒤로 남길 시간이 다가왔다. 다시 버스에 오른 우리는 출출한 배를 채우기 위해 400년 된 우동 집에 들려 우동그릇의 크기에 한번 놀라고 그 맛에 또 한 번 놀라며 세상을 다가진 마냥 다시 다음 코스인 넥서스월드로 향했다.

넥서스월드, 건축학도의 길에 들어서며 참 많이도 보고 들어왔던 곳이다. 하지만 부끄럽게도 마크 맥의 건물 앞에 주차를 해놓고 내릴 때

까지 차창 밖의 건물이 그 건물인지 깨닫지 못했다. 굳이 변명을 하자면 이것이 바로 책속의 이미지만을 상상해서 그런 것이라 본다. 그래서 우리들은 여행을 자주하고 건축물을 책속의 이미지가 아닌 내 두 눈으로 기록해야만 한다. 이렇게 자신만의 위로를 마치고 우리들은 넥서스 월드를 둘러보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아서 약간을 씨년스럽긴 했지만 평일에 계다가 아직 퇴근시간도 아니니 그렇겠지 하고 열심히 돌아다녔다. 건물들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자꾸 내부로 들어가고 싶은 충동이 느껴졌지만 역시나 우리나라 주상복합과 같은 철통같은 시스템으로 입구 유리창을 통한 내부의 엘리베이터 실을 보는 것으로 만족해야했다. 하지만 다행이도 우리들에게 천운이 내린 건지 스티븐 훌의 건물에서 반갑게 맞아주시며 문을 열어주시는 아주머니~비록 집안은 보여주시지 않았지만 스티븐 훌의 건물에 들어서 주시게 해주시며 친절히 안내까지 해주셨다. 이런 복이 있나하며 들뜬 마음에 여기저기 카메라를 들추며 모습을 담기에 바빴고 일층부터 4층 까지 순식간에 스쳐지나갔다. 특히 방에서 보이는 오픈코트의 수면과 거기서 부는 바람소리, 흔들리는 햇빛반사, 소규모의 녹지공간은 일상 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드라마틱한 주거공간이라고 생각됐다.

렘 쿨하스의 건물은 보수중이라서 몹시 안타까웠고 크리스티앙 포 잠박, 오스카 투스케, 오사무 이시야마 등의 세계적인 건축사들의 건



1. 하얏트리젠시 호텔 로비상부_40미터 높이의 천정에 이루어진 기하학적 조형미는 사진으로는 느낄 수 없었던 두한한 공간감을 가져다주었다.
2. 하카타 소학교 전경_학교같지 않은 학교. 하지만 너무나 이상적인 학교의 모습에 감탄사만 내뱉고만 하카타 소학교.

물들을 보고, 느끼고, 만지며 그 공간을 함께 공유했다는 것이 가슴을 벅차게 했다. 여기저기 둘러보고 나서 버스에 올라타기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있었기에 우리는 마크 맥 건물의 상가부에 위치한 조그마한 커피숍에서 차 한 잔의 여유를 느낀 후 다음을 기약하며 하얏트리젠시 호텔로 향하였다.

마이클 그레이브스가 설계한 하얏트 리젠시 호텔을 들어서자마자 40미터가 넘는 높이를 가진 메인 홀을 잊을 수가 없었다. 대수롭지 않게 올려다본 천정은 정말 인상적이었다. 드럼을 둘러싼 기둥들과 그 안의 또 다른 원 그리고 사각형, 그리고 피라미드의 삼각형과 그 안에 놓인 창. 이러한 기하학적 도형들의 집합으로 이루어진 천정은 그 아름다움을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또한 중앙계단코어의 조형미와 그 위의 까마득한 아트리움은 해질녘 찾은 우리를 아쉬움에 젖게 만들었다. 과연 계단실로 떨어지는 햇빛은 아마마 햇살의 폭포수와 같은 시원한 느낌일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오늘의 일정을 되짚기 위해 카메라를 열심히 들여다본 나는 참 어리석다는 생각이 순간 들었다. 언제나 여행에서 느끼는 것이지만 사진을 찍는데만 열중인 내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일본, 일초라도 그 공간 속에서 좀 더 느끼고 생각을 하며 있어야 하는데 말이다. 아직도 같길이 멀었나 보다.

숙소로 돌아온 우리는 별써 마지막 밤을 보내야한다는 생각에 다들 아쉬움에 쌓여있었다. 그래서 우리 조원용 건축사님을 필두로 밤마실(?)을 다녀왔다. 비록 싸늘한 바람이 부는 밤거리였지만 사람사는 재미를 쏠쏠히 느낄 수가 있었다. 그리고 우리들만의 시간을 가지고 서로의 관심사, 학교, 연애 등등 시간가는 줄 모르게 수다를 즐기다 잠자리에 들었다.

마지막 날 아침. 역시나 어젯밤 수다의 영향으로 탈이 났다. 다들 늦잠과 더불어 통통 부은 얼굴들로 아침식사를 하는 둉 마는 둉하고 하카타 소학교로 출발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운치 있게 비까지 살짝 내려주셨다. 솔직히 개인적으로 소학교에 과연 무엇이 있길래 하는 의구심이 들었지만 그것은 짧막한 나의 지식에서 나온 우둔함이었다.

하카타 소학교는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우리나라 초등학교와는 전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 “역시 선진교육은 이래서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했다. 개방화된 교실, 넓은 운동장과 실내 체육관 그리고 학교 내 모든 실들은 하나같이 수준급의 시설을 가지고 있었고 특히 어디서나 자연과 친숙해 질 수 있는 녹화된 포켓공간들이 너무 좋았다. 필자도 여기서 공부했으면 하는 생각이 절로 들 정도로 우리는 견학 내내 입을 다물지 못했다. 건축적 미도 더해져 전혀 학교 같지 않은 최상의 학교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밖에도 뭐 할 말이 무수히 많지만 글로 표현하지 못하는 내 자신이 답답할 뿐이다.

이상으로 우리는 공식적인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다. 시간관계상 후쿠오카은행 본점은 달리는 차안에서 보아야 하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이를 뒤로한 채 점심식사를 간단히 한 후 다시 하카타 항으로 향했다.

출발하는 설렘보다는 떠나는 아쉬움이 역시나 크다. 하지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출발한다는 생각으로 배에 승선 했다. 돌아오는 배편에서 이번 일본건축기행이 필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가져다줄 것인가 속으로 생각을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지며 우리는 안전하게 부산항에 두발을 내딛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어느새 정이 들어버린 우리들은 마지막으로 조원용 건축사님의 말씀을 깊게 새겨듣고 다시 각자의 길로 돌아섰다. 하루만 더 같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굵뚝같았지만 다들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서로에게 손을 흔들어주며 이번여행의 마지막 여운을 남겼다. 착하고 귀여운 동생들과 듬직한 형님과의 헤어짐 속에 또 다른 만남을 기약하며 우리들도 다시 우리의 보금자리로 돌아왔다.

2박3일 정말 짧은 여행이었지만 그 기간 동안보고 배우고 느끼고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과 부딪혀가며 서로의 인연을 쌓아가기엔 충분한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이번의 아쉬움은 다음에 충만 시킬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앞으로도 건축이라는 관심사 하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 이상의 무엇인가가 또 연결시켜 주리라 믿는다.

마지막으로 부족한 우리들에게 이번 건축기행을 계획해 주신 모든 대한건축사협회 관계자님들과 끝까지 신경 써 주시고 친자식들처럼 보살펴주신 조원용, 김보선, 김기석 선생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하시고 다음에 또 뵐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상웅형님, 정선, 성산, 수영, 수희, 신화, 희진, 구인, 기인, 지원 그리고 막내 채윤까지 한국건축문화대상이라는 이름하에 모인 우리들이 꿈을 이루는 그날까지 서로 의지하며, 앞으로 인연의 끈을 놓지 않고 서로 최선을 다하는 인생을 보여줄 것이라 믿습니다. ■

설계경기 | Competition

녹동신항연안여객터미널 신축공사

Nok-dong Ferry Terminal

당선작 / 이순미 정희원 + 정명환 정희원
(건축사사무소 미가온 + 디에이건축사사무소)

대지위치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봉암리 3907번지

지역지구 준공업지역, 항만시설보호구역

주 용 도 종합여객시설

대지면적 8,489.79m²

건축면적 2,122.68m²

연 면 적 2,417.98m²

건 폐 율 25.00%

용 적 률 28.48%

구 조 철골조, 철근콘크리트 조

규 모 지상 2층

외장마감 컬러스텐레스파널, 라임스톤, 합성목재,
THK24컬러복층유리

설계담당 김종국

Eco + Culture + Community =
Eco-Culture Community
complex

계획의 목적인 해상관광 및 여객선 이용객에게 쾌적하고 편안함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 종합 친수 공간, 주변 환경에 어울리는 상징성, 조형성 및 예술성을 갖춘 공간을 계획했다. 친환경, 에너지 절약형 공간을 창조하기 위하여 우리는 계획에 앞서 Eco, Culture, Community라는 키워드를 새롭게 정의하는 과정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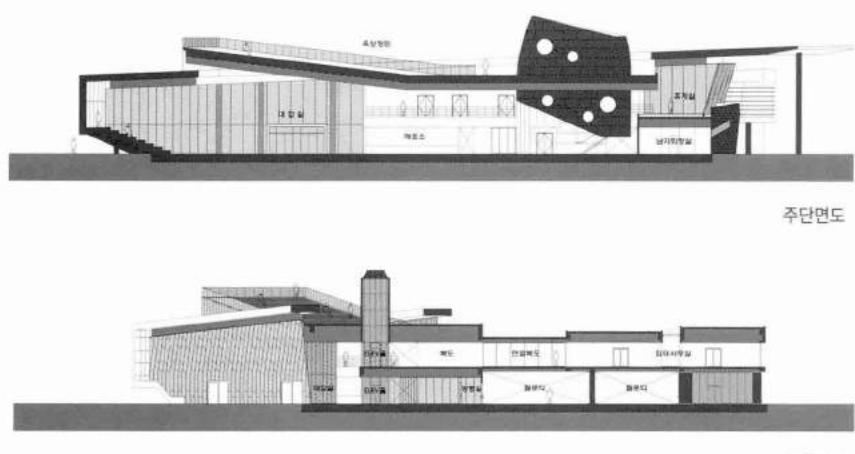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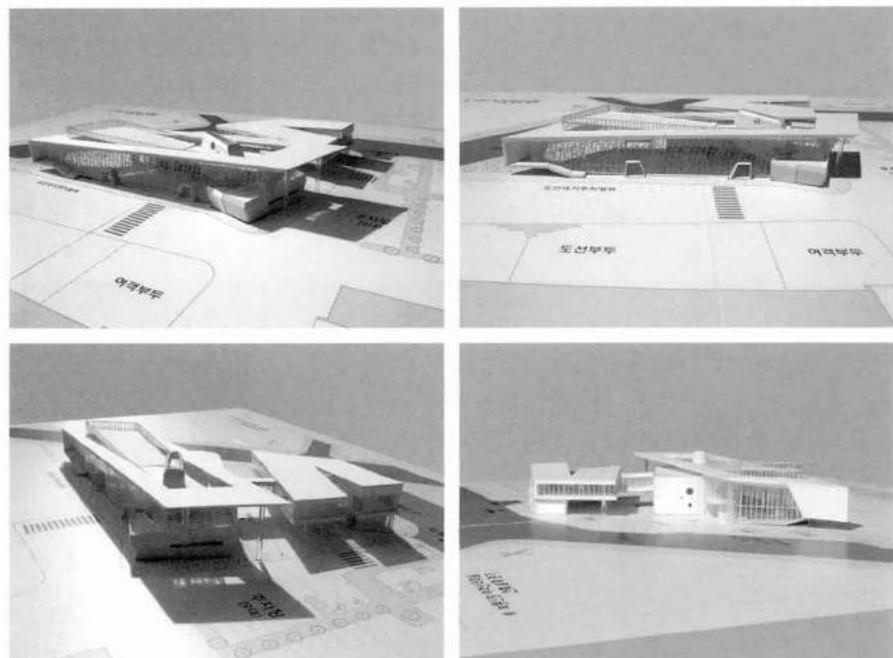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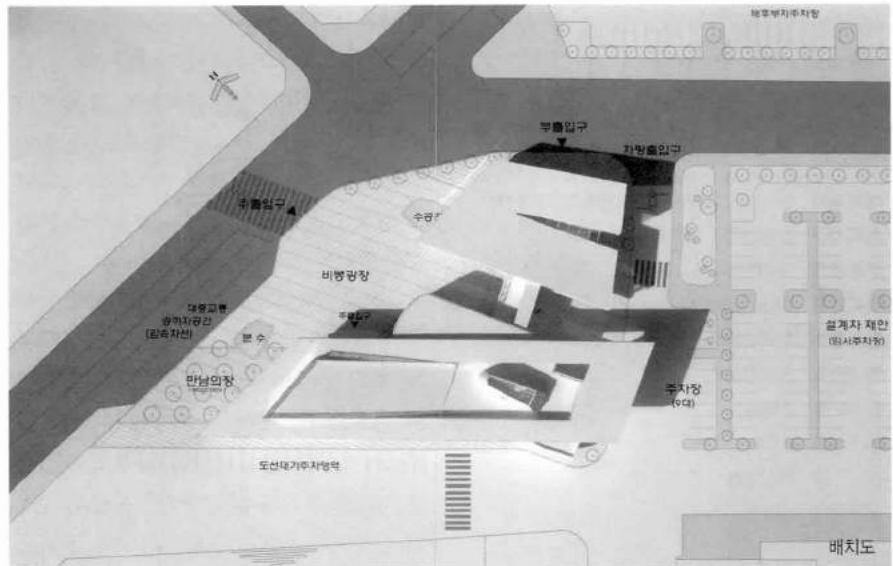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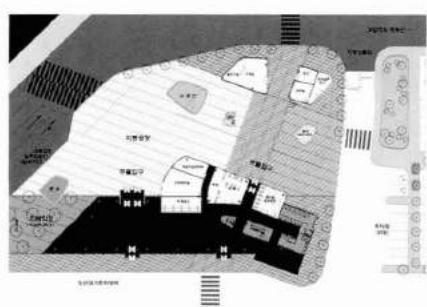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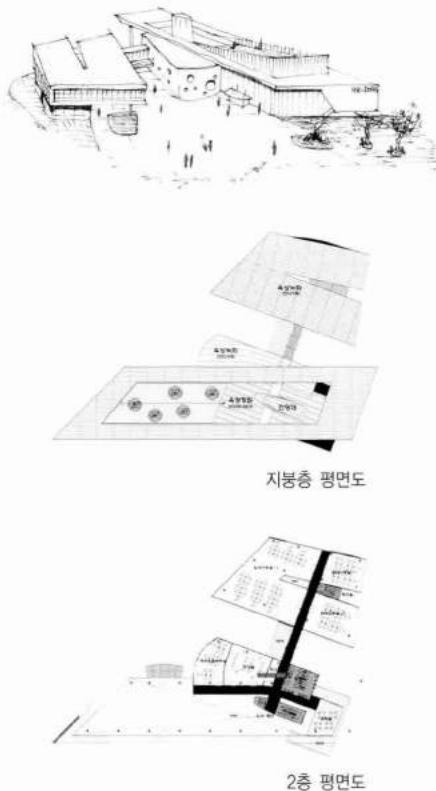
Eco(친환경)를 통해서는 '사람은 자연이고 자연은 사람을 기운다'는 자연주의, 인본주의를 건축물에 유입시켰으며, Culture(문화)라는 키워드로 인해서는 비워진 공간과 행위, 행위가 문화가 되는 공간에 지역인 Landmark 및 정체성을 부여하는 작업, 지역문화를 수용하는 공간으로 재창조가 가능하게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마련하였다. Community(소통)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자연과 사람, 사람과 사람의 소통을 위한 섬과 육지가 연결되는 Blue, Network, Hub city를 형성하였다. 배치에 있어서는 주변환경을 고려한 채움과 비움의 관계를 설정하여 주출입구 – 비봉광장 – 임시 주차장으로 이어지는 Open Space의 Line을 계획하였으며, 특히 비봉광장에서 사람을 안전하게 품는 형태의 포용의 개념을 넣었으며, 대합실동과 임대동의 분리,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의 분리를 통하여 부지 맥락에 다양한 프로그램과 장차 건축물의 활용에 있어서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내부 공간은 Eco – Culture Space가 형성될 수 있도록 생태 문화공간, 휴게와 소공연장을 마련하는 등 주변환경을 적극 유입하는 공간들을 구성하였으며, 일반 시민들과 호흡하는 건물의 성격을 고려, 다양한 전 이공간과 응용공간들을 계획하였다. 평상시 섬을 이용하는 대다수의 노인들을 위하여 부지내 단차이를 없애는 등 여러 편의시설을 계획하였다. 내 외부공간의 관계성을 고려한 단위실의 비율과 채



움, 높음과 낮음의 조화를 꾀하였으며, 독립된 대합실동의 대공간 계획으로 개방감을 부여하였고 바다를 자유로이 관망 할 수 있게 하였다. 더불어 실의 기능을 고려한 열림과 닫힘의 조화를 통하여 외부공간의 연속성을 내부로 이어질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하였다.

여객터미널 기능의 효율성 증대 및 유지관리를 고려한 수직성 공간구성을 통해 관련 실의 유기적인 연계를 이루도록 하였다. 내외부를 연결하는 공간에는 Eco-Plat 개념을 도입, Lawnhill 잔디언덕과 육상 잔디녹화의 우수한 단열성능을 접목하는 등의 시도를 하였다.(글:이순미)



녹동신항연안여객터미널 신축공사 Nok-dong Ferry Terminal

우수작 / 정기호 정희원
(가산 건축사사무소)

대지위치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봉암리 3907번지

지역지구 준공업지역, 항만시설보호구역

주요용도 종합여객시설

대지면적 34,431.20m²

건축면적 1,578.63m²

연 면 적 2,674.33m²

건 폐 율 4.58%

용 적 률 7.77%

규 모 지상 2층

설계담당 임효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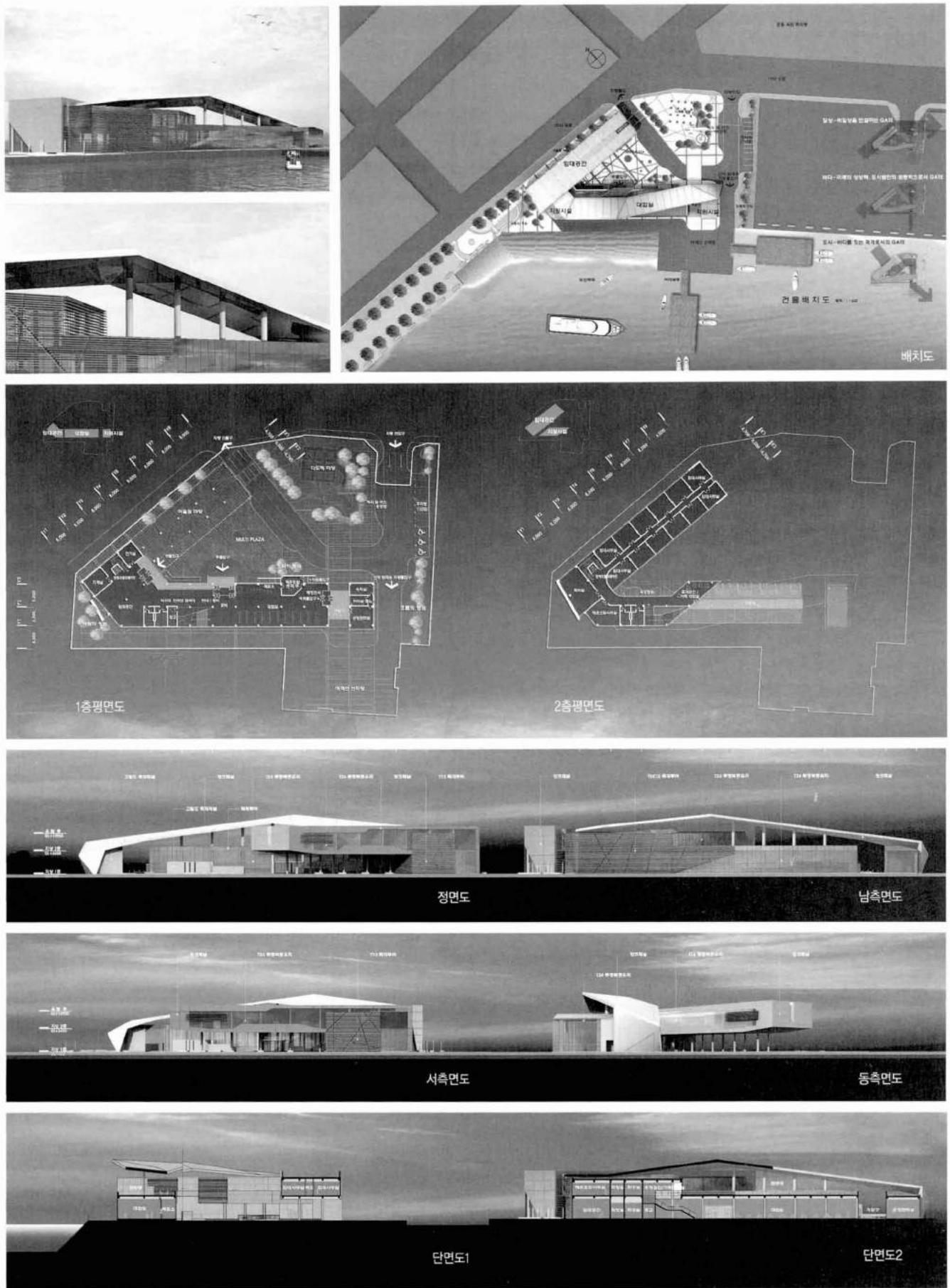
천혜의 해양자원과 해양관련 국가산업시설을 보유한 전남 여수에서 해양을 주제로 하는 세계 인정박람회를 개최하는 것을 계기로, 그 주변 개최도시와 주변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과 궤를 같이하여 이지역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한다.

'터미널'은 언제나 떠남과 돌아온의 교차점에 위치해 있고, 일상과 비일상이 교차하는, 혹은 낯선 미지를 동경해 마지않는 이들로 둘씩거리는 곳이다. 여기서 우리는 '문(Gate)'의 의미를 발견한다. 낯선 집에 도착한 이들은 그 집의 문을 열기를 망설이지만, 그 망설임의 뒤에는 호기심이 가득 자리잡고 있다. 또한 익숙한 문고리를 잡는 이들에게는 그 문 뒤에 새로운 오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준다. 녹동항은 '바다'라는 미래를 향하는 문이다. 이 문을 열면 대양이 열리고 미래가 열릴 것이다. 이 문을 열기 위해 오는 이들 중에는 일상의 새로움을 바라는 무수

한 이들이 있을 것이고, 미지를 동경하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새로 계획된 녹동항은 도심의 일상을 연결하고, 미래의 바다를 열어가는 문이 될 것이다.

여기서 건축은 시작된다.





설계경기 | Competition

안양대학교 동아리실 및 복합강의동 Complex Building of Anyang University

당선작 / 박하전 정희원
(주)건테크 건축사사무소

| | |
|-------|---------------------------------------|
| 대지위치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안양대학교 내 |
| 지역지구 |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제1종전용주거지역 |
| 주요용도 | 교육연구시설 |
| 대지면적 | 49,587m ² |
| 건축면적 | 1,365.55m ² |
| 연 면 적 | 8,303.71m ² |
| 건 폐 율 | 2.75% |
| 용 적 률 | 6.86% |
|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
| 규 모 | 지하 5층, 지상 4층 |
| 외부마감 | 송판무늬노출콘크리트, 징크패널 친환경합성목재루버, 칼라복층유리 |
| 설계담당 | 임성민, 조준원, 진범성, 이승재, 황현로, 허정후, 박대균 |

계획개념의 구상

적절한 구도와 비례 균형미를 갖춘 몬드리안 그림에서부터 출발하여 Mass나 면을 4면으로 분할시키고 적절한 비례와 균형미로 분절, 연계시켜 짜임새있고 구성진 기능성과 조형성을 발휘코자 하였다.

광, 통풍, 환기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였으며 전면에 주출입구 부출입구, 후면에 부출입구를 두어 동선의 연계와 분리가 되도록 계획하였다. 옥외시설로는 전면에 주차장을 두고 기준시설과의 연계를 위한 광장 및 녹지를 조성하였다.

평면계획

중앙홀로 바로 접입하면 전면에 넓고 탁트인 옥외데크를 통하여 밝고 시원하게 열린시야가 펼쳐진다. 여기에 접근성을 고려하여 전면과 후면에 사무실을 두었으며, 주출입구 우측에 타원형의 학생홀 및 전시장, 부출입구에는 휴게코너를 두어 공간 활용성을 높였다. 기준층의 전면에는 교수연구실 Zone 후면에는 강의실 Zone으로 계획하였고, 학생홀 상층부인 학생마당은 상층부가 덮혀있어 또다른 Event장으로 활용되

계획안의 주안점

첫째, 기존시설물과 같은 창의성 부여
둘째, 기존시설과 자연스럽게 분리, 연
속되는 연계성 부여. 셋째, 주어진 지
형과 여건에 조화, 적용시킨 순응성 부
여. 넷째, 필요시설의 적정위치나 역할
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기능성 부여

배치계획

대지의 전후면에 전용실을 두고 중앙
부에 Core와 Open된 중정을 두어 채



리라 기대된다. 옥상에는 전면에 옥상마당을 두어 Community장소로서 활용토록 하였으며, 후면에는 동적공간인 농구장을 두었다. 지하에는 외기와 접하는 옥외데크, 휴게코너, 선큰마당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개방감을 주고 행정시설, 학생자치시설, 동아리실 등을 두었다.

입면계획

대지의 특성상 정면부, 배면부 모두다 정면성을 확보해야 했다. 정면은 Frame에 의한 역동성과 경쾌성, 그리고 사면과 곡면에 의한 조형성을 연출코자 하였으며, 배면은 Scale이 다른 Mass와 재료간의 적절한 분절과 결합에 의한 구성미를 표출코자 하였다.

단면계획

성격이 다른 각시설들을 강의실, 행정실, 학생자치 및 동아리실로 구분하여 층별 Grouping /Zoning화 하였다.

2층 중앙의 중정마당은 4층까지 오픈된 외부공간이며 지상 1층부터 지하 4층까지 이르는 중정은 내부아트리움공간으로서 환경적 특성이 다르다. 건물의 옥외중정과 옥내중정내의 각종 복도에서 바라본 중정분위기는 다양하고 풍요로운 공간체험이 이루어지리라 기대된다.

또한 Dry Area계획에 있어서도 상단부와 하단부로 양분함으로써 토암을 감소시키고 채광, 환기여건이 더욱 양호하도록 계획하였다.



설계품질 향상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3)

Innovative Paradigm for Quality Improvement of Architectural Design

국내 건축설계분야는 건설산업의 성장과 함께 양적인 팽창을 하였으나 질적인 문제에 있어서의 국제적인 경쟁력은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왜곡된 발주 시스템은 능력있는 건축사의 시장참여를 원칙적으로 차단하고 있으며, 아직도 많은 설계도서가 하청을 통해 생산되고 있고, 각 분야 간의 느슨한 협업시스템으로 인해 검토되지 않은 설계도서들이 현장에서 설계도면간의 불일치나 비기능적, 비경제적인 설계를 초래함으로서 결과적으로 건설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시공업체 중심으로 고착화 되어있는 국내 건설산업의 특성도 설계나 엔지니어링업계의 발전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국가 건설정책의 초점은 시공분야에 맞추어져 있고, 창조성을 바탕으로 한 고부가가치 산업인 설계나 엔지니어링 분야는 상대적으로 위축되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건설산업의 구도가 지속될 경우, 중국에는 설계나 엔지니어링업체가 시공업체에 종속되어 우리나라 설계분야의 전문화 및 설계 경쟁력은 상실되고 말 것이다.*) 대한건축사협회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2006년 '건축 설계업 발전 종합방안 연구'를 추진하기도 하였다.

필자는 국내 건설·건축산업에 대한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안하기 보다는 건축설계분야의 문제점 즉, 설계경쟁력 약화, 느슨한 협업시스템 그리고 이에 따른 건축설계품질의 저하를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고자 한다.

필자 : 전한종, 현 한양대학교 건축대학 건축학부 부교수

by Jun, Han-jong

전한종 교수는 한양대 학사와 석사 졸업 후, 호주 시드니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한양대학교 건축대학 건축학부 교수로 재직중이다.



- BRC(BIM Research Center) 자문교수
- 한국교육시설학회 이사
-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 이사
- Virtual Construction 3.4세부 연구과제심사위원
- 설계 지침개발에 관한 연구 공동연구 교수

1. 설계품질 향상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2. BIM을 적용한 국외 사례

3. BIM을 적용한 국내 사례

4. BIM기반 통합설계프로세스의 국내적용 방안

5. BIM 적용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방안

※)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2006.4) 건축설계업 발전 종합 방안 연구. 대한건축사협회

BIM Design Cases in the Country

3.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BIM) 국내사례

서론

국내에서 BIM 적용 사례는 2006년부터 대형건설사 중심의 파일럿 프로젝트를 통해 수행되기 시작했다. 건설사는 공기단축과 비용절감을 위한 방안으로 BIM을 실시설계가 완료되어진 상태에서 시공착수 전에 2차원 도면에서 발견하기 어려운 도면오류, 분야 간 간섭체크 등의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이러한 최초의 시도를 통해 비용절감의 효과를 본 수혜자들을 중심으로 BIM의 다른 가능성에 대한 시도들이 현재 활발히 진행되어지고 있다. BIM모델의 특성상 각 부재들의 속성과 관계성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물량산출, 삼차원 공정시뮬레이션, 견적 등에 관한 프로젝트들이 수행중이다. 한편 대형건축사사무소에서는 BIM디자인 도구를 이용하여 이차원도면으로는 수행하기 어려운 작업, 프리 품(free form), 복잡한 지형상황, 외국건축사사무소와의 협업 등에 적용하고 있다.

현재 BIM디자인 도구에 대한 관심이 학계, 산업체에서 증대하면서 그 사용자들이 늘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실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문가의 수는 제한적인 것이 현실이다. 본 글에 소개되어진 사례 중 두 개의 사례는 필자가 직접 확인한 건축사사무소에서 설계의 전 과정을 BIM디자인 도구를 이용한 사례이며, 나머지 하나는 건설사에서 진행한 전형적인 사례를 선정하였다. 본 사례들을 수행한 건축사들은 현재 국내 실정에 적합하게 BIM디자인 도구를 활용하고 있는 주목되는 설계전문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사례1_한국전력 서산지점 사옥설계

한국전력 서산지점은 현상설계의 초기 컨셉디자인부터 설계, 준공, 납품하는 DWG 도면 까지 일련의 작업을 모두 BIM으로 진행한 프로젝트이다. 한달이라는 짧은 현상기간과 한 개층 이상의 대지레벨차이는 설계를 진행하는데 가장 부담스러운 변수를 작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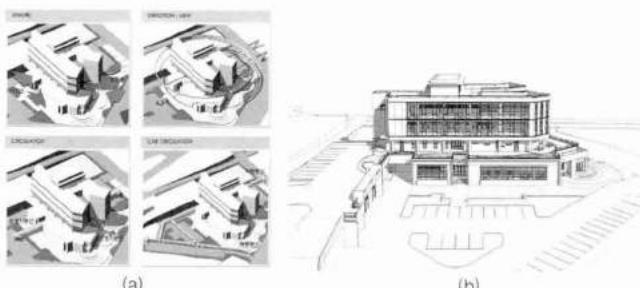


그림 1) 초기디자인단계부터 BIM을 이용하여 단기간 내 소수의 인원으로 완성도 있는 현상설계안을 도출하였다
(a) 매스디자인을 이용한 디자인 스터디, (b) 완성된 현상 설계안

그렇지만 BIM기반 설계프로세스는 시간절감과 불필요한 작업프로세스를 생략함으로써 성공적인 설계안을 도출하였다.

• 현상설계

초기 디자인단계부터 BIM에 의한 설계로 Mass Cooncept에서부터 보고서 삽입용 개념이미지와 설계보고서 전체작업 및 도면출도: 짧은 시간 내에서 소수의 인원으로 현상설계 가능

• 실시설계

- 현상설계 시 구축된 삼차원모델을 갱신하면서 신속한 설계변경을 통해 연속작업이 가능케 하였다.
- BIM을 이용한 손쉬운 삼차원 시각화는 실시설계 시 발주처와의 효율적인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하는 효과를 보여 주었다[그림 2(a), (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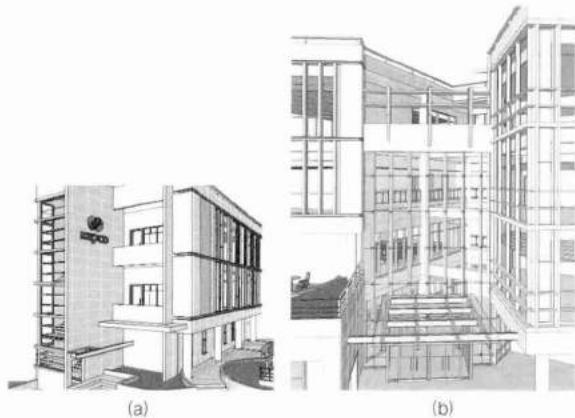


그림 2) BIM모델을 이용한 신속한 건물의 시각화는 클라이언트와의 의사소통을 신속, 정확하게 함으로써 최종안에 대한 실시설계도면 작업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삼차원 시각화의 예 (a), (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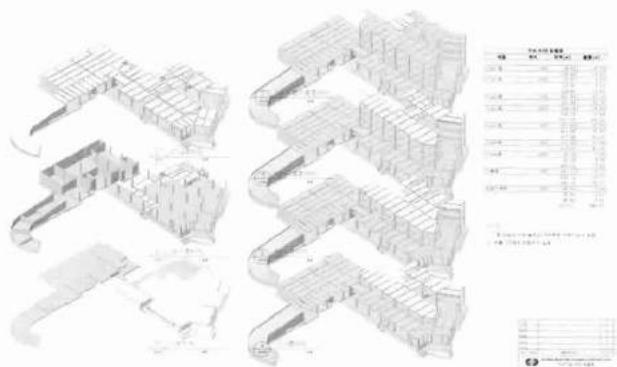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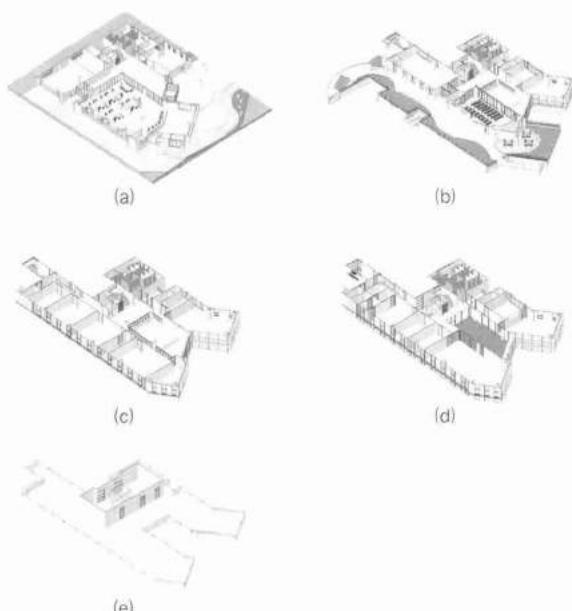


그림 3) 구조모델링을 통한 층별 구조비단 물량 산출: 다른 프로젝트와 물량비교를 가능케 함으로써 실공사비 절감효과를 봄

- 잦은 설계변경에 따른 최종 도면을 납품하는데 있어 BIM을 통한 시각화작업은 최종안을 효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가능케 함으로써 실시설계 작업량을 최소화하였다[그림 2(a), (b)].
- 공사비증가 요인(구조적요소)을 3차원으로 시각화하고 다른 프로젝트와 물량비교와 다양한 해법을 만들어서 실 공사비를 절감시켰다(그림 3).
- BIM으로 인해서 실시설계의 품질과 공사비 조정을 가시화할 수 있었다.

• 시공계획

- 프로젝트 전체를 공사 전에 공정별로 시각화하여 2D와 3D를 동시에 출도하여 기술적 데이터와 시각적 데이터를 동시 비교하여 공사 시 활용하여 시공 오차를 최소화함.
- 공정 프로세스를 가공하여 공사 시작 전 전체 프로세스를 일원화하여 시공공기를 조절 가능케 함.



〈그림 4〉 시공계획에 이용된 건물의 BIM 모델: (a) 지상1층 모델, (b) 지상 2층 모델, (c) 지상 3층 모델, (d) 지상 4층 모델, (e) 옥탑층 모델

사례2_한빛교회

C건축사사무소는 BIM 디자인 도구를 오래전부터 사용하였던 건축사사무소로 2D CAD시스템으로 생산해 내는 도면의 부정확성으로 인한 시간낭비 및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 삼차원 설계도구를 도입하였다. BIM디자인 도구의 도입은 설계프로세스의 변화를 가져왔으며 또한 시간절감과 비용절감, 원활한 의사소통 및 협업체계 구축을 가능하게 하였다. (그림 5)는 이러한 프로세스를 도입하여 완성



〈그림 5〉 한빛교회의 BIM모델

된 한빛교회의 BIM모델이다. 계획설계단계부터 실시설계단계의 설계 전과정 뿐 아니라 시공단계에서도 구축되어진 BIM모델은 엔지니어와의 협업을 위해 효과적으로 사용되어졌다.

• 건축주와의 협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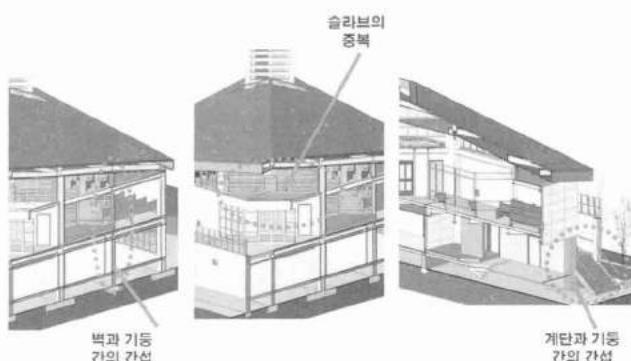
건축사는 계획설계단계에서 구축되어진 BIM모델은 신속한 동영상의 제작을 가능케 함으로써 건축주와의 협의 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그림 6〉 계획설계단계에서 BIM모델을 이용한 동영상: 건축주와의 협의 시 사용

• 타 분야와의 간섭체크

완성되어진 BIM모델의 신속한 삼차원 시각화는 건축과 설비, 건축과 구조와의 간섭체크를 원활히 하여 현장에서 문제가 될 사항들을 미리 예측하고 수정을 가능케 하였다(그림 7,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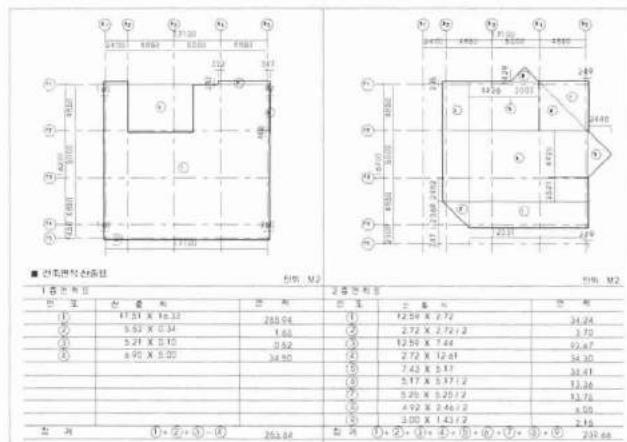
〈그림 7〉 삼차원 시각화를 통한 건축과 구조와의 간섭체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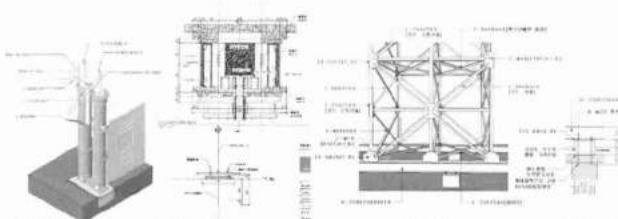
〈그림 8〉 삼차원 시각화를 통한 건축과 설비의 간섭체크

• 정밀한 데이터 및 상세도면 추출

- BIM모델은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해주어 정밀한 면적 산출을 가능하게 하였다(그림 9)
- 완성된 BIM모델을 통해 추출되어진 삼차원 상세도면은 관련분야의 이해도를 높여 작업 시 그 효과를 발휘하였다(그림 10).



〈그림 9〉 BIM 모델은 정밀한 면적 데이터 산출을 가능케 하였다.



〈그림 10〉 BIM모델에서 추출된 삼차원 상세도면: 이해도를 증진시킴

• 시공자와의 협업

과거 이차원 도면에 의존한 엔지니어와의 협업체계는 BIM모델을 이용한 삼차원 환경 협업체계로 전환함으로써 엔지니어가 BIM모델 뷔어의 단순하며 손쉬운 조작으로 원하는 정보를 취득하여 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었다(그림 11).



〈그림 11〉 한빛교회 건축 현황사진

사례3_두산 위브 더 제니스

두산건설 위브 더 제니스¹⁾는 시공도서의 불충분, 불명확으로 인해 공기가 늘어나고, 비용이 증가됨에 따라서 3D CAD의 도입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시공 난이도가 높은 부분의 사전 검증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두산건설에서 진행된 파일럿 프로젝트이다. 본 건물은 지하 7층 지상 54층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로 포디움(지하 7층 지상 3층), Unit, 103동~105동(53층)타워, 지하주차장 램프, 커튼월을 3D로 모델링한 후, BIM모델의 효과를 검증해보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그림 12〉 파일럿 프로젝트의 범위

• 프로젝트 진행 일정

최초 1개월에는 포디움의 구조부재를 모델링하고 구조도면을 작성하였으며, 2개월에는 포디움의 구조도면 작성과 마무리하고 구조 이미지 작성, 마감재를 모델링하고 Unit(타워)의 구조 부재를 모델링하며, 마감

| 구분 | 월 | 4월 | 5월 | 6월 | 비고 |
|--------------|----|---------------------|---|--------------------------------|--------|
| 포디움 | | 구조부재 모델링 구조도면 작성 | 마감재 모델링 구조도면 작성 | 구조도면 작성 마감재 모델링 설치 설정 | |
| UNIT (타워) | | | 구조부재 모델링 마감재 모델링 마감재 작성 설치 설정 설정 | | |
| 보고서 | | | | 설정 | 보고서 작성 |
| 도입인원 | 3인 | 3인 | 3인 | 3인 | |

〈그림 13〉 프로젝트 진행 일정

1) 기술지원부문 설계팀, 대구수성 위브더제니스 3DCAD(BIM) Pilot Project 최종보고서, 두산건설,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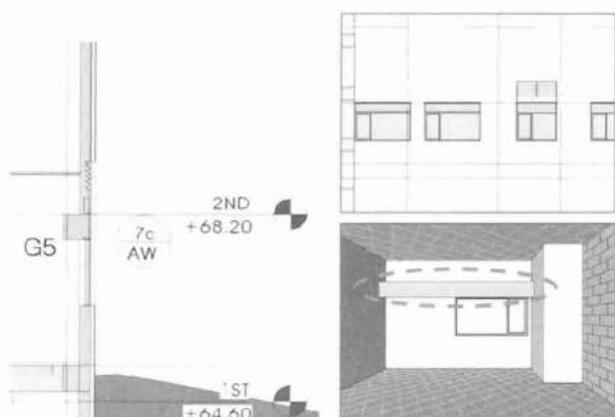
재의 모델링을 시작하였다. 3개월에는 포디움의 건축이미지와 건축도면을 작성하고 물량 산출을 하였다. Unit(타워) 또한 미감재 모델링을 마치고 전기, 기계 모델링을 완성하며, 이미지와 도면 작성 및 물량을 산출하는 동시에 보고서를 작성하고 검토 및 보완을 실시하였다. 3개월 동안 투입 인원은 모두 3인이며 BIM디자인 도구의 이용으로 인해 포디움과 UNIT타워 보고서 등, 여러 가지 업무가 동시에 수행될 수 있었다.

- 본 프로젝트를 통한 BIM적용의 효과를 정밀성, 효율성, 비용절감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① 정밀성

- 실례1 : 창과 보의 간섭체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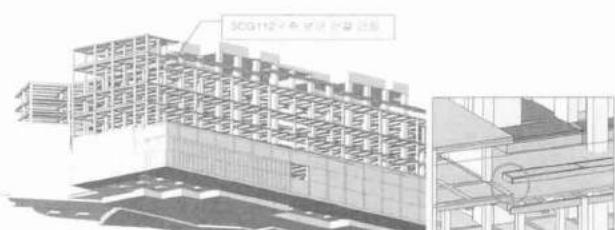
(그림 14)는 창과 보의 간섭체크를 확인한 것으로써 단면에서 나타나는 보의 모습과 입면, 그리고 내부공간에서 보여지는 보와 다른 부분 간의 간섭체크를 실시한 것이다. 이와 같이 BIM모델의 정확한 구축으로 각각에서 오류가 난 부분을 확인하여 신속하게 수정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그림 14〉 창과 보의 간섭체크

- 실례2 : 2D도면에서 확인할 수 없는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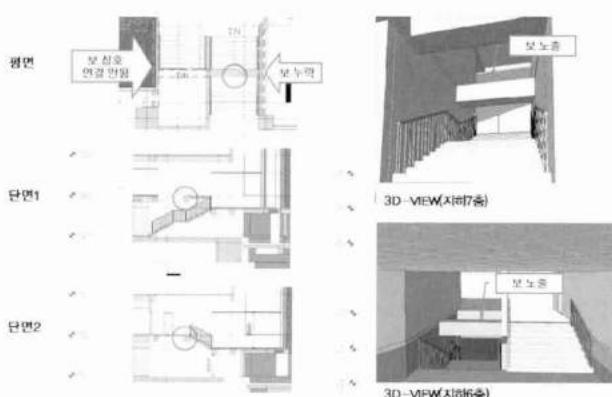
(그림 15)는 2D로 된 도면에서는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으로 보와 바닥의 연결성을 확인해 본 것이다. 이와 같이 2D에서는 확인 불가능한 부분을 BIM모델에서는 확인 가능하여 신속하게 도면오류를 줄이는 것이 가능하다.



〈그림 15〉 2D에서 확인 불가능한 보와 바닥의 연결성

- 실례3 : 계단과 보의 간섭

(그림 16)은 평면과 단면, 3D뷰를 이용하여 계단과 보의 간섭체크를 확인해 본 것이다.



〈그림 16〉 평면과 단면, 3D view를 이용한 계단과 보의 간섭체크

② 효율성(설계품질 향상)

- 실례1 : 외부 장식 커튼월 간섭부위 제안

Unit타워에서 장식 커튼월의 외부 곡면 중심은 수직, 수평의 두 지점이기 때문에 2D CAD로 정확한 도면 작성이 불가능하여, 기존의 2D 도면에서는 평면도와 단면도, 입면도, 창호 일람표 등 모두가 일치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BIM모델의 구축을 통해 간섭체크가 가능하여 디자인 개선이 이루어졌다. 기존 안에서 수직 지지 철골부와 콘크리트 골조의 간섭이 일어나는 현상이 보였고, 보행자 안전사고가 우려되어 디자인 변경을 요하는 부분이었다. 따라서 (그림 17)과 같이 수직 지지 철골의 부재를 변경하여 건물의 디자인을 신속하게 변경 할 수 있었다.



〈그림 17〉 기존안을 검토하여 개선안을 마련한 부분

- 실례2 : 디자인 품질의 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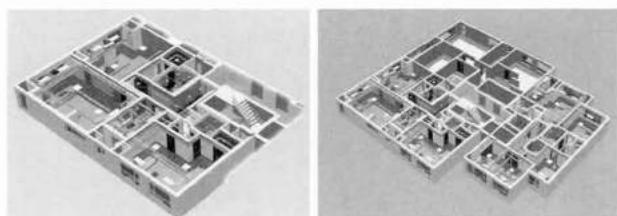
정확한 3D모델의 구축은 반복적인 작업을 상대적으로 감소시켜줌으로써 디자인 품질 향상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그림 18)은 103동~105동의 디자인을 BIM모델로 구축한 것으로, 그 하부 상가부분의 디자인을 시각화 함으로써 더욱 더 완성도 높은 건물을 구축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그림 18〉 103동~105동의 건물 품질 향상

-실례3 : 협업 시 효과적인 3D모델

BIM모델은 협업 시 시각적인 3D자료를 제공해 줌으로써 서로간의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가능하여 분야간 원활한 협업을 가능하게 한다. (그림19)는 105동의 기준층을 기준으로 전기 배선도와 덕트 배선도를 3D로 시각화함으로써 설계자와 시공자 그리고 설비기술자와의 원활한 협업이 가능하였다.



〈그림 19〉 기준층의 유닛 평면 덕트, 전기 배선도: 분야간 협업을 원활하게 해주는 BIM모델

③ 비용절감

-실례1 : 절단된 단면의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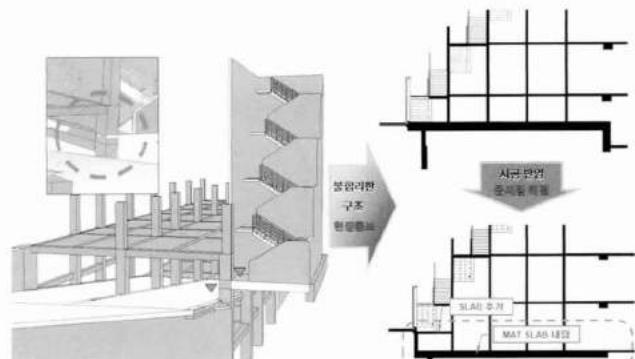
다음의 (그림 20)은 절단된 단면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BIM모델의 구축으로 인해 정확한 구조부분의 상세와 간섭 등의 확인이 가능하여 시공 전 미리 시공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 공기를 단축시킬 수 있었다.



〈그림 20〉 절단된 단면의 3D 뷰 구조

-실례2: 주차장램프 설계오류 공사에 반영

(그림 21)은 주차장 램프의 설계가 불합리한 구조로 되어있음이 BIM모델로 확인되어 현장에 통보하여 시공에 반영한 것이다. 시공되기 전에 슬래브를 추가하고 매트 슬래브를 내려서 설계의 오류를 미리 수정하여 재공사가 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로 인해 비용절감의 효과를 가져왔다.



〈그림 21〉 주차장 램프 설계 오류검토

마무리

소개된 세가지 설계사례를 통해 BIM적용의 장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 사례에서는 소규모 건축사사무소에서 BIM을 사용하여 단기간의 어려운 설계조건에서 현상설계안을 성공적으로 완성할 수 있었으며, 당선 후 건축주와의 협의과정에서 BIM모델은 신속한 피드백 및 정밀한 데이터의 제공으로 전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두 번째 사례에서는 건축주를 설득해야 하는 초기단계에서 초기 BIM모델이 효과적으로 사용됨을 알 수 있었으며, 설계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발전된 BIM모델을 통해 분야 간 간섭체크, 필요한 데이터 추출, 삼차원 상세도면의 추출 그리고 현장의 엔지니어들과의 새로운 협업시스템을 이용한 협업의 가능성을 보여준 구체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세 번째 사례는 BIM적용의 장점을 정밀성, 효율성, 비용절감의 측면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효과를 보았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건설사의 전형적인 사례로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국내에서 정부는 '가상건설 사업단'을 통해 BIM 기반 설계프로세스 및 설계지침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금명간 그 성과가 가시화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와 같이 정부주도의 삼차원 설계에 대한 이러한 국내 정부의 움직임은 국내 건축사사무소와 건설사가 결코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다음 호에서는 BIM기반 설계프로세스의 개념 및 방법을 통해 기존의 설계프로세스와의 차이, 극복해야 할 문제점 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

* 본 원고의 자료를 제공해 주신 '(주)포치건축사사무소: 한국전력 서산지점', '유화건축사사무소: 한빛교회', '두산건설: 위브 더 제니스'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협회소식_kira news

이사회

■ 제12회 이사회

2007년도 제12회 이사회가 구립 18일 오후 2시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부의안건으로 건축단체 통합에 관한 건, 제42회 정기총회 일시 및 장소 결정의 건, 2007년도 세출예산 이월 승인의 건, 2008년도 1~2월 임시예산(안) 승인의 건, 정회원회비 장기미납회원 제명 및 미납회비 결손처분 승인의 건, 인사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 인사 위원회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 근무평정규칙 개정(안) 승인의 건,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승인의 건과 협의사항으로 (가칭)건축도시환경 디자인연구원 설립 추진 계획(안)에 관한 건, 한국건축산업대전 공동 개최에 관한 건, 회관 지분에 대한 재산권 정리 요청의 건, 「건설업체의 건축설계업 요구」대처에 관한 건이 논의 됐다.

주요 의결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의안건

- 제1호의안 : 건축단체 통합에 관한 건
-건축단체 통합에 관한 기본합의사항에 대하여 추인키로 의결하고, 건축사통합 혁신위원회 위원(5인)선임에 관한 사항은 회장에게 위임함.
- 제2호의안 : 제42회 정기총회 일시 및 장소 결정의 건
-제42회 정기총회 일시 및 장소를 다음과 같이 결정함.
△일 시 : 2007년 2월 27일(수) 10시
△장 소 : 본협회 회관 1층 대강당
- 제3호의안 : 2007년도 세출예산 이월 승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함.
- 제4호의안 : 2008년도 1~2월 임시예산(안) 승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함.
- 제5호의안 : 정회원회비 장기미납회원 제명 및 미납회비 결손처분 승

인의 건

- 미납회비 납부의사가 있는 회원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에서 유예기간을 줄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키로 함.
- 재입회시 입회비 납부문제 등은 검토하여 추후 이사회에 보고키로 함.
- 제6호의안 : 인사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함.
- 제7호의안 : 인사위원회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함.
- 제8호의안 : 근무평정규칙 개정(안) 승인의 건
-인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차기 이사회에 재상정키로 함.
- 제9호의안 :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승인의 건
-위원장은 이철호 고문을 선임하되, 수락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고문중에서 선임키로 함.
- 위원은 회장과 위원장이 협의하여 결정키로 함.

▲협의사항

- 제1호 : (가칭)건축도시환경디자인연구원 설립 추진 계획(안)에 관한 건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차기 이사회에 부의안건으로 상정키로 함.
- 제2호 : 한국건축산업대전 공동 개최에 관한 건
-한국경제 TV(와우TV)와 공동개최를 추진키로 함.
- 제3호 : 회관 지분에 대한 재산권 정리 요청의 건
-회관 지분관련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의한 후 추후 이사회에 상정키로 함.
- 제4호 : 「건설업체의 건축설계업 요구」대처에 관한 건
-전문가 토론회(12/24)에 참석하여 강력히 항의·대처하기로 함.

위원회 개최 현황

■ 제1회 정관개정특별실무위원회

제1회 정관개정특별실무위원회 회의가 구립 12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정관개정특별실무위원회 소위원장 선임에 관한 건, 정관개정 기본방향 및 추진방향에 관한 건이 논의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회의결과

- 제1호 : 정관개정특별실무위원회 소위원장 선임에 관한 건
 - 최찬환 교수를 소위원장으로 선임함.
- 제2호 : 정관개정 기본방향 및 추진방향에 관한 건
 - ‘혁신정관’은 내년 제42회 정기총회(‘08.2월경) 상정을 목표로 준비하고, 소위원회에서 초안을 작성한 후 공청회 및 회원의견수렴 등을 거치기로 함.
 - 정관개정에 앞서 ‘협회 정체성’에 대해서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고, 차기 회의시에도 계속 논의키로 함.

■ 제2회 정관개정특별실무위원회

제2회 정관개정특별실무위원회 회의가 구립 19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정관개정 기본방향에 관한 건이 논의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회의결과

- 제1호 : 정관개정 기본방향에 관한 건
 - 회장선출 및 운영제도에 관한 사항
 -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회원입회에 관한 사항
 - 회원제도에 관한 사항

■ 제15차 비상대책위원회 기획분과 · 법제소위원회(감리제도) 합동회의

제15차 비상대책위원회 기획분과 · 법제소위원회(감리제도) 합동회의가 구립 21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국행정연구원 공청회 저지행사에 관한 건이 논의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회의결과

- 제1호 : 한국행정연구원 공청회 저지행사에 관한 건
 - 한국행정연구원 공청회 개최를 원천 봉쇄하기로 함.

에 차기회의를 개최하여 예산(안)을 2차 심의키로 함. 아울러,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차 심의결과 부족한 세입예산(안)은 건축경기 침체로 회원사가 어려운 상황이나 꼭 필요한 사업추진을 위해 정회원(월정)회비를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키로 함.

■ 제1회 인사위원회

제1회 인사위원회 회의가 1월 9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균무평정규칙 개정(안) 심의에 관한 건이 논의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회의결과

- 제1호 : 균무평정규칙 개정(안) 심의에 관한 건
 - 근무평정규칙 개정(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이사회에 상정키로 심의함.

■ 제3회 예산결산소위원회

제3회 예산결산소위원회 회의가 구립 21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2008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에 관한 건이 논의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회의결과

- 제1호 : 2008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에 관한 건
 - 2008년도 일반회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중 세출예산(안) 부문을 1차 심의·조정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차기회의(‘08.1.3)에서 계속하여 심의키로 함. 아울러, 프레스센터운영위원회에 아래와 같이 ‘출판사업 개선방안’을 마련 제출토록 위원장 명의로 협조 요청키로 함.

■ 제4회 예산결산소위원회

제4회 예산결산소위원회 회의가 1월 3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2008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에 관한 건이 논의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회의결과

- 제1호 : 2008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에 관한 건
 - 제3회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심의하지 못한 일반회계 홍보사업비 사업계획 및 세출예산(안)과 제출된 9개 특별회계 예산(안)을 1차 심의하고, ‘08.1.16일 11시

서울건축사회, 글로벌건축 최고위과정 제2기 모집

서울특별시건축사회에서는 세계화 추세에 따른 건축시장개방 등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21세기 경쟁력의 초석인 경영 및 위기관리 능력강화를 위해 글로벌건축 최고위과정 제2기 교육을 개최한다.

- 교육기간 : 3월 6일(목)~6월 19일(목), 총 16주(매주 목요일)
- 교육시간 : 총 64시간(1일 4시간, 16주) 18시 ~22시
- 교육인원 : 50명(건축사, 법조인, 기업인, 금융인, 언론인, 고위직 공무원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분)
- 교육장소 : 건축사회관 3층
- 교육내용 : 성공을 낳은 열정 리더십, 중국 건설산업 진출전략, CEO재정관리, 재테크 전략, CEO프리젠테이션, 협상·설득 및 대화법, 21세기 지식경영기법, 자연과 함께하는 건축, U-City트랜드와 건축, 풍수지리 건축, 부부 리더십, 특강 등
- 신청기간 : 1월 28일(월)~1월 31일(목)
- 문의 : 서울특별시건축사회 박상권 주임, 02-587-7061

2008 민건협+민예총 겨울건축강좌

현대를 살고 있는 많은 이들이 갈망하는 것들 중에 빠지지 않는 것으로 '기억속의 나의 모습과 장소 찾기'를 들 수 있다. 끊임없이 확장되어져 가며 살새 없이 변해 가는 현대 도시 안에서 우거진 수림(樹林) 사이를 스쳐지나가는 바람의 소리는 '현재의 나'에서 '미래의 나'로 변모해가는 흔적일 것이다.

이번 민예총 겨울 건축강좌는 우리의 기억과 삶이 담긴 공간 속에서 따뜻한 감동과 '다음'을 투영하는 열정어린 삶의 다른 모습을 공유하고자 하며, 이를 통하여 미래를 위한 불씨를 지피는 것의 의미를 짚어보고자 한다.

· 일정

- 01.18 / 다시 찾은 기억, 울 수 없는 웃음의

연극 : 연극 짬뽕 / 윤정환(작가), 연출가_극단산)

- 01.25 / 다큐멘터리 속의 마음을 움직이는 메시지 : 지식채널e / 김진혁(PD_EBS)
- 02.01 / 그림과 이야기 속에 담긴 일상의 공감 : 행복한 오기사 / 오영욱(일러스트레이터, 건축가, 오기사디자인)
- 02.15 / 가슴 속에 세기는 일기, 귀에 남는 음악축제 : 광명음악밸리축제 / 박준홍(문화기획자, 가슴네트워크)
- 02.22 / '커피프린스1호점'에 취해버린 커피향 : 커피프린스1호점 / 이윤정(PD_MBC)
- 02.29 / 선율과 함께한 감성의 울림 : 클래식 속의 클라리넷 / 계희정(클라리네티스트, 목관5중주 아이그룹)
- 개 강 : 2008년 01월 18일 19:00 (매주 금요일)
- 장 소 :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194-4 하나로빌딩 901호(홈페이지 약도참조)
- 문의 및 접수 : 02-739-6854

행자부 '살기 좋은 지역 10곳' 선정

전국 호수, 공원, 해양 등 지역자원 밭물을 통해 지역브랜드 기반을 조성하고자 실시하는 행정자치부의 '제2회 살기좋은 지역자원 경연 대회'에서 해양 분야에 지원한 '순천만 전경(순천시)'이 대상을 차지했다.

순천만 전경은 순천시를 중심으로 동쪽의 여수반도와 서쪽의 고흥반도에 둘러싸인 호수 일대의 광활한 갯벌과 갈대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길, 갯벌체험장, 자연학습장 등의 자원을 한데 묶어 브랜드화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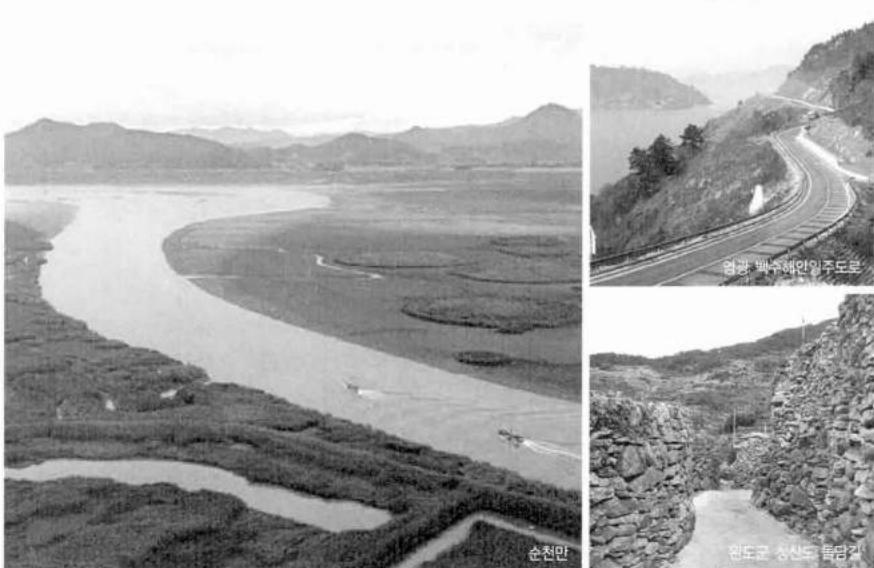
금상으로는 부산 수영강 등 주변 관광명소와 어우러진 친환경적인 건축디자인이 높이 평가된 재활용품 처리시설인 '수영클린센터', 충남 금산군의 산벚꽃 군락을 브랜드화한 '보곡산골 산벚꽃', 친환경성과 미관성이 뛰어난 경남 통영시의 등대에서 바라본 '소매물도' 등이 선정됐다.

이밖에도 전남 영광군의 '백수해안 일주도로', 전남 완도군의 '상서리 돌담길', 경기 남양주시의 '몽골문화촌', 전북 군산시의 '새만금 신도시 배수갑문', 강원 삼척시의 '죽서루', 전남 화순군의 '화순적벽의 비경' 등 6건이 은상을 받았다.

제17회 김태수 해외건축여행 장학제

김태수 해외건축여행 장학제(T. S. Kim Architectural Fellowship Foundation)은 미국에 있는 재미 건축가 김태수씨에 의하여 1991년에 설립되어 한국의 젊은 건축사에게 교육적인 세계 건축여행을 함으로써 보다 넓은 세상에서 많은 것을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여행경비와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절차를 지원한다.

행자부 살기 좋은 지역 10곳



Fellowship을 받은 사람의 수는 상임이사들에 의하여 결정되며 현재까지 세계여행을 목적으로 여행장학금을 받은 사람은 1년에 1명으로 국한되었으며, 1992년에 첫 Fellowship을 수여 한 후 2003년까지 12명이 받았다. 1992년부터 1997년까지는 수상자에게 미화 \$8,000을 수여하였고, 1998년부터는 미화 \$10,000을 수여하고 있다.

- 자격요건 : 만35세 미만의 한국에서 건축학 위를 받은 대한민국 국민(단, 외국에서 공부하지 않은 자)
- 선정방법 및 제출자료
 - 제출된 포트폴리오 심사후 예선 통과자 선정
 - 예선 당선자는 여행 목적 및 계획을 재단에 제출하고 2차 면접심사를 거친 후 최종 수상자 1명을 선발한다.
- 접수마감 : 2008년 4월 30일까지
- 접수처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46-5 로프 트빌딩 3층 1호 (맥스트랫 내)
‘김태수 해외 건축여행 장학제’ 담당자 앞
- 문의 : www.tscaf.org

마곡워터프론트 국제현상공모

서울특별시는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중 한강 권역별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마곡워터프론트를 매력있는 수변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의 폭넓은 아이디어를 얻고 설계안을 수립하고자 ‘마곡워터프론트 국제현상공모(International Design Competition for the Magok Waterfront, Seoul)’를 개최한다.

- 공모개요
 - 위치: 서울시 강서구 마곡동 일대
 - 대상지: 마곡지구 중앙공원 및 서남물재생센터 확장예정부지, 마곡유수지
 - 면적: 1,170,780m²
 - 추정사업기간 : 2009년 2월 ~ 2011년 12월
 - 추정사업비 : 공사비-980억원(추정), 설계비-35억원(추정)
 - 응모자격 : 공모에는 전 세계의 모든 개인이나 법인이 참가할 수 있으며, 단독으로 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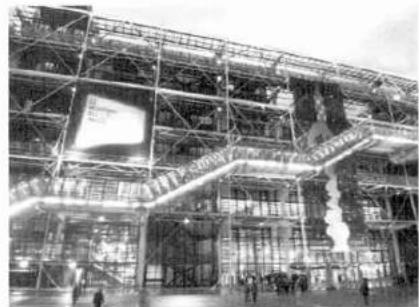
팀으로 참가할 수 있음

- 질의 접수 : 2007. 12. 17. ~ 2008. 02. 10.
- 질의 회신(1차) : 2008. 01. 21.
- 질의 회신(2차) : 2008. 02. 20.
- 작품 접수 : 2008. 05. 21. ~ 2008. 05. 30.
- 당선작 발표 : 2008. 06. 23.
- 문의처 : 서울시 도시계획국 마곡개발과
02-3707-8556, 8586

· 문의 : 생태건축연구소, 02-776-3051,

www.ecoearch.org

홍익대학교 건축대학 건축도시대학원, 리차드 로저스 Richard Rogers 특별 초청강연회



伦佐皮亚诺와 함께 설계한 파리의 봉베두센터



생태환경건축아카데미는 생태건축연구소와 정림문화재단이 공동 진행하는 생태건축전문가 양성과정으로서 집짓기와 거주하기에 있어서의 생태주의의 실현과 생태건축의 전반적인 이해와 사회적 공감을 획득하기 위한 학습기간과 생태건축의 대표적 기본요소를 현장성 있게 디테일화 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모색하여 이 분야의 지도적 역할을 수행할 전문가 그룹을 배출하고자 계획됐다.

- 일시 : 2008년 3월 5일 ~ 12월 14일
- 인원 : 강좌(일반, 전문)당 15명 내외,
- 시간 : 이론교육 : 매주 수요일 오후 7시~9시
- 실습교육 : 현장실습 - 1학기중 토~일요일 1회
- 설계실습 - 2학기중 토요일 14시~17시
- 담사교육 - 3회, 1박2일
- 교육장소 : 정림건축 지하2층 강의실,
- 강사진 : 이윤하(생태건축연구소 대표), 전인호(반딧불연구소 대표), 이병연(서울대강사), 이태구(세명대학교), 성종상(서울대환경대학원), 윤종호(한밭대학교), 틀스텐쉬체(네덜란드 델프트대), 이정재(동아대학교), 한필원(한남대학교), 양병이(서울대환경대학원), 남효창(숲연구소 대표), 조남호(솔토스건축사무소), 이규인(아주대학교), 정동양(한국교원대학교), 이해욱(우송대학교), 최영호(삼우설계), 김현수(건설기술연구원) 외 다수

홍익대학교 건축대학 건축도시대학원은 영국 출신의 세계적 건축사인 Richard Stirk Harbour +Partners의 리차드 로저스 대표를 초청하여 강연회를 개최한다.

오는 1월 31일 오후 5시부터 홍익대 홍문관 가람홀에서 열리는 이번 강연회는 도시디자인에 있어서의 건축사의 역할과 특히 여의도 파크원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최근에 진행된 프로젝트를 소개할 예정이다. 강연 후에는 건축사로서 도시의 랜드마크적 건축물디자인 방향에 대해 토론시간도 준비되어 있다.

- 일시 : 2008년 01월 31일 (목) 17:00
- 강연자 : 리차드 로저스 (Richard Rogers, Richard Stirk Harbour+Partners 대표)
- 장소 : 홍익대학교 홍문관 가람홀
- 문의 : 홍익대학교 건축대학, (주)종합건축사 사무소 이.상 02-325-9872

철학아카데미 건축강좌 : 콜린로우의 건축이론

철학 아카데미에서는 2003년 이래 매년 여름과 겨울에, 예술강좌의 일환으로 건축강좌를 진행해 왔다. 이번(2007년 겨울)에는 비범한 통찰력을 보여주는 건축이론가로 평가받으면서도, 국내에서는 제한된 범위에서만 논의되었던 콜린 로우의 이론적 작업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콜린 로우는 근대건축사의 작업을 고전건축

의 맥락에서 읽거나, 동시성과 콜라주와 같은 근대화의 기법을 건축과 도시에 투사하는 풍부한 상상력을 통해, 건축사의 작업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친 건축이론가라고 할 수 있다. 비범한 통찰력의 산물인 그의 에세이가 논증적 정합성에 기대기보다는 새로운 사실을 드러내는 해석적 창의성을 보여주기 때문일 것이다. 비단 콜린 로우뿐만 아니라 건축이론 자체에 친숙해지기 어려운 흥토에서 마련된 이 강좌는, 다양한 시각을 갖고 있는 건축이론가들이 ① 콜린 로우의 독보적 에세이들을 어떻게 읽는지, ② 그의 건축이론을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지 비교해 보도록 기회됐다.

- 강좌제목 : 콜린로우의 건축이론
- 강의시간 : 월요일 저녁 7:00~9:00
- 강의 내용

- 1강 : 1월7일 – 텍스트 읽기 1. 이상적 빌라의 수학 / 정만영 (서울산업대)
- 2강 : 1월14일 – 텍스트 읽기 2. 근대건축과 신고전주의 / 배형민 (서울시립대)
- 3강 : 1월21일 – 텍스트 읽기 3. 투명성 1,2 / 권태일 (영산대)
- 4강 : 1월28일 – 투명성 재론 / 권태일 (영산대)
- 5강 : 2월 4일 – 눈 : 콜린 로우와 르 코르뷔제 / 정만영 (서울산업대)
- 6강 : 2월11일 – 콜라주 시티와 그 이후 / 구영민 (인하대)
- 7강 : 2월18일 – 콜린 로우와 형식주의 / 배형민 (서울시립대)
- 8강 : 2월25일 – 콜린 로우의 모더니즘 성찰 : 기계론과 유기론적 개념의 시각 / 김원식 (김미상 건축연구소)

· 문의 : 02-2279-2871,

<http://www.acaphilo.or.kr>

신간안내_ new-books

알기쉽게 풀어쓴 건축 + 법 이야기



윤혁경 저 / 512p / 기문당

저자 윤혁경(서울시 도시관리과장)은 자신의 12번째 저서인 '알기 쉽게 풀어 쓴 건축 + 법 이야기'를 출간했다.

이 책에는 '건축법의 이해',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기준', '환경 및 에너지 관련 기준',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 등 건축과 건축법에 관한 20개 분야 153개 항목이 알기 쉽게 정리돼 있다.

윤혁경씨는 건축을 하는 사람이라면 법 앞에서 한 번쯤은 당혹스러운 경험을 하게 된다며 일반인들이 건축법을 조금이나마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반인을 위한 건축법 책을 발간하게 됐다고 밝간 이유를 밝혔다.

다른 저서로는 건축법령 해설집인 '건축법·조례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설', '주택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해설' 등 전문서적과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쓴 '알기 쉬운 건축여행' 시리즈 등이 있다.

바로잡습니다

본지 통권 464호(2007년 12월호)의 83페이지 신간안내에 게재된 '키워드를 통해 보는 건축공간과 형태의 이해'의 '유희준 역'을 '유희준 저'로 바로잡습니다.

전국시도건축사회 및 건축 상담실 안내

■ 서울특별시건축사회/(02)581-5715~8
강남구건축사회/517-3071 · 강동구건축사회/477-9494 · 강북구건축사회/903-4666 · 강서구건축사회/2661-6999 · 관악구건축사회/888-2491 · 광진구건축사회/446-5244 · 구로구건축사회/884-5826 · 금천구건축사회/859-1588 · 노원구건축사회/937-1100 · 도봉구건축사회/3404-3221 · 동대문구건축사회/9227-0503 · 동작구건축사회/814-8843 · 미포구건축사회/338-5556 · 서대문구건축사회/324-3810 · 서초구건축사회/3474-6100 · 성동구건축사회/2292-5855 · 성북구건축사회/927-3236 · 송파구건축사회/423-9158 · 양천구건축사회/2644-6688 · 용산구건축사회/2634-3102 · 용산구건축사회/719-5865 · 은평구건축사회/357-6833 · 종로구건축사회/725-3914 · 중구건축사회/2286-4904 · 중랑구건축사회/496-3200

■ 부산광역시건축사회/(051)633-6677
■ 대구광역시건축사회/(053)753-8980~3
■ 인천광역시건축사회/(032)437-3381~4
■ 광주광역시건축사회/(062)521-0025~6
■ 대전광역시건축사회/(042)485-2813~7
■ 월산광역시건축사회/(052)266-5651
■ 경기도건축사회/(031)247-6129~30

고양시건축사회//(031)963-8002 · 광명건축사회/(02)2684-5845 · 등기지역건축사회/(031)563-2337 · 부천지역건축사회/(032)327-9554 · 성남지역건축사회/(031)755-5445 · 수원지역건축사회//(031)246-8046~7 · 시흥지역건축사회/(031)318-6713 · 안산건축사회/(031)480-9130 · 안양지역건축사회/(031)449-2698 · 북부지역건축사회/(031)876-0458 · 이천지역건축사회//(031)635-0545 · 괴산지역건축사회/(031)945-1402 · 평택지역건축사회/(031)657-6149 · 오산·화성지역건축사회/(031)234-8872 · 용인지역건축사회/(031)336-0140 · 광주지역건축사회//(031)767-2204

■ 강원도건축사회/(033)254-2442
강릉시건축사회/(033)653-9680 · 삼척지역건축사회/(033)533-6651 · 속초지역건축사회/(033)637-6621 · 영월성지역건축사회/(033)374-0478 · 원주지역건축사회/(033)745-2908 · 춘천지역건축사회/(033)251-2443

■ 충청북도건축사회/(043)223-3084~6
청주지역건축사회/(043)223-3084 · 옥천지역건축사회/(043)732-5752 · 청원지역건축사회/(043)647-6633 · 충주지역건축사회/(043)842-2887 · 음성지역건축사회/(043)873-0160

■ 충청남도건축사회/(042)252-4088
천안지역건축사회/(041)554-0070 · 공주지역건축사회/(041)866-5110 · 보령지역건축사회/(041)932-8890 · 예산지역건축사회/(041)540-5001 · 서산지역건축사회/(041)669-3388 · 논산지역건축사회/(041)862-9388 · 금강지역건축사회/(041)751-1333 · 연기지역건축사회/(041)866-2276 · 부여지역건축사회/(041)835-2217 · 세천지역건축사회/(041)952-2356 · 홍성지역건축사회/(041)632-2755 · 예산지역건축사회/(041)335-1333 · 태안지역건축사회/(041)674-3733 · 담양지역건축사회/(041)566-0017 · 계룡지역건축사회/(042)841-5725 · 청양지역회장/(041)942-8222

■ 전라북도건축사회/(063)251-6040
군산지역건축사회/(063)452-8171 · 남원지역건축사회/(063)631-2223 · 익산지역건축사회/(063)852-1515

■ 전라남도건축사회/(062)365-9944 · 364-7567
목포지역건축사회/(061)272-3349 · 순천지역건축사회/(061)726-6877 · 여수지역건축사회/(061)666-7023 · 니주지역건축사회/(061)365-9944

■ 경상북도건축사회/(053)744-7800~2
경산지역건축사회/(053)801-0386 · 경주지역건축사회/(054)72-4710 · 구미지역건축사회/(054)451-1537~8 · 김천지역건축사회/(054)436-2651 · 문경지역건축사회/(054)562-1412 · 상주지역건축사회/(054)536-8856 · 인동지역건축사회/(054)863-4465 · 영주지역건축사회/(054)631-4566 · 영천지역건축사회/(054)337-0085 · 축곡지역건축사회/(054)913-1219 · 포항지역건축사회/(054)278-6129 · 군위·의성지역건축사회/(054)383-8608 · 청도지역건축사회/(054)373-2332 · 고령·성주지역건축사회/(054)931-3577

■ 경상남도건축사회/(055)246-4530~1
거제지역건축사회/(055)636-6870 · 거창지역건축사회/(055)943-6090 · 김해시건축사회/(055)334-6644 · 마산지역건축사회/(055)245-3737 · 밀양지역건축사회/(055)356-1323 · 사천시건축사회/(055)832-9005 · 양산시건축사회/(055)384-3050 · 진주시건축사회/(055)741-6403 · 진해시건축사회/(055)544-6666 · 통영지역건축사회/(055)642-4530 · 하동지역건축사회/(055)864-7400 · 합천시건축사회/(055)585-8687 · 칭송시건축사회/(055)533-2473

■ 제주도건축사회/(064)752-3248

서귀포지역건축사회/(064)763-1010

-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
-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
-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878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파산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자도 건축사 자격을 취득 및 유지할 수 있도록 하되, 영업활동을 위한 건축사업무신고 제한요건에 파산선고를 받은 자를 추가하여 건축물 설계 및 감리의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하는 한편, 건축사자격의 심의는 직업선택의 자유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항이므로 하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건축사자격심의위원회의 설치근거 및 심의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하려는 것임.

건축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건축사자격심의위원회 등) ① 건축사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건축사자격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건축사자격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건축사자격시험 및 건축사예비시험 시험과목의 조정 등 시험에 관한 사항
3. 건축사자격시험 및 건축사예비시험의 합격기준에 관한 사항
4.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 학력 및 경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건축사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중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 ·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부 칙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건축사자격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건축사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구성 · 운영 중인 건축사자격심의위원회는 이 법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047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실내공기질의 오염에 민감한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실내공기질을 관리하여야 하는 보육시설을 종전의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국공립보육시설에서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 국공립보육시설 · 법인보육시설 · 직장보육시설 및 민간보육시설(2010년말까지 법인보육시설 · 직장보육시설 및 민간보육시설은 연면적 86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적용)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 중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의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2조제1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10.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 국공립 보육시설, 법인보육시설, 직장보육 시설 및 민간보육시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3조제1항제11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2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장례식장 중”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 중”으로 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

른 대규모점포

3.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전문병원 중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국공립 노인의료복지시설

제3조 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을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제3호의 개정 규정은 2008년 4월 4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육시설의 적용대상 규모에 관한 특

례) 제2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인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및 민간보육시설에 대하여는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제2조제1항제10호의 개정 규정 중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을 “연면적 86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3조(실내공기질 유지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적용대상이 되는 보육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보육시설의 실내공기질을 법 제5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현 행 | 개 정 안 |
|---|--|---|---|
| <p>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시행령</p> <p>제1조(목적) 이 영은 <u>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u>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적용대상) ①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규모의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p> <p>1. ~ 9. (생 략)</p> <p>〈신 설〉</p> <p>②법 제3조제1항제11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p> <p>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p> <p>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중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국공립 보육시설</p> | <p>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p> <p>제1조(목적) -----「<u>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u>」-----</p> <p>-----.</p> <p>제2조(적용대상) ①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규모의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p> <p>1. ~ 9. (현행과 같음)</p> <p>10.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 국공립 보육시설, 법인보육시설, 직장보육 시설 및 민간보육시설</p> <p>②법 제3조제1항제11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p> <p>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p> <p>〈삭제〉</p> | <p>3. 노인복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중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국공립 노인전문요양시설·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p> <p>4.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장례식장 중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장례식장(지하에 위치한 시설에 한한다)</p> <p>5. · 6. (생 략)</p> <p>③(생 략)</p> <p>제3조(업무의 위탁) 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의하여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의 교육에 관한 업무를 <u>환경정책기본법</u>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정보전 협회의 장 또는 환경부장관이 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수탁기관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p> | <p>3.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전문병원 중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국공립 노인의료복지시설</p> <p>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 중</p> <p>5. · 6. (현행과 같음)</p> <p>③(현행과 같음)</p> <p>제3조(업무의 위탁) -----</p> <p>-----.</p> <p>-----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p> |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045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장 및 발전시설 등 일부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시설주의 경제적 부담과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사용이 불편한 일부 기계식주차장을 다른 형태의 주차장으로 변경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경형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된 주차단위구획도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포함시켜 경형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개정된 건축법령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 본문 중 “제2조제5호의2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 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이라 함은”을 “제2조제5호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이란”으로, “연면적”을 “연면적 중”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주차장외”를 “주차장 외”로, “별표 1의 규정에 의한”을 “별표 1에 따른”으로, “판매 및 영업시설”을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주차장설치의무 면제등)”을 “(주차장설치의무 면제 등)”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9조제5 항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만제곱미터이상의 판매 및 영업시설”을 “1만 제곱미터 이상의 판매시설 및 운수시설”로, “1만5천제곱미터이상”을 “1만 5천 제곱미터 이상”으로, “관람장에 한한다”를 “관람장만을 말한다”로,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6조에 따라”로, “범위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단서에 따라”로, “각호의 1과”를 “각 호의 어느 하나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19조제10항의 규정

에 의한”을 “법 제19조제10항에 따른”으로, “설치제한기준”을 “설치제한기준(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령·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 기준을 말한다)”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허가 등을 받았거나 건축 또는 설치허가 등을 신청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이 종전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별표 1】 00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6조제1항 관련)

| 시설물 | 설치기준 |
|---|---|
| 1. 위락시설 | ○ 시설면적 100㎡당 1대 (시설면적/100㎡) |
| 2. 문화 및 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소 및 객리 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 ○ 시설면적 150㎡당 1대 (시설면적/150㎡) |
| 3. 제1종 균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은 제외한다), 제2종 균린생활시설, 숙박시설 | ○ 시설면적 200㎡당 1대 (시설면적/200㎡) |
|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 ○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 1대 ○ 시설면적 150㎡ 초과: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 [1+[(시설면적-150㎡)/100㎡]] |

| 시설물 | 설치기준 |
|--|--|
|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 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 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
|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 ○ 골프장: 1홀당 10대(홀의 수×10) ○ 골프연습장: 1타석당 1대(타석의 수×1) ○ 옥외수영장: 정원 15명당 1대 (정원/15명) ○ 관람장: 정원 100명당 1대(정원/100명) |
| 7.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발전시설 | ○ 시설면적 350㎡당 1대 (시설면적/350㎡) |
| 8. 창고시설 | ○ 시설면적 400㎡당 1대 (시설면적/400㎡) |
| 9. 그 밖의 건축물 | ○ 시설면적 300㎡당 1대 (시설면적/300㎡) |

〈비 고〉

1.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시설물에 의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
 - 나. 종교시설 중 수도원·수녀원·제실 및 사당
 - 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
 - 라. 방송통신시설(방송국·전신전화국·통신용시설 및 촬영소만을 말한다) 중 송신·수신 및 중계시설
 - 마.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만을 말한다)에 주차장 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판매시설 중 백화점·쇼핑센터·대형점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관·전시장·예식장은 제외한다)
 - 바. 「도시철도법」에 따른 역사(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철도건설 사업으로 건설되는 역사를 포함한다)
 - 사.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통한옥 밀집지역 안에 있는 전통한옥
2.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 안에 둘 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 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은 해당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해당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의 부지(「지적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지목만을 말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4.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각 시설물별 설치기준에 의하여 산정(위 표 제5호의 시설물은 주차대수의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되, 비고 제8호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된 주차대수는 별도로 합산한다)한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을 10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
5.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이하 “증축하는 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 표 제5호에 따른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 후 시설물의 전체면적에 대하여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서 증축 전 시설물의 면적에 대하여 증축시점의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를 뺀 대수로 한다.

6. 설치기준(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의하여 주차대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소수점 이하의 수(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먼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가 0.5 미만인 때에는 그 수와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를 합산한 수의 소수점 이하의 수. 이 경우 합산한 수가 0.5 미만인 때에는 0.5 이상이 될 때까지 합산하여야 한다)가 0.5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다만, 당해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설치기준(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령·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산정한 총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7.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 이상 나누어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하여는 같은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한다.
9. 승용차와 승용차 외의 자동차가 함께 사용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용차 외의 자동차가 더 많이 이용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빈도에 따라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차 외의 자동차가 이용할 주차장을 승용차용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1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상 부설주차장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장애인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상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제6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는 때에는 시설물의 시설면적·홀·타석·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12. 경형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된 주차단위구획은 전체 주차단위구획 수의 10퍼센트까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13. 2008년 1월 1일 전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로서 다음 각 목에 열거된 형태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다른 형태의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주차대수보다 1대(총 주차대수가 8대 이하인 주차장에서는 기계식주차장치

에 주차하는 대수의 2분의 1을 뺀 대수)를 적게 설치하더라도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한다.

가. 2단 단순승강 기계식주차장치 :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위층에 주차된 자동차를 출고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아래층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출고하여야 하는 형태로서, 주차구획 안에 있는 평평한 운반기구를 위·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나. 2단 경사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

고 주차구획 안에 있는 경사진 운반기구를 위·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14. 제13호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여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받은 후 해당 시설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 등으로 인하여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13호 각 목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면서 경감된 주차대수도 포함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조의2(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 비율) ①「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의2의 규정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95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주차장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접객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또는 자동차관련시설인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 제1조의2(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 ①----- --- 제2조제5호의2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이란 ----- --- 연면적 중 ----- ----- 주차장 외 ----- ----- 별표 1에 따른 ----- -----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 ----- ----- ----- ②·③(현행과 같음) 제8조(주차장설치의무 면제등) ①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시설물의 위치·용도·규모 및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략) 2. 시설물의 용도 및 규모 연면적 1만제곱미터이상의 판매 및 영업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이상의 문화 및 접객시설(공연장·집회장 및 관 |
| 제8조(주차장설치의무 면제등) ①법 제19조제5항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시설물의 위치·용도·규모 및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략) 2. 시설물의 용도 및 규모 연면적 1만제곱미터이상의 판매 및 영업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이상의 문화 및 접객시설(공연장·집회장 및 관 | 제8조(주차장설치의무 면제 등) ①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 ----- 각 호----- 1. (현행과 같음) 2. 시설물의 용도 및 규모 ----- 1만 제곱미터 이상의 판매시설 및 운수시설----- ----- 1만 5천 제곱미터 이상----- |

| 현 행 | 개 정 안 |
|--|--|
| 람장에 한한다) · 위탁시설 · 숙박시설 또는 업무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도로교통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통행이 금지된 장소의 시설물인 경우에는 「건축법」이 정하는 용도별 건축허용 연면적의 범위안에서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 관람장만을 말한다----- ----- 계6조에 따라 ----- ----- 범위에서 ----- ----- 3. (현행과 같음) ②·③(현행과 같음) 제12조(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등) ① 법 제19조의4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2. (생략) 3. 제6조 또는 법 제19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을 초과하는 주차장으로서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
| 1. (현행과 같음) 2. 시설물의 용도 및 규모 연면적 1만제곱미터이상의 판매 및 영업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이상의 문화 및 접객시설(공연장·집회장 및 관 | ----- ----- 설치제한기준(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령·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을 말한다)----- ----- ----- 4. · 5. (현행과 같음) ②·③(현행과 같음) |

건축사사무소 등록현황

(사 : 사무소수, 회 : 회원수)

2007년 11월말

| 구 분 건축 사회 | 개인사무소 | | | | | | | | | 법인사무소 | | | | | | | | | 총 역 사무소 | 합 계 | | 비율(%) | | | |
|-----------------|-------|-------|-----|-----|------|----|-------|-------|-------|-------|-----|-----|----|-----|----|----|----|------|---------------|-------|-----|-------|-------|--------|--------|
| | 1인 | | 2인 | | 3인이상 | | 소 계 | | | 1인 | | 2인 | | 3인 | | 4인 | | 5인이상 | | | 소 계 | | | | |
| | 사 | 회 | 사 | 회 | 사 | 회 | 사 | 회 | 사 | 회 | 사 | 회 | 사 | 회 | 사 | 회 | 사 | 회 | 사 | 회 | 사 | 회 | | | |
| 합계 | 5,159 | 5,159 | 133 | 266 | 17 | 53 | 5,309 | 5,478 | 1,575 | 1,575 | 281 | 562 | 73 | 219 | 21 | 84 | 33 | 232 | 1,983 | 2,672 | 7 | 7,292 | 8,150 | 100.0% | 100.0% |
| 서울 | 1,094 | 1,094 | 35 | 70 | 8 | 25 | 1,137 | 1,189 | 888 | 888 | 177 | 354 | 44 | 132 | 12 | 48 | 20 | 140 | 1,141 | 1,562 | 6 | 2,278 | 2,751 | 31.3% | 33.9% |
| 부산 | 480 | 480 | 17 | 34 | 2 | 6 | 499 | 520 | 92 | 92 | 17 | 34 | 5 | 15 | 2 | 8 | 3 | 19 | 119 | 168 | | 618 | 688 | 8.5% | 7.9% |
| 대구 | 412 | 412 | 24 | 48 | 6 | 19 | 442 | 479 | 64 | 64 | 19 | 38 | 7 | 21 | 0 | 0 | 2 | 11 | 92 | 134 | | 534 | 613 | 7.5% | 7.7% |
| 인천 | 242 | 242 | 2 | 4 | 0 | 0 | 244 | 246 | 48 | 48 | 10 | 20 | 0 | 0 | 0 | 0 | 0 | 0 | 58 | 68 | | 302 | 314 | 4.0% | 3.8% |
| 광주 | 213 | 213 | 1 | 2 | 0 | 0 | 214 | 215 | 37 | 37 | 6 | 12 | 1 | 3 | 2 | 8 | 3 | 21 | 49 | 81 | | 263 | 296 | 3.6% | 3.7% |
| 대전 | 205 | 205 | 15 | 30 | 0 | 0 | 220 | 235 | 29 | 29 | 8 | 16 | 4 | 12 | 0 | 0 | 2 | 20 | 43 | 77 | | 263 | 312 | 3.5% | 3.7% |
| 울산 | 170 | 170 | 8 | 16 | 0 | 0 | 178 | 186 | 16 | 16 | 3 | 6 | 1 | 3 | 0 | 0 | 0 | 0 | 20 | 25 | | 198 | 211 | 2.7% | 2.6% |
| 경기 | 685 | 685 | 3 | 6 | 1 | 3 | 689 | 694 | 220 | 220 | 20 | 40 | 2 | 6 | 1 | 4 | 1 | 5 | 244 | 275 | | 933 | 969 | 13.0% | 12.2% |
| 강원 | 168 | 168 | 2 | 4 | 0 | 0 | 170 | 172 | 20 | 20 | 3 | 6 | 0 | 0 | 0 | 0 | 1 | 5 | 24 | 31 | | 194 | 203 | 2.6% | 2.6% |
| 충북 | 179 | 179 | 5 | 10 | 0 | 0 | 184 | 189 | 29 | 29 | 4 | 8 | 2 | 6 | 1 | 4 | 1 | 11 | 37 | 58 | | 221 | 247 | 2.9% | 3.0% |
| 충남 | 184 | 184 | 3 | 6 | 0 | 0 | 187 | 190 | 37 | 37 | 4 | 8 | 2 | 6 | 2 | 8 | 0 | 0 | 45 | 59 | | 232 | 249 | 3.0% | 3.1% |
| 전북 | 199 | 199 | 4 | 8 | 0 | 0 | 203 | 207 | 26 | 26 | 1 | 2 | 2 | 6 | 1 | 4 | 0 | 0 | 30 | 38 | | 233 | 245 | 3.2% | 3.0% |
| 전남 | 141 | 141 | 0 | 0 | 0 | 0 | 141 | 141 | 9 | 9 | 1 | 2 | 0 | 0 | 0 | 0 | 0 | 0 | 10 | 11 | | 151 | 152 | 2.2% | 1.9% |
| 경북 | 325 | 325 | 6 | 12 | 0 | 0 | 331 | 337 | 29 | 29 | 2 | 4 | 1 | 3 | 0 | 0 | 0 | 0 | 32 | 36 | 1 | 363 | 373 | 5.0% | 4.6% |
| 경남 | 359 | 359 | 8 | 16 | 0 | 0 | 367 | 375 | 24 | 24 | 6 | 12 | 1 | 3 | 0 | 0 | 0 | 0 | 31 | 39 | | 398 | 414 | 5.5% | 5.0% |
| 제주 | 103 | 103 | 0 | 0 | 0 | 0 | 103 | 103 | 7 | 7 | 0 | 0 | 1 | 3 | 0 | 0 | 0 | 0 | 8 | 10 | | 111 | 113 | 1.5% | 1.3% |

건축사회별 회원현황

| 구 분 건축사회 | 회원 | | | | 준회원 |
|-------------|-------|----|-------|--------|-----|
| | 건축사 | 2급 | 계 | 비율 | |
| 합계 | 8,150 | 10 | 8,160 | 100.0% | 23 |
| 서울 | 2,751 | 3 | 2,754 | 33.9% | 10 |
| 부산 | 688 | 1 | 689 | 7.9% | 9 |
| 대구 | 613 | 0 | 613 | 7.7% | 0 |
| 인천 | 314 | 0 | 314 | 3.8% | 0 |
| 광주 | 296 | 0 | 296 | 3.7% | 0 |
| 대전 | 312 | 1 | 313 | 3.7% | 0 |
| 울산 | 211 | 0 | 211 | 2.6% | 0 |
| 경기 | 969 | 2 | 971 | 12.2% | 2 |
| 강원 | 203 | 0 | 203 | 2.6% | 0 |
| 충북 | 247 | 0 | 247 | 3.0% | 0 |
| 충남 | 249 | 3 | 252 | 3.1% | 0 |
| 전북 | 245 | 0 | 245 | 3.0% | 0 |
| 전남 | 152 | 0 | 152 | 1.9% | 0 |
| 경북 | 373 | 0 | 373 | 4.6% | 1 |
| 경남 | 414 | 0 | 414 | 5.0% | 1 |
| 제주 | 113 | 0 | 113 | 1.3% | 0 |

사무소형태별 회원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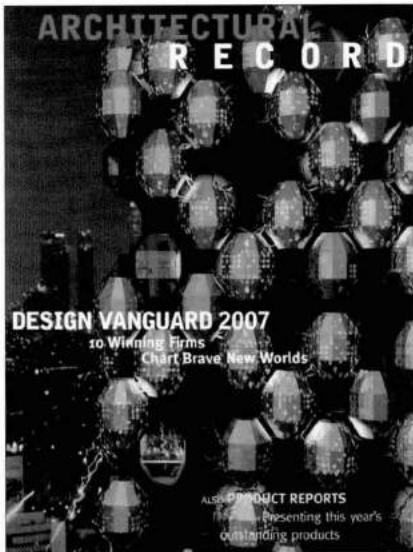
| 구 分 | 개인사무소 | 법인사무소 | 전임미처리 | 합 계 | 비 고 |
|------|--------|--------|-------|-------|-----|
| 회원 수 | 5,478 | 2,672 | 89 | 8,239 | |
| 비율 | 66.49% | 32.43% | 1.08% | 100% | |
| 사무소수 | 5,309 | 1,983 | - | 7,292 | |
| 비율 | 72.81% | 27.19% | - | 100% | |

PLAZA ARCHITECTS'

건축마당
해외잡지동향
overseas journal

Architectural Record

ARCHITECTURAL RECORD



2007년 12월호는 신예건축사 10팀을 다루는 디자인 뱅가드를 주력기사로 다루고 있다. 이들은 이전에는 이미지에 그쳤던 정서들을 실제로 공간에서 드러 내는데 상당한 재능을 보이고 있는 동시에 이 디자인이 그들의 관심사와 어울려 설득력을 고양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그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건축유형 연구에서는 연구시설 디자인을 살펴보면서, 건축사들이 항상 마주하게 되는 제한된 대지와 예산을 성공적으로 활용한 사례들을 다루고 있다. 이를 위해 칠레 산호아킨 센트로 테크놀로지코, 필라델피아의 스키르카니 히 홀, 샌디에고의 캘릿2와 같은 연구시설들을 고찰하고 있다.



김훈 / 선문대학교 교원
부천대학 출강

학력
고려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석사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박사 수료

■ Books

• David Adjaye Houses : Recycling, Reconfiguring, Rebuilding Edited by Peter Allison, NYC: Thames & Hudson, 2006

• David Adjaye Houses : Making Public Buildings Edited by Peter Allison, London: Thames & Hudson, 2006

: 파터 앤리슨이 데이빗 아드자에의 어제와 오늘을 다루는 두권의 책을 내놓았다. 아프리카와 중동, 일본의 전통건축의 영향을 받았던 그의 5개의 주거시설을 다룬 책과 공적 영역을 바라보는 인식의 변화를 보여주는 최근작들을 다루고 있다. 레코드 지는 저자의 애심에 미치지 못하는 도판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지만 의미있는 저작임을 확인하고 있다.

• Lewis, Tsurumaki, Lewis: Opportunistic Architecture by Paul Lewis, Marc Tsurumaki, David J. Lewis, NYC: Priston Architectural Press, 2008

: 이 저작은 다른을 위한 다른에 천착하는 동시대의 건축사들과는 달리 절제된 표현으로 적확한 공간을 만들어 내려는 건축사 자신의 내밀한 독백에 다른 아니다. 그들의 조금 오래된 듯한 디자인 태도는 소위 '다른 건축'들이 확인 속에 놓치고 있는 직관과 유연함에 대한 지향을 선명히 보여주고 있다.

■ Design Vanguard 2007

올해의 디자인 뱅가드에 선정된 작가들은 일견 우아한 선과 호기심을 자극하는 형태를 만들고 있다. 하지만 조금만 더 깊이 살펴보면 그들이 단지 호소력있는 건축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건축이 놓인 이슈들을 깊숙이 끌어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바로 이런 부분들이 건축사들이 아닌 일반인들이 그들의 건축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올해의 선정작가 중 예닐곱 회사는 주택 혹은 다가구 주택을 위한 전략과 디자인 개

발과 연관이 있다. 세바스티앙 마리스칼의 이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는 멕시코시티의 공공주택 건축사였던 그의 아버지를 도왔던 그의 초기 경력에서부터 시작한 것이다. 타티아나 빌바오 또한 그녀 자신의 사무소를 개업하기 전에 멕시코시티 도시 주택 개발부에서 일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켐페 틸은 네덜란드에서 '명확한 불편부당성'을 수많은 공공주택 프로젝트에 적용해 왔다.

수오 후지모토에게 있어 사회적 참여란 정신적 감정적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위한 디자인을 의미하는 것이다. 휴카이도에 있는 두 개의 요양 및 치료 시설에서 후지모토는 굳이 변덕스럽다고밖에 얘기할 수 없는 평면을 제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아이들이 별난 공간에서 자신만의 용도를 개발하도록 이끌고 있다. 스페인의 에스투디오 엔트레시티오의 세 건축사는 일련의 주목할 만한 건강시설을 통해 건축적 시학과 적요함을 결합하고 있다.

페이 추의 베이징에서의 작업은 다른 방식으로 와 달는데. 급속한 사회발전 속에 전통

문화와 모더니즘 건축의 접점을 찾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건물을 넘어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맥락을 결부시킨다는 데에서 올해의 디자인 뱅가드 선정 작가들의 중요한 특징이 있으며, 이 부분이 바로 그들의 작품이 향후로 어떤 향기를 만들어 낼지 주목하게 되는 이유이다.

선정 작가(혹은 사무소)는 다음과 같다.

Studio Pei-Zhu/ Leven Betts Studio/ estudio.entresitio/ Höweller+Yoon Architecture/ Moongye Choi+GaA Architects/ Tatiana Bilbao(mx.a)/ Sebastian Mariscal Studio/ Sou Fujimoto Architects/ Broissin Architects/ Atelier Kempe Thill

Studio Pei-Zhu

스튜디오 페이 추는 현대 중국의 에너지가 넘치는 도시현상의 뿌리와 충돌에 주목하여 이것이 반영된 건축을 추구한다. (그가 이전에 공동 설립했던 사무소의 이름도

Urbanus 인 것을 보라) 초기의 블루빌딩에서 우르바누스에서의 디지털 베이징 빌딩에 이르기 까지 그의 관심사는 꾸준히 영역의 폭과 깊이를 더해가고 있다. 이런 태도는 자하와 게리, 장누벨과 함께 최종 로스터에 올랐던 아부다비의 파빌리온, 현재 진행중인 구겐하임 베이징 뮤지엄 아웃포스트와 같은 비교적 중국의 영향이 적어보이는 프로젝트에서도 지속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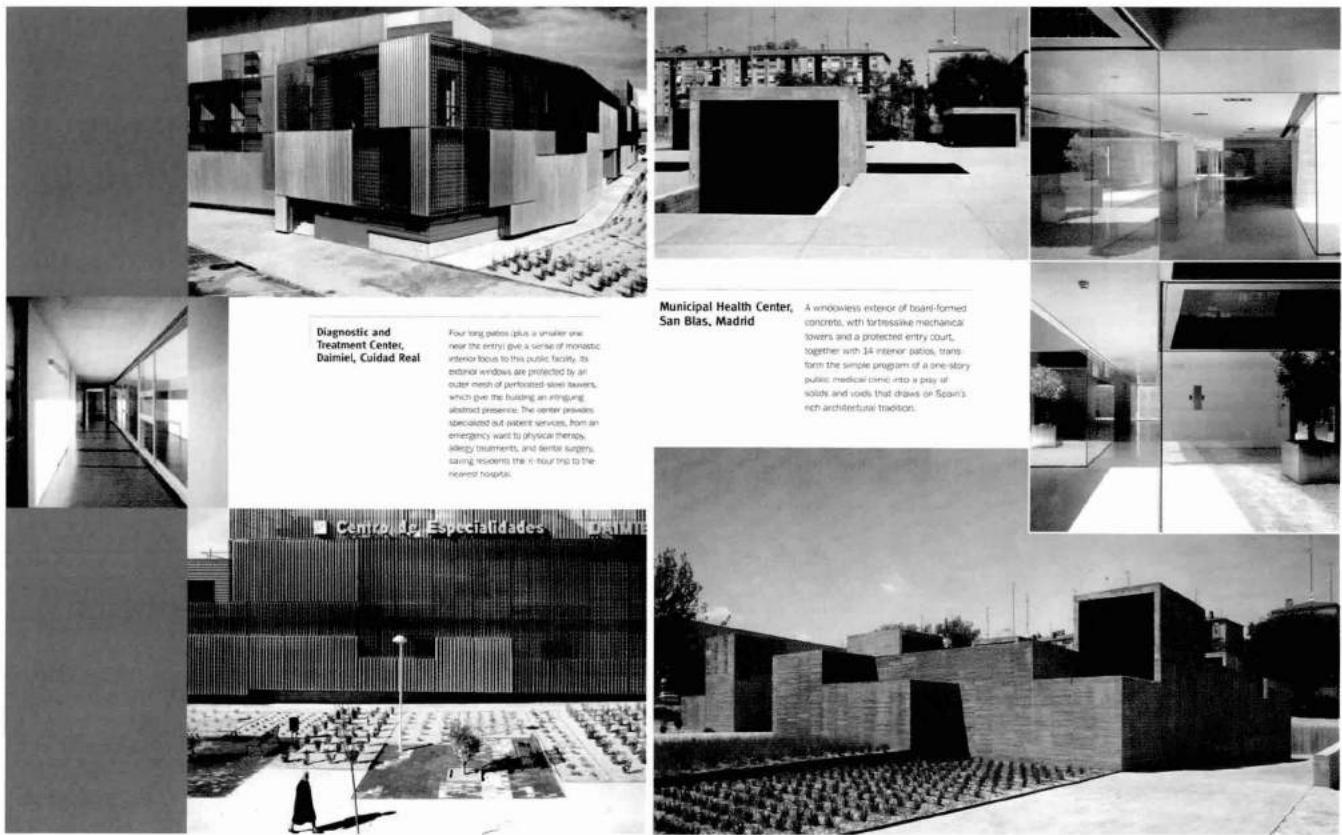
그는 현대건축이 단지 도시경관에 작은 자국만을 남겨놓기를 원한다. 그는 건축이 도시개발을 위한 도구가 아니며, 인민들이 즐길 수 있고 위안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것이 되어야 함을 믿고 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그의 작품을 흥미롭고 잠재력 있는 것으로 판단하게 되는 강력한 근거가 되는 것이다.

estudio.entresitio

에스투디오 엔트레시티오는 모더니즘 안에 스페인건축의 전통을 섬세하게 직조한다. 그들의 작업은 솔직히 컨텍스트에 충실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신경을 쓰지

• Studio Pei-Zhu





• estudio.entresitio

않는다. 이들은 스며드는 건물보다는 도드라지는 결과물을 선호한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작업이 잠깐 멈춰서서 눈길을 끄는데 그친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처해진 문제들을 순수하게 기술적인 차원에서 고민하며, 프로그램과 건축시공사이의 조율에 신경쓴다. 이런 꾸미지 않은 수련생 같은 태도는 50년대 마드리드 건축의 주요한 조류를 계승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또한 기능적 효율성과 강력한 형태 사이에 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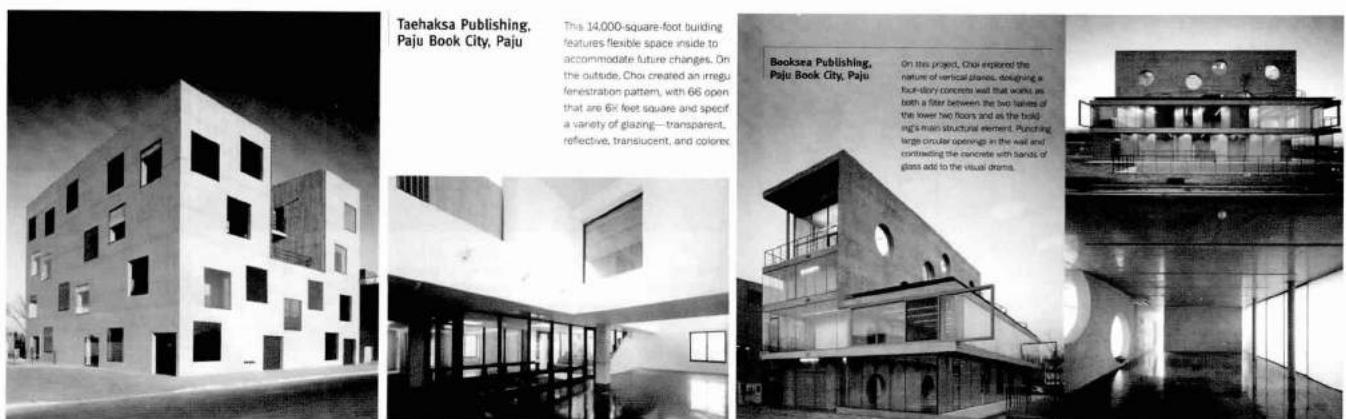
돌하는 요구를 조율하는 스페인의 엄한 공모전 지침에 따른 결과이기도 하다.

최문규+GaA

2004년부터 레코드지는 지속적으로 한국의 건축사를 디자인 뱅그드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2004-조병수, 2005-서혜림+김준성(힘마), 2006-장윤규+신창훈(운생동)] 올해에도 최문규가 그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그는 한국의 녹녹치 않은 자연조건 속

에서 (이것을 매우 음식에 대한 선호와 연결지어 생각할 수도 있겠다.) 섬세한 재료는 잘 안먹힌다고 생각한다. 그의 작품은 대담한 제스추어를 향하는 조각가의 감성과 장식이 없는 면에 대한 미니멀리스트의 태도를 결합하고 있다. 무거운 재료들을 투명한 것들과 대조시키고, 달힘과 열림을 대비시킴으로써 그는 강력하면서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천박하거나 낭만해지지 않는, 압도적이고 기억에 남는 건축을 시도하고 있다.

• 최문규+GaA





Suo Fujimoto Architects

그의 목표는 급진적이다. 그는 건축을 디자인 하는 '완전히 다른 방법'을 찾고 있다. 일반적인 기둥과 슬래브, 계단 대신에 그는 그 모두를 대체할 수 있는 하나의 것을 추구한다.

이러한 그의 생각은 그의 초기 미발표작인 Primitive Future House에 잘 반영되어 있다. 이 작품에서 그는 구조, 계단, 개구부 심지어 가구의 역할을 수행하는 슬래브의 적층으로 이루어진 건축을 시도했다. 그의 이런 급진적인 생각들은 점차적으로 실현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현재 진행중인 오이타 시의 주택에서는 단면상으로 세계의 다공성의 큐브를 겹친듯한 형상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통해 주택에서의 기능공간의 배열을 공간의 깊이감에 따라 재배열하고 있다. 기존 방식을 따르는 대신에 후지모토의 작업은 하나의 기능적인 구역과 그 주변사이의 지연적 관계의 적층에 따라 구축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건축형태나 전체적 평면에서의 차원이 아닌 개인과 개인의 관계가 건축을 규정하는 주요한 부분으로 관심을 쏟고 있는 것이다. ■